

2025년 동학농민혁명

연구·창작자 워크숍

기간 : 2025년 6월 26일(목) ~ 6월 27일(금)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정읍 황토현 권역 어울림센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주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워크숍 일정

○ 기간 : 2025. 6. 26. ~ 6. 27.(1박 2일)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정읍 황토현 권역 어울림센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시 간	구 성	내용 및 장소
14:00~14:40(40분)	세미나	인사 및 소개 (집결 : 정읍 황토현 권역 어울림센터 강당)
14:40~15:30 (50분)		기성연구자 발표 · 고석규(목포대 명예교수) <동학농민혁명과 대립하는 두 개의 기억> · 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동학 접주 임명장 현황과 특징>
15:30~16:00 (30분)		문화예술 창작자 발표 · 박홍규(화백) <그림으로 보는 동학농민혁명>
16:00~16:10 (10분)	휴식	
16:10~17:00 (50분)	세미나	신진연구자 발표 · 송진현(경북대 사학과 박사 수료) <19세기 말 경상도 상주 사족 사회의 동향 - 동학농민혁명과 을미의병을 중심으로> · 장영진 원광대 사학과 석사과정 <고부 군수 조병갑의 관계망과 정치·사회적 기반 분석>
17:00~17:10 (10분)	휴식	
17:10~18:20 (70분)	세미나	종합토론
18:20~18:30 (10분)		정리 및 사진촬영
18:30~19:30 (60분)	석식	황토현 권역 어울림센터 식당
19:30~20:00 (30분)	숙소 배정 및 휴식	기념공원 연수동, 황토현 권역 어울림센터
20:00~	참여자 소통의 장	기념공원 연수동
08:00~09:00 (60분)	조식	황토현 권역 어울림센터
09:00~09:30 (30분)	회의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세미나실
09:30~10:30 (60분)	해설투어	박물관, 기념공원
10:30~11:00 (30분)	유적지 답사	정읍 전봉준 유적(전봉준 고택)
11:00~11:50 (50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이평면 조소리 1길 20(장내리)
11:50~12:40 (50분)		부안 백산성_전북특별자치도 백산면 용계리 산 8-2
12:40~13:00 (20분)		손화중 묘역_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상평동 산 134(음성동 마을)
13:00~14:00 (60분)	중식	유창 순대삼계탕 (삼계탕)
14:00~14:10 (10분)	정읍역 하차	정읍역
14:10~14:30 (20분)	이동 및 해산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 내부 사정에 따라 진행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 차〉

1. 동학농민혁명과 대립하는 두 개의 기억 7
고석규 (국립목포대 사학과 명예교수)
2. 동학 접주 임명장 현황과 특징 31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3. 그림으로 보는 동학농민혁명 49
박홍규 (화백)
4. 19세기 말 경상도 상주 사족 사회의 동향 67
〈동학농민혁명과 을미의병을 중심으로〉
송진현 (경북대학교 사학과 박사수료)
5. 고부군수 조병갑의 관계망과 정치·사회적 기반 연구 83
장영진 (원광대학교 사학과 석사 과정)
6. 답사 유적지 소개 97
정읍 전봉준 유적 ▶ 백산성 ▶ 손화중 묘역 ▶ 손화중 출생지

동학농민혁명과 대립하는 두 개의 기억

고석규(국립목포대 사학과 명예교수)

1. 머리말
2. 대립하는 두 개의 기억과 기념물
3. 두 개 기억의 원류 : 성리학적 정치인식의 두 원형(原型)
4. 성리학의 의리론
5. ‘반란’=‘혁명’의 논리
6. 농민군과 반농민군의 의리론
 - 1) 농민군의 의리론 ① : 인정의 회복을 위한 제폭구민·보국안민
 - 2) 농민군의 의리론 ② : 반외세 - 척왜양창의
 - 3) 반농민군의 의리론 - 신하의 도리
7. 절의(節義)와 청담(淸談)의 불편한 진실
8. ‘민족’ 깃발 빼앗기
9. 대립하는 두 개의 ‘기억’ 다투기
10. 맺음말 :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1. 머리말

역사가 인간 경험의 축적이듯이 역사 해석 역시 경험의 산물인가보다. 나 자신이 자꾸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역사를 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왔다. 1979년에 유신정권이 무너지는 경험, 1980년 광주, 그 후 5·6공, 또 밖에서 찾아온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 1990년대 초에 맞은 문민정부의 출현, 그리고 ‘국민의 정부’라는 구호를 내세운 DJ정부의 출현까지 …… 잇을 만한 데 다시 또 나타나는 계엄과 탄핵 등, 현대사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다. 이런 우여곡절은 나의 학문에도 많은 변화의 자취들을 남겼다.¹⁾

한국역사연구회와 학술운동

1990년을 전후한 시기의 경험들 중에서 이 자리에 나를 다시 서게 한 인연의 시작은 한국역사연구회(이하 한역연)에서였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학술활동을 통해 실천해 보려는 이른바 학술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다. 한역연은 1988년 9월에 창립하였다. 창립취지문에 나타나 있듯이, “고립분산적인 연구풍토와 소소유자적인 세계관에 둘러싸여 연구주의, 업적주의가 팽배해 있던 당시 학계를 비판하면서 공동연구와 그 성과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고, 나아가 올바른 세계관에 입각한 과학적 역사학의 수립, 실천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와 자주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 목적을 두었다. 나도 창립부터 적극 참여했고 1992년에서 1993년경에 걸쳐 연구회 사무국장을 맡아 “쓰러질 때까지 일한다는 각오”로 임했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지금 생각해 보면 가상하기까지 한데 당시로서는 그때 그 시대를 사는 젊은 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현장에서 목숨을 걸며 민주화운동을

1) 나의 연구에 대해서는 고석규, 「시대의 흐름에 조응하려 한 연구의 흔적들」(『歷史學研究』65집, 호남사학회, 2017. 02. 28) 참조.

하는데 나는 그렇게는 못할망정 학술활동에서라도 뭔가 기여하는 게 있어야 숨 쉬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연구 방식에서 보면, ‘공동연구’라는 영역에서 새로움을 찾았다. 힘을 합쳐야 민주화든 자주화든 이를 수 있다는 생각에 연구에서도 공동연구를 지향하였다. 그런 성과로 펴냈던 것이 바로 『1894년 농민전쟁연구』(역사비평사, 전5권)였다. 이 시리즈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00주년을 기념하여 이를 이슈화함으로써 그 의미를 재조명하고, 민주화운동 주체세력의 문제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민주운동사 서술의 학술적 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하였다.

나는“갑오농민전쟁 100주년 기념 5개년 연구사업”에 1차년도 팀장, 2차년도 반장을 맡아 나름대로 기여하였다. 누구 못지않은 열정으로 참여하였다. 사업목표는 “한국역사연구회는 갑오농민전쟁 100주년을 맞이하여 당시 농민전쟁의 전과정을 새로운 시각에서 확인하는 동시에 한국 변혁운동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하여 갑오농민전쟁 100주년 기념연구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내세웠다. 출판된 책의 제목은 ‘갑오’를 ‘1894년’으로 바꾸어 『1894년 농민전쟁연구』로 나왔다. 5개년 사업은 큰 차질 없이 전5권을 완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2004년 2월 9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3월 5일 공포되었다. 실로 110년 만에 우리의 뒤틀린 역사 하나가 제자리를 잡게 된 것이었다. 민주화운동 시기에 이렇게나마 사회에 대한, 또 운동가들에 대한 마음의 빛을 갚을 생각에 연구회 활동을 하였다. 그러다 보니 연구에 아무래도 정치적 지향이 섞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그것을 역사적 사명이라 여겼다. 그러던 중 민주화라는 정치적 과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민주화를 이루는 일에 비록 너무 미미하지만 함께할 수 있었다는 데 스스로 위로하면서 마음의 빛을 내려놓았다.

2014년에 다시 내가 살고 있던 전남 무안의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연이 맺어져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얽혀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 자리까지 왔다. 이것도 참 끈질긴 인연인가 보다.

2. 대립하는 두 개의 기억과 기념물

사당과 기념탑!

서로 대립하는 이 두 기념물은 장흥 수성군과 농민군 후손들 간에 긴 세월 동안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였다. 지역 신문의 연재물인 “전라도 역사이야기” 중 「장흥부사 박헌양(朴憲陽)의 장렬한 죽음과 영회당(永懷堂)」(2019.01.06., 「남도일보」)이란 기사를 보면, 지금은 “양측 모두가 충(忠)과 의(義) 지키려 했던 시대의 희생자/ 원한 벗어버리고 서로의 아픔과 한(恨) 보듬어줘야” 한다고 하여 양측 모두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이다. 즉 “백성들의 고향을 빨아먹던 탐관오리가 나뻐지, 국록을 먹는 관리가 목숨을 바쳐 성을 지키기 위해 분투한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고 하면서 “지난 100년 세월 동안 동학농민군을 역도라 몰아붙이고, 그 죽음을 폄훼했던 그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곤란하듯이, 수성군들 역시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당한 사람들로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장한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고 하여 “수성군이라고 해서 무조건 폄훼하거나 반시대적 인물로 평가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말한다. 모두가 외세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던 변혁시대의 희생자들이었다는 것이다.

이제 대립을 넘어 화해를 말하고 있다. 그것도 수성군의 열세를 인정하면서 ... 이는 한 세기를 지나면서 농민혁명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장성이나 나주 등 여러 곳의 기념물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림 2】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탑(왼쪽)과 영회당(오른쪽)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탑은 동학농민혁명의 마지막 격전이었던 장흥 석대들 전투를 기념하여 1992년에 건립하였다. 한편 이 전투에서 전사한 장흥부사 박헌양 등 수성군 장졸 96명의 위패를 봉안한 사당 영회당(永懷堂)과 갑오동학란수성장졸순절비와 비각이 기념탑 뒤편 남산의 반대편 산록에 있어 대조를 이룬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역사를 겪었다. 기념물 건립의 추이에도 그런 사연들이 반영되어 있다.

그 추이를 보면, 사건 직후와 해방 전까지는 ‘반농민군’ 기념물 일색이었다. 유림·보부상·전몰장병 후손들이 주체가 되어 관군의 충절과 유교적 지식인의 의로운 죽음을 기리는 기념물들이 전부였다. 반면에 해방 후에는 거꾸로 이들이 주도한 기념물은 정말 신기하게 단 하나도 없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중세적인 근왕사상이나 유교적 충의론이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해석한다.²⁾ 해방 후 첫 기념물은 1954년 11월 25일, 천안전씨 문중에서 전봉준 고택 근처에 세운 전봉준 단비[甲午民主倡義統首天安全公琿準之壇]였다. 단비 이름은 김상기 박사가 지었다.³⁾

오히려 해방 이후에 특기할 만한 변화는 국가권력에 의한 기념물들이었다. 그 때문에 5·16과 12·12 군사쿠데타 세력들에 의한 파행적 기념물들과 이에 저항하며 성장해 온 민주화운동계열의 기념물들이 서로 대조를 이루었다.

1894년 당시 ‘같은’ 의리를 내세우면서도 서로 싸웠던 동학농민군과 반농민군 간의 대립이 현대사에도 군사정권과 민주세력 간에 “같은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기억, 기념하면서 연장되었다.

2) 기념물 건립의 추이에 대해서는 박명규, 「역사적 경험의 재해석과 상징화-동학농민전쟁의 기념물」(『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통권 51, 1997.06, 한국사회사학회)에 상세하다.

3) 이 단비 기념물뿐만 아니라 각종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는 이병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역사적 전개와 과제」(『역사연구』 28, 역사학연구소, 2015.06) 참조.

3. 두 개 기억의 원류 : 성리학적 정치인식의 두 원형(原型)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성리학 국가

성리학은 가장 보수적이고 체제유지적인 사상이다. 중국에서도 성리학은 관학이나 개인의 수양 학으로는 계속 살아남았지만, 혁명적 이념으로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조선은 그 ‘혁명’이 실현된 나라였다. 조선의 건국 주도 세력들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이른바 역성혁명을 이루어냈다. 이는 세계사에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조선은 일국과 세계사의 관점에서 모두 독특한 나라이다”라고도 한다.⁴⁾ 그리고 더 나아가 성리학으로 기획된 국가를 세웠다. 학자지배 pedantocracy(현학자들에 의한 지배), 즉 성리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사대부(사+대부 : 정치하는 학자)의 지배가 전형적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조선이었다. 학문과 교육은 지배신분이 갖추어야 할 자격이었다. 세계에서 그 유래가 드물게 선비, 유자(儒者)들의 문치주의가 지속되었으며, 그러한 체제로 500년 왕조를 지켰다.

성리학=조선의 아비투스

이때 그 중심에는 ‘왕조의 설계자’로 불리는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이 있었다. 정도전의 저술인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1394, 태조 3)과 『경제문감(經濟文鑑)』(1395, 태조 4), 그리고 『경제문감별집(經濟文鑑別集)』(1397, 태조 6) 등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실천 목록을 그려낸 ‘왕조의 설계도’였다고 한다.⁵⁾

여기서 설계도의 구체적 모습까지 소개할 여유는 없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왕권의 강화’를 제도적 차원에서 관철시키고, 이를 통해서 사권(권세가)의 발호를 억제하고 대간(간관·언관)의 감시·비판·견제 기능의 활성화를 달성하여 왕권과 신권의 조화(군신공치)를 통한 위민(爲民)과 지치(至治)를 실현하는 ‘재상 중심의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었다. 이는 재상 중심의 ‘왕도정치’였고, 신권 우위의 조선이었다.⁶⁾

그리고 성리학으로 기획된 신왕조 탄생의 결과, 성리학은 모든 정치논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다. 그 누구도 성리학의 인식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렇게 조선에서 성리학은 습속으로서의 문화(habit of mind), 조선의 아비투스를 형성했다.⁷⁾ 이렇게 주자일존주의 패러다임이 주도하는 문화지형을 만들었다.

성리학적 정치인식의 두 원형(原型)

역성혁명이 일어나던 여말선초에 성리학은 ①구체제의 온존을 위한 방법론(보수적 정치인식)이 되기도 했고, ②혁신세력에 의해 체제변혁의 방법론(역성혁명을 이루려는 개혁지향적 정치인

4) 辛正根, 「鄭道傳의 ‘立法’에 의한 ‘牽制와 均衡’의 정치사상」(『大東文化研究』 제124집, 2023. 12)

5) 송재혁, 「정도전의 군주론 『경제문감별집』을 중심으로」(『정치사상연구』 제22집 2호, 한국정치사상학회, 2016.11) ; 「정도전(鄭道傳)의 국가론 -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과 원(元) 제국의 유산 -」(『한국사상사학』65권, 한국사상사학회, 2020.08), 159쪽 ; 「정도전 저작의 군신공치론적 구조: 『진서산독서기』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공자학』 52권, 한국공자학회, 2024.02), 162쪽.

6) 박홍규·방상근, 「정도전(鄭道傳)의 "재상주의론" 재검토」(『대한정치학회보』15권 3호, 대한정치학회2008.02), 22쪽. 조항덕, 「삼봉(三峰) 정도전(鄭道傳)의 개혁사상(改革思想)」(『동양철학연구』70권, 동양철학연구회, 2012.05), 3쪽.

7) 김호, 「'비교사의 모험', 유학은 어떻게 동아시아를 만들었는가? - 와타나베 히로시, 『동아시아의 왕권과 사상』을 읽고」(『歷史學報』 第262輯, 역사학회, 2024.06), 248쪽.

식)이 되기도 했다. 또 한편 신왕조가 개창된 이후에는 ③성리학적 질서의 제도화를 위한 방법론(안정지향적 정치인식)이 되었다.⁸⁾ 이중 ①과 ③은 ‘창업’ 전과 후의 인식으로 시점은 다르지만 지향은 같다. 따라서 ①과 ③은 보수·안정 지향, ②는 개혁 지향 등 두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두 유형이 성리학적 정치인식의 두 원형(原型)을 이룬다.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의 차이, 창업(創業)과 수성(守成)의 차이

같은 성리학이면서 이렇게 다른 모습은 어떻게 나올까? 이에 대해 수기와 치인의 차이로 설명한다.

주자의 성리학에서 ‘수기’와 ‘치인’은 자연스럽게 연속되어 있다. 그렇더라도 수기와 치인 중에 어느 것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정치인식은 확연히 달랐다. 이때 수기론(修己論)을 강조할 경우에는 도덕적 실천과 보편질서에의 순응을 강조하는 보수적 정치인식이 강하게 나타난다면, 치인론(治人論)을 강조할 경우에는 현실세계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정치사회에 대한 적극적 개혁을 지향하는 혁신적 정치인식이 주조를 이루게 된다고 한다.⁹⁾

정도전은 치인론에 서서 수시변통(隨時變通)의 논리로 제도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창업에 역점을 두어 새로운 정치질서를 창출하였다. 동시대의 다른 성리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성리학을 체제개혁의 이념적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정치인식에서는 보수세력과 달랐다. 한편, 수기론적 정치인식은 안정지향적인 수성의 논리로 수렴되었다. 권근(權近, 1352~1409)의 말을 들어보자.

“왕자(王者)가 거의하여 창업할 때에 사람들 중에서 나를 따르는 자에게 상을 주고 따르지 않는 자에게 죄를 주는 것은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업이 이미 안정되어 수성할 때에는 반드시 절의(節義)를 다한 전대(前代)의 신하에게 상을 주어야 하니, 죽은 자에게는 [벼슬을] 추증하고 살아 있는 자는 등용하여 표창을 두터이 하여 후세 신하들의 절의를 장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금의 통의(通義)입니다.”¹⁰⁾

즉 권근은 창업과 수성의 ‘때’를 구분하고, 그 ‘때’에 따라 각각의 ‘의리’가 다름을 말하고 있다. 절의의 표창 기준이 창업 때와 수성 때가 달라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수성 때에는 “절의를 다한 전대의 신하”에게도 상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①과 ③은 서로 통한다.

여말선초 유자(儒者)들은 정치적 목적과 체제 변동에 대한 전망의 차이에 따라 성리학의 각기 다른 측면들, 즉 수기와 치인을 강조한 결과, 서로 다른 정치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런 인식들은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경쟁하였다. 수기적 입장은 수성과 통하고, 치인적 입장은 창업과 통한다. 이처럼 성리학이라는 같은 뿌리이지만, 거기서 나온 갈래들은 서로 달랐다. 성리학 틀 내의 인식차, ‘수기와 치인’, ‘창업과 수성’, 이런 인식의 차이가 시간을 뛰어넘어 동학농민혁명 당시 두 가지의 의리론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던 것은 아닐까?

8) 이를 전형적으로 李穡의 道德志向의 政治認識, 鄭道傳의 改革志向의 政治認識, 權近의 安定志向의 政治認識으로 유형화하기도 한다. 최연식, 「麗末鮮初의 政治認識과 體制改革의 方向設定 - 李穡, 鄭道傳, 權近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17집(한국정치외교사학회, 1997.12) 참조.

9) 최연식, 같은 논문, 112쪽.

10) 『陽村集』 卷31, 「壽昌宮災上書」, “王者舉義創業之時 人之附我者賞之 不附者罪之 固其宜也 及大業既定 守成之時 則必賞盡節前代之臣 亡者追贈 存者徵用 優加旌賞 以勵後世人臣之節 此古今之通義也”. 최연식, 같은 글, 134쪽.

4. 성리학의 의리론

성리학의 의리론

의리(義理)라는 표현은 『예기(禮記)』 제10 「예기(禮器)」편에 나오는, “선왕이 예를 세운 것에 근본이 있고 표현방식이 있었다. 충신(忠信)은 예의 근본이고, 의리(義理)는 예의 표현 방식이다[忠信 禮之本也 義理 禮之文也]”에 보인다. 송대 유학자들은 ‘의리’라는 개념에 특히 주목하였다. 유학자들 중에서 도학(道學)을 내세우는 유학자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런 도학이 성리학이었다. 어떤 유학보다 윤리적 문제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이나 근거에 대한 철학적 논의에 관심을 가졌다. 성리학 자체가 ‘성명의리지학(性命義理之學)’이다. 그만큼 의리가 중요하였다. 충절이 이전의 유학에서보다 강력하게 제기되는 이유였다. 유교사회는 ‘의리 사회’가 된 것이다.¹¹⁾

조선의 도학자들은 공자가 말한 “군주가 신하를 부릴 때는 예에 따라야 하고 신하가 군주를 섬길 때는 충(忠)해야 합니다[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라는 말에서 군신간의 의리 관념을 찾았다.¹²⁾ 충은 “임금을 섬김에 있어 절의(節義)를 다하는 것”이었다. 다만, 국왕이라 할지라도 주자학적 의리에 합치하는 한에서만 국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게 된다.

이렇듯 신하는 군주를 충으로 섬겨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권근은

“군주를 섬기는 충과 아버지를 섬기는 효는 신하나 자식 된 자의 큰 절개이므로, 어느 한편에 치우쳐 선후 장단의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효경(孝經)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효로 섬기기 때문에 군주에게 충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¹³⁾

라 하여 군신관계를 삼강오륜(三綱五倫)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군신관계를 부자관계에서 가져와, 부자 관계가 효행(孝行)을 근본으로 하듯이 군신관계는 충성(忠誠)을 근본으로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효와 충은 사람의 자식이나 군주의 신하에게 대절이 된다. 충신을 말하기 전에 모든 행위의 근본인 효를 소학적 실천을 통해 강조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¹⁴⁾

의리론의 모범답안 : 나세찬(羅世續, 1498 ~ 1551)의 「숭절의론(崇節義論)」

절의를 인륜과 연관 짓는 것은 나세찬의 「숭절의론」에도 보인다.

“대저 사람이 사람이 되는 이유는 인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륜에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다섯 가지 떳떳함이 천하의 人心에서 밝지 않은 이유는 절의의 가르침이 천하의 인심에 밝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의는 사람의 윤리를 부지하고 사람의 기강을 세우는 것으로서, 천하로 하여금 뿔뿔하여 위난(危亂)에 이르지 않게 합니다만, 천하가 혹여 위난에 이른 연후에 절의라는 이름이 비로소 천하에 드러나기도 합니다.”¹⁵⁾

나세찬은 이 글로 정시(庭試)의 초시(初試)에서 장원을 하였다고 하니 모범답안이 아닐 수 없

11) 임종진, 「동양적 의리론의 함의」(『사회사상과 문화』 18권 4호, 동양사회사상학회, 2015.12), 223쪽.

12) 『論語』, 「八佾」. “定公問 君使臣, 臣事君, 如之何? 孔子對曰: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13) 『陽村集』 卷25, 「辭免起復花山君箋」. “事君之忠, 事親之孝, 臣子大節, 不可偏廢而有先後長短之異. 故孝經曰 事親孝, 故忠可移於君.”

14) 김경호, 「파란과 역설 : 조선시대 호남의 충절 논의- 1515년 박상과 김정희의 구언 상소와 관련하여」(『2024 호남사학회 동계학술대회 ‘호남정신과 호남의병’ 자료집』, 2024.11.22.)

15) 羅世續, 『松齋遺稿』, 「崇節義論」 “夫人之所以爲人者, 以其有人倫也, 人倫有五, 五者之常, 所以不明於天下之人心者, 由節義之教不明於天下之人心也. 節義者, 所以扶人倫立人紀, 而使天下常不至於危亂. 天下或至於危亂, 然後節義之名, 始著於天下.”

다. 그는 두 차례의 장원급제로 문명(文名)을 떨쳤다.

여기서 그는 절의를 인륜과 연관 지어 논리를 전개하였다. 즉 절의의 가르침이 천하의 인심에 밝을 때, 인륜도 밝을 것이라고 하였다. 절의가 윤리를 지탱하고 기강을 세우므로, 그것은 세상이 혼란한 지경이 되지 않게 만드는 예방의 효용이 있다고 하였다.¹⁶⁾ 인륜이 그 출발점이었다.

조선 의리론의 맨 윗자리에는 군주=군사(君師)가 있었다.

인륜에 기반한 의리론에서는 결코 왕을 부정하지 못했다. 전통사회에서 군주를 정점으로 하지 않는 정치체제는 없었다. 권한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총재 역시 군주의 밑에서 자신의 직임을 담당하는 신하일 뿐이었다.

거기에 덧붙여 군주를 군사(君師)·선사(先師)로 위치 지움으로써 정령권(政令權)을 가진 정치적 수장임과 동시에 교화와 사문(斯文)을 주관하는 유종(儒宗)의 지위도 겸하는 존재임을 내세웠다. 이렇게 정령과 교화를 군주 한 몸에 구현하는 일은 공사윤리의 최고 범주인 충과 효를 일체화하는 것과 표리관계를 이루게 되어 있었다.¹⁷⁾ 영조도 정조도, 그리고 고종도 ‘군사(君師)’를 자처했다.¹⁸⁾

개화세력이 끝까지 극복하지 못한 장애물은 근왕주의 세력의 공격이나 외국의 간섭이 아니라 민의 심성에 깊이 각인된 국왕에 대한 전근대적 충성심과 왕권에 대한 동경(憧憬)에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¹⁹⁾ 근왕이 무엇보다 먼저였고, 충의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도 근왕적 ‘거의’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5. ‘반란’=‘혁명’의 논리

성리학에는 ‘반란’=‘혁명’의 논리도 당연히 있었다.

농민군의 의리론은 치인 및 창업에 통한다. 따라서 ‘반란’=‘혁명’의 논리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좀더 살펴보자.

“왕정(王政)이 폐하면 백성이 곤궁해지고, 백성이 곤궁해지면 나라가 가난해지고, 나라가 가난해지면 거둬들이는 것이 번잡해지고, 거둬들이는 것이 번잡해지면 인심(人心)이 이반하고, 인심이 이반하면 천명(天命)이 떠난다.”²⁰⁾

이는 다산 정약용의 말이다. 인심, 바로 민심이 이반하면 천명은 떠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천명과 민의는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일 수 없다. 이런 논리로 혁명의 명분을 찾는다.²¹⁾

일찍이 정도전의 말에도 나온다. 즉

16) 강민구, 「조선 節義論의 전개 양상」(『동방한문학』 제97호, 동방한문학회, 2023.12), 15쪽.

17) 김준석, 「18세기 탕평론의 전개와 왕권」(『동양 삼국의 왕권과 관료제』, 조선시대사학회, 국학자료원, 1999.03.30.), 281쪽.

18) 김종학, 「국 = 가와 국/가 - 왕권을 둘러싼 정치투쟁과 대한제국 -」(『개념과 소통』 20권, 한림과학원, 2017.12), 11쪽.

19) 김종학, 같은 논문, 36쪽.

20) 『여유당전서』, 「문집」 권10, 「原政」, “王政廢而百姓困, 百姓困而國貧, 國貧而賦斂煩, 賦斂煩而人心離, 人心離而天命去.”

21) 김태희, 「다산 정약용의 군주론과 『경세유표』」(『동방학지』 권18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7), 79쪽.

“인군의 지위는 높기로 말하면 높고, 귀하기로 말하면 귀하다. 그러나 천하는 지극히 넓고 만민은 지극히 많다. 한 번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마 크게 염려할 일이 생기게 되리라. 下民은 지극히 약하지만 힘으로 위협할 수 없고, 지극히 어리석지만 지혜로 속일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얻으면 복종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배반하게 된다. 그들이 배반하고 따르는 그 간격은 털끝만큼의 차이도 되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사사로운 뜻을 품고서 구차하게 얻는 것이 아니요, 도를 어기어 명예를 구하는 방법으로 얻는 것도 아니다. 얻는 방법 역시 仁일 뿐이다.”²²⁾

『순자』에는 “군주란 배이고 백성이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그 물은 배를 뒤엎을 수도 있다”²³⁾라는 말이 있다. 이는 魯 哀公이 공자에게, 자기는 깊은 궁중에서 태어나 부인의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위험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면서 가르쳐달라고 하자, 공자가 대답하기를 “제가 듣건대, ‘군주는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물은 배를 뒤엎을 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군주께서 이를 통해 위험하다 생각하신다면 위험하다는 감정이 어찌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²⁴⁾라 하는 기록에서 연원했다고도 한다. 이 기록도 역시 『순자』에 나온다.

조선에서는 숙종이 1675년(동 1)에 ‘어제주수도설(御製舟水圖說)’을 써서 대신(大臣)에게 내보이며 말하기를, “군주는 배와 같고 신하는 물과 같다. 물이 고요한 연후에 배가 안정되고 신하가 현명한 연후에 군주가 편안하다. 경(卿) 등은 마땅히 이 도(圖)의 뜻을 본받아 보필(輔弼)의 도리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²⁵⁾라 하였다. 『경종어제주수도설(景宗御製舟水圖說)』도 전해진다.

또 정조는 남한산성 행행(行幸) 길에 광나루에 이르러 용주(龍舟)를 타고는 하교하기를, “임금은 이 배와 같고 백성은 저 물과 같은 것이다. 내가 지금 배를 타고 백성을 대하니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든다. 옛날에 성조께서 주수도(舟水圖)를 그리시고 사신(詞臣)을 불러 명(銘)을 지으라고 하신 것도 역시 그러한 뜻에서였을 것이다”라 하였다.²⁶⁾

주(舟)는 모두 군주를 가리키지만, 수(水)가 숙종에게는 신하였고, 정조에게는 민, 백성이었다. 왕이 스스로 경계한다는 뜻에서 한 말로 비유 대상은 달라도 의미상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혁명론은 맹자의 ‘탕무방벌론(湯武放伐論)’이 대표적이다. 방(放)은 쫓아낸다는 뜻이고 벌(伐)은 벤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방벌은 악덕한 군주를 쫓아내 죽인다는 뜻이다. 포악한 군주를 ‘정벌’함으로써 천명을 구현했기 때문에 탕무방벌은 ‘반란’이지만 ‘혁명’이 된다.

이는 맹자의 「양혜왕」편에 실려 있다.

“제선왕이 물었다. “탕이 桀을 방(放)하였고, 武王이 紂를 벌(伐)했다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전해오는 문헌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신하가 자신이 군주를 시해해도 괜찮은 겁니까?” 맹자가 말했다. “인을 해치는 자를 도적이라 부르고, 도의를 해치는 자를 잔악하다고 말합니다. 잔악하고 도적질하는 이런 사람을 한낱 필부[一夫]라고 부릅니다. 저는 한낱 필부인 紂를 죽였다는 말을 들었을 뿐 시군(弑君)이란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²⁷⁾

22) 『三峯集』 권13, 『朝鮮經國典』 상, 「正寶位」, “人君之位, 尊則尊矣, 貴則貴矣. 然天下至廣也, 萬民至衆也, 一有不得其心, 則蓋有大可慮者存焉. 下民至弱也, 不可以力劫之也. 至愚也, 不可以智欺之也. 得其心則服之, 不得其心則去之. 去就之間, 不容毫髮焉. 然所謂得其心者, 非以私意苟且而爲之也, 非以違道干譽而致之也, 亦曰仁而已矣

23) 『순자집해』(2) 王制篇 第九9-41 “君者는 舟也요 庶人者는 水也라 水則載舟하고 水則覆舟”

24) 『순자집해』(7) 哀公篇 第三十一

25) 『숙종실록』 65권, 숙종 대왕 묘지문[誌文] “王於初, 元作《舟水圖說》, 出示大臣曰: ‘君猶舟, 臣猶水也. 水靜然後君安, 臣賢然後君安’. 卿等宜體此圖之意, 以盡輔弼之道. 取比精切, 辭理暢達”

26) 『정조실록』 1권, 정조 대왕 행장(行狀) “至廣津, 御龍舟, 教曰: 君猶舟也, 民猶水也. 予今御舟臨民, 益切兢惕. 昔聖祖作舟水圖, 命詞臣撰銘, 此意也”

27) 『맹자집주』 「梁惠王章句」下, “齊宣王이 問曰 …齊宣王問曰: “湯放桀, 武王伐紂, 有諸?” 孟子對曰: “於傳有之.” / 齊宣王이 問曰 湯이 放桀하고 武王이 伐紂 | 라하니 有諸잇가 孟子 | 對曰 於傳[에] 有之하니이다 / 集註 / 放은

인의를 해치는 자는 한낱 필부에 지나지 않으니 군주가 될 수 없다. 그런 자가 紂이니 주를 죽이는 것은 ‘시군’이 아니라고 하여, 인의를 해치는 악덕한 군주는 죽여도 좋다는 뜻이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맹자의 이 말은 ‘혁명’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명분이 되었다.

맹자는 결과 주가 천하를 잃은 이유로 민심을 잃었기 때문임을 첫손에 꼽고 있다. “민(民)이 가장 소중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일반 민의 신뢰를 얻어서 그렇게 천자가 된다”²⁸⁾ 고 하였다. 맹자의 「이루(離婁)」상편을 보자.

“결과 주가 천하를 잃은 것은 그 민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 민을 잃은 것은 그들의心を 잃었기 때문이다. 천하를 얻는데 도가 있는데, 그 민을 얻으면 이는 천하를 얻는 것이다. 그 백성들을 얻는데 도가 있는데, 그들의心を 얻으면 이는 그 민을 얻는 것이다. 그들의心を 얻는데 도가 있는데, 바라는 바를 모아서 그들에게 주고, 싫어하는 바를 그들에게 베풀지 말아야 한다.”²⁹⁾

라고 하였다. 이것이 유가의 민본사상이 된다.

맹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임금에게 큰 잘못이 있으면 간(諫)하고, 반복해서 간해도 듣지 않으면 임금의 자리를 바꿉니다.”³⁰⁾ 라 하여 임금이 간언을 받아드리지 않을 때는 벼슬을 그만두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임금의 자리를 바꾸라고까지 하였다. 이처럼 가장 적극적으로 혁명을 말하고 있다.

1870년 4월 지경연사 심승택(沈承澤, 1811~ ?)이 “외간의 어린아이들은 15세가 되기 전에 『맹자』를 모두 읽는데, 고종은 강독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마치지 못했다”며 분발을 촉구한 데에서³¹⁾ 알 수 있듯이 『맹자』는 조선의 성리학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기초지식이었다. 그런 점에서 맹자의 방벌론은 널리 공유되고 있던 상식이었다.

6. 농민군과 반농민의 의리론

1894년에 농민군이나 반농민군 모두 임금에 대한 충절, 즉 의리를 내세웠다. 그렇지만 서로 대적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자.³²⁾

1) 농민군의 의리론 ① : 인정(仁政)의 회복을 위한 제폭구민·보국안민

반봉건, 그 중에서도 반관(反官)적 봉기의 명분

置也라 書云 成湯이 放桀于南巢라하니라/ 曰: “臣弑其君, 可乎?” 曰 臣弑其君이 可乎 | 잇가(잇가)/ 集註/桀紂는 天子요 湯武는 諸侯라/ 曰: “賊仁者謂之賊, 賊義者謂之殘, 殘賊之人謂之一夫. 聞誅一夫紂矣, 未聞弑君也.” 曰 賊仁者를(를) 謂之賊이오 賊義者를(를) 謂之殘이오 殘賊之人을 謂之一夫 | 니 聞誅一夫紂矣오 未聞弑君也케이다.“

28) 『맹자집주』 「盡心章句」下,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사직(社稷)이 그 다음이고, 임금은 가벼운 존재이다. 그러므로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천자(天子)가 되고, 천자에게 신임을 얻으면 제후(諸侯)가 되고, 제후에게 신임을 얻으면 대부(大夫)가 된다.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제후를 바꾸어버린다.”

29) 『맹자집주』 「離婁章句」上, “孟子曰 桀紂之失… 孟子 | 曰 桀紂之失天下也는 失其民也 | 니 失其民者는 失其心也 | 라(| 니라) 得天下 | 有道호니 得其民이면 斯得天下矣리라(오) 得其民이 有道호니 得其心이면 斯得民矣리라(오) 得其心이 有道호니 所欲을 與之聚之호고 所惡를 勿施爾也 | 니라.”

30) 『맹자집주』 「萬章章句」下, “齊宣王이 問卿한… 曰: 「君有大過則諫, 反覆之而不聽, 則易位.”

31) 『승정원일기』 고종 7년(1870) 4월 23일

32) 이 부분에 대한 서술에는 김현주, 「1894년 동학·반동학 세력의 ‘義擧’ 선취 투쟁과 지역 사회의 대응」(『역사와 담론』 第93輯, 호서사학회, 2020.01)이 크게 도움 되었다. 홍동현 또한 동학농민군이 ‘보국안민’이라는 유교적 가치를 선점함으로써 인해 자신들의 봉기를 ‘義’의 실천으로 정당화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홍동현, 「1894년 ‘동도’의 농민전쟁 참여와 그 성격」(『민중사를 다시 말한다』, 역사비평사, 2013), 190쪽 참조.

1894년 3월 20일, 무장기포(戊長起包) 포고문³³⁾을 보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 군신과 부자의 관계는 인륜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임금이 어질고 신하는 곧으며,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효를 행한 다음에야 가정과 나라를 이룰 수 있으며, 끝없는 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 하여 강상윤리인 군신·부자 관계의 충효에 기반한 성리학적 의리론을 전제한 다음,

“오늘날 신하 된 자는 보국(輔國)은 생각지 아니하고, 녹봉과 벼슬자리만을 도둑질하며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아침하는 말을 일삼아 충성스럽게 간하는 선비를 일컬어 ‘요언(妖言)’이라고 하고 정직한 사람을 일컬어 ‘비도(匪徒)’라고 한다. 안으로는 보국의 인재가 없고 밖으로는 백성을 침학하는 관리가 많아져, 백성들의 마음은 나날이 더욱더 변해갔다. … 안으로는 즐겨 생업을 할 수 없고, 밖으로는 보호하고 베풀어줄 대책이 없다. 학정은 날로 더 심해 가고 원성은 서로 이어져, 군신간의 의리와 부자간의 윤리, 상하간의 분수가 드디어 무너져 남은 것이 없게 되었다. … 공경 이하로부터 방백과 수령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처한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자신의 몸을 살찌우고 집안을 윤택하게 하는 계책을 꾀하고 있다. … 수령과 방백의 탐학함이 참으로 그러하니 어찌 백성이 곤궁하지 않겠는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그 근본이 다치게 되면 곧 나라는 망한다.”

고 하여 “공경 이하로부터 방백과 수령”에 이르기까지 신하들의 탐학으로 인하여 나라의 근본인 백성을 다치게 하여 국가가 망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런데도 보국안민(輔國安民)의 방책을 생각지 아니하고, 밖으로 고향에 집을 마련하여, 오직 혼자만 온전하기 위한 방도를 도모하고 다만 녹봉과 벼슬자리만 도둑질하니, 어찌 옳게 다스려질 수 있겠는가? 우리들은 비록 초야의 유민(遺民)이지만, 임금의 땅에서 먹을 것을 갈아먹고 임금이 준 옷을 입고 있으니, 국가가 위험에 처하여 망하게 된 것을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전국이 마음을 같이하고 수많은 백성들의 의견을 물어 보국안민으로써 죽고 살기를 맹세하였으니”

라 하여, 민본이념이 붕괴되고 인정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회복함으로써 보국안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리하여 “태평세월을 함께 빌고 모두 임금의 덕화를 기린다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여 그들의 목표가 인정이 행해지는 유교적 이상사회의 회복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³⁴⁾

1894년 4월 초4일 동도가 범성포의 아전과 향임에게 보내는 통문을 보아도

“임금이 위에 계신데, 백성이 도탄에 빠지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민폐의 근본은 아전의 포혹에 있고, 아전 포혹의 근본은 탐악한 관리에서 연유한다. 탐악한 관리가 탐악을 저지르는 것은 집권자의 욕심에서 연유한다.”³⁵⁾

고 하여 임금과 여타 신하들을 구분한 다음, 이서의 포혹, 탐악한 관리, 집권자의 욕심으로 이어지는 데서 모순의 소출처를 찾고 있다. 다만, “그 근본을 살펴보면 아전도 백성이다”라 하여 이향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4월 17일 창의소 명의로 전주에 보낸 통문에서도, “이번 우리들의 의는 위로는 종사를 보전하고 아래로는 서민을 편안케 하여 부자의 천륜과 군신의 대의를 완전히 밝히는 데 있다”고 하였다. 또 “위로는 국태공을 모시어 부자의 윤리와 군신의 도리를 온전하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안정시켜 종묘사직을 온전히 보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 하였다.³⁶⁾

이처럼 동학농민군은 군신지의(君臣之義)를 실천하기 위해 의로운 거사를 도모한 것이다. 다시 말해 동학농민군은 타락한 기존의 신하 대신 ‘군신지의’의 실천 주체가 되어, 위로는 종사를

33) 『隨錄』, 무장현에서 동학인포고문을 베껴 올리다 [茂長縣膾上東學人布告文]

34) 배항섭, 「동학농민전쟁을 다시 생각한다」(『쟁점 한국사-근대편』, 창비, 2017.03.01.) 34쪽.

35) 『東匪討錄』, 「甲午四月初四日 東徒通文法聖吏鄉」

36) 『梧下記聞』, 「首筆」, 甲午 四月十九日, 4월 19일 함평에서 초토사 홍계훈에게 보낸 통문

보전하고 아래로는 서민을 편안하게 하고자, 즉, 제폭구민·보국안민을 위해 의로운 깃발을 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통문이나 격문은 그 외에도 많다. 모두 반봉건, 그중에서도 반관적 봉기의 명분을 내세운 것들이다.

반관(反官)적 봉기란?

반관이란 국왕의 덕정체제(德政體制)를 대행하는 수령이 봉건적 덕정에 위배되는 통치를 하였을 때, 그 수령을 부정한다는 뜻을 지닌다. 그렇다고 국왕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1889년(고종 26) 정선(旌善) 민란에서 “우리 임금의 명을 받드는 수령이 아니다[非吾君之命吏]”³⁷⁾라는 식으로 수령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반관운동’의 대표적인 예이다.³⁸⁾

강진의 경우, 강진 병영의 병사 서병무가 장흥 동학교도들이 도소를 차리고 활동하고 있을 때 이를 꾸짖는 포고문을 만들어 보냈다. 이에 농민군이 답하기를

우리는 의기(義氣)에서 일어났으며 탐오한 관리들을 징려(懲勵)하고자 한다. 지금 천권지신(擅權之臣)들이 성덕을 가리고 있으니 충간지사(忠諫之士)를 가리켜 요인(妖人)이라 하고 명원지민(鳴冤之民)을 가리켜 비도(匪徒)라 하며, 심지어 군대로써 도륙하려 하니 진실로 천고에 이러한 변고가 어디 또 있는가. 절하(節下) 또한 불의라 하니 심히 애석한 일이다.³⁹⁾

라 하여 탐오한 관리를 징려하고자 한다는 데 방점을 두며 이러한 반관적 봉기는 ‘불의’가 아닌 ‘의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맹자의 혁명론이나 주수설과 같은 맥락으로 전형적인 유교적 ‘거의’의 논리이다. 부정의 대상은 “공경 이하로부터 방백과 수령”이었다. 그 정점에 있는 군주에까지는 미치지 않았다. 이는 19세기 ‘민란의 시대’에 조선사회에 내면화된 ‘맹자적 민본론’의 전통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성리학의 의리론이 위아래 모두에게 지배이데올로기로 ‘잘’ 작동하던 때에 국왕을 부정하거나 지배체제 그 자체를 전복하려는 시도는 나타나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이상적인 기존 체제의 복원에만 머무르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맹자의 민본론은 창업적 의리론과 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최종 목표는 바뀔 수도 있었다.

소문이라고는 하지만 김개남이 남원에 나라를 세우려 했다거나, 전봉준이 “민심을 잘 아는 몇 사람의 명망가를 선출하여 임금을 보좌함으로써 안민의 정치를 이룩하고자 했다”라는 진술에서 맹자의 탕무방벌에 명분을 둔 혁명까지도 가능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⁴⁰⁾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아마도 그 동력이 양반의 압제와 관리의 탐학에 격동되어 나온 것인즉 평민의 혁명이었다. ... 외인의 간섭이 없게 하면서 다시 유능한 자가 그들 사이에 나왔다면 그 파괴로 해서 ‘하나의 새로운 조선의 독립국(一新鮮之獨立國)’을 세우는 것도 비로소 불가함이 아니었다. 강포한 이웃들이 이를 틈 타 간섭하지 않았다면 이른바 독립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마침내 그들로 인해 무너지고 마니 이 어찌 우리 백성들이 일으킨 혁명의 본뜻이겠는가?”⁴¹⁾

37) 『韓國地方史資料叢書』17, 「慈仁縣日錄」 464쪽. “諸民輩皆云 今無印符 非吾君之命吏”; 金洋植, 「高宗朝(1876~1893) 民亂研究」(『龍巖車文燮教授華甲紀念史學論叢』, 1990), 693쪽.

38) 정창열, 「조선후기 농민봉기의 정치의식」(『韓國人の生活意識과 民衆藝術』, 1984), 59쪽.

39) 『日史』 갑오년 6월 22일. 박찬승, 「1894년 호남 남부지방의 농민전쟁」(『1894년 농민전쟁연구』4,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역사비평사, 1995년 11월), 357쪽 참조.

40) 『도쿄아사히신문』 1895년 3월 6일자 「동학 수령과 합의정치」 등 참조.

“하나의 새로운 조선의 독립국(一新鮮之獨立國)을 세우는 것”, 박은식의 이 말에는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 아닐까?

2) 농민군의 의리론 ② : 반외세 - 척왜양창의

반외세의 명분

1893년 2월 10일 동학창의유생(東學倡義儒生)이란 이름으로 보은관아에 다음과 같은 통고문을 보냈다.

“일이 생겨 재앙과 어지러운 때에 살면서 충성과 효도를 다하다가 죽는 것은 바로 신하와 자식으로서 어려우면서도 쉬우며 쉽고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죽기를 즐겁게 여기는 사람은 충성과 효도의 절개를 세울 수 있습니다. … 지금 왜(倭)와 서양이라는 적이 마음속에 들어와 큰 혼란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진실로 오늘날 나라의 도읍지를 살펴보면 마침내 오랑캐들의 소굴이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임진왜란의 원수와 병인양요의 수치를 어찌 차마 말할 수가 있으며, 어찌 차마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 저희들 수만 명은 함께 죽기를 맹세하여 왜와 서양을 제거하고 격파하여 큰 은혜에 보답하는 의리를 다하고자 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각하께서는 뜻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충의정신이 있는 선비와 관리를 모집하여 함께 국가의 소원을 돕도록 하십시오.”⁴²⁾

척왜양을 목표로 한 ‘창의’임을 내세우는데, 여전히 충성과 효도와 같은 강상윤리에 기반한 성리학적 의리를 말하고 있다.

이에 보은군수가 동학인들이 주둔한 진영에 가서 “이번 이 도회소(都會所)를 창의(倡義)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 …”고 하여 해산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대하여

“창의한 것은 결코 다른 이유는 없고, 오로지 왜와 서양을 배척하기 위한 의리이니, 비록 순영(巡營)의 칙령과 주관(主官, 보은수령)의 설득이 있어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동학은 처음부터 사술(邪術)이 아니며, 설령 사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임금의 치욕을 당하여 신하가 죽어야 하는 자리라면 충절과 의리는 하나이니, 각지의 유생들이 같은 마음과 뜻으로 죽기를 맹세하고 충성을 바칠 것입니다.”⁴³⁾

라고 대답하였다. ‘척왜양창의’를 내세웠고, “임금이 치욕을 당하여 신하가 죽어야 하는 자리라면 충절과 의리는 하나”라는 말로 그것이 의거임을 말했다.

1893년 3월 26일 장내리에서 양호도어사(兩湖都御使) 어윤중(魚允中)에게 보낸 글에서도

“삼가 생각하건대 저희들은 선대 왕조부터 교화되고 길러진 백성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허물없는 창생이 도를 닦아 삼강오륜을 분명하게 알았고, 마음속에는 중화와 오랑캐를 분별하였기에 왜와 서양이 짐승과 같다는 것은 비록 작은 어린아이라도 더불어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 그러한 즉, 창의를 주창하여 왜와 서양을 배척하는 것이 무슨 큰 죄가 되기에 한편으로는 잡아 가두고 한편으로는 제거하려고 하십니까? … 또한 왜와 서양이 우리 임금을 협박함이 끝이 없는데도 조정에서는 한 사람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니, 임금이 모욕을 당하면 신하가 목숨을 바쳐야 하는 의리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 세상의 일은 끝이 없고 의리를 보기는 어려운데, 단지 강하고 약한 형세로는 공격하기 어렵다고 말한다면, 천하의 오랜 세월이 누가 생명을 버리고 의리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저희들은 비록 시골의 미천한 자들이지만, 어찌 왜와 서양이 강한 도적이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여러 왕조에서 유학을 숭상하는 교화를 입었으므로 모두 말

41)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史』(1920) 上編 緒言 「第3章 甲午東學黨之大風雲」, 7쪽.

42) 『취어(聚語)』, 보은 관아에 통고 [報恩官衙 通告], 「1893년(癸巳) 3월 11일 동학인이 삼문 밖에 방문을 세움」

43) 『취어(聚語)』, 3월 22일 탐지하여 23일 보고함 [二十二日探知 二十三日發報]

하기를 “왜와 서양을 공격하다가 죽는다면 죽는 것이 오히려 사는 것보다 현명하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국가가 축하해야 할 일이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 저희들이 의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면 ….”

라 하여 ‘척왜양’을 위한 ‘장의’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데김[題辭]이 이채롭다. 즉

“너희 무리가 모인 뜻이 오랑캐를 물리치는 데 있다고 하였는데, 온 나라가 함께 할 의리이건만 어찌 스스로 하나의 깃발을 따로 세우는가?”⁴⁴⁾

“오랑캐를 물리치는 데 … 온 나라가 함께 할 의리”라는 데서 양측의 의리론이 만난다. 같은 의리였지만, 계급 또는 입장 따라 행동이 이렇게 달랐다.

1894년 3월 말경 백산에 호남창의대장소를 설치하고 선포한 4대 명의(名義)에서도 “왜놈을 몰아내고[양인과 왜인을 내쫓아] 성군의 도를 깨끗이 하라(逐滅倭夷[洋倭] 澄清聖道)”라 하여 반외세까지 포함한 혁명적 구호를 담고 있다.⁴⁵⁾

또 5월 21일자 순창군수 이성렬(李聖烈)이 혜당[惠堂 閔泳駿]에게 보낸 서한에도

“대체로 저들은 부적과 참서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일당을 만들고, 왜병과 양인을 배척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수령들이 탐학을 한다고 허물을 잡고 있으니 이것은 일조일석(一朝一夕)의 연고가 아닙니다. 이는 왕법(王法)으로 보아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우리 병력은 믿을 수가 없으니 어찌 하겠습니까?”

라 하여 농민군은 1차 봉기에서도 줄곧 척왜양의 구호를 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⁶⁾

이렇게 농민군이 내세운 ‘척왜’에서도 그 목표는 ‘근왕’이었다. 7월 17일 전봉준이 무주집강소에 보낸 통문에도

“방금 외적이 대궐을 침범하였으며, 임금께서 옥을 당하셨다. 우리들은 마땅히 죽을 각오로 일제히 나아가라. … 1894년 7월 17일 영하(營下)에서 좌우도소(押) 도서(圖署)를 세웠음. 좌우도(左右道) 도집강(都執綱)”⁴⁷⁾

라 하였다. 이 통문에도 일본군이 대궐을 침범하여 군주가 옥을 당했다는 ‘근왕의식’ 즉 ‘유교적 의리론’이 바탕에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10월 15일 공주창의소(公州倡義所) 의병장 이유상(李裕尙)이 충청감사 박제순에게 올린 글을 보면,

“일본군을 막는 것에 대해서는, 임진년[1592년, 임진왜란] 이래 누군들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 만약 외로운 고군(孤軍)을 저항하는 대군이라고 하고 의병(義兵)을 비도(匪徒)라고 한다면, 청인(淸人)을 축출하고 일병(日兵)을 맞이하는 것은 어떠한 의리에 해당시키겠습니까? … 만약 의병과 서로 다툰다면 그 언사가 순조롭지 못할 것이며 또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⁴⁸⁾

라 하여 스스로를 ‘공주창의소 의병장’이라 칭하여 의병임을 자임하였다. 의병을 비도(匪徒)라 하는 데 항의하였고, “청인(淸人)을 축출하고 일병(日兵)을 맞이하는 것은 어떠한 의리에 해당시키겠습니까?”라 하여 특히 척왜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말 의병들은 반일의병운동의 역사적 전통을 임진의병부터 이어지는 호남지방의 역사 전통과 연결시키면서 당위성을 내세웠다. 농민군의 의거 논리도 이와 조금도 다를 게 없었다.

44) 『취어(聚語)』, 보고문의 초고 문건 [文狀草件], 동학인의 글 [東學人文]

45) 『大韓季年史』 「甲午年夏四月」;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 「一. 全羅民擾報告 宮闕內騷擾ノ件 一」 (1) 全羅監司書目大概, (1) 全羅監司書目大概 참조.

46)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 「一. 全羅民擾報告 宮闕內騷擾ノ件 一」 「(13) 5월 18일 全羅道 全州에서 歸京한 者의 直話 / 5월 21일자 별지 淳昌倅 李聖烈이 혜당에게 보낸 서한」 참조.

47) 『隨錄』 「茂朱 執綱所」(7월 17일)

48) 『宣諭榜文 竝東徒上書所志 臚書』, 「公州倡義所 義兵將 李裕尙上書」

10월 16일 전봉준도 양호(兩湖) 창의영수(倡義領袖) 이름으로 충청감사 박제순에게 글을 올렸다. 역시 비슷한 내용이었다.

“나라에 근심거리가 있는 이때에 겉으로는 꾸미고 안으로는 미혹시키는 자들을 어찌 감히 하늘의 태양 아래에서 한순간이라도 목숨이 붙어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왜구들이 트집을 잡아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의 임금을 협박하고 우리의 백성들을 혼란하게 하는 상황을 어찌 차마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임진년[1592년, 임진왜란]의 병화 때, 능침을 파괴하고 대궐과 종묘를 불태우고 임금을 옥보이고 백성들을 죽인 것은 신민들이 함께 분노하며 천고에 잊을 수 없는 한입니다. 초야에 사는 필부와 어리석은 동자들도 울분을 참지 못하는데 하물며 대대로 벼슬을 살며 나라에 공을 세운 합하게서는 평민이나 필부보다 그 감정이 배나 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정 대신들은 구차하게 목숨을 보전하려는 생각에 위로는 임금을 위협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속이며 동쪽의 오랑캐와 결탁하여 남쪽의 백성들에게 원한을 샀으며 친병(親兵)을 함부로 움직여서 선왕(先王)의 적자(赤子)를 해치고자 하니 이것이 참으로 무슨 의도이며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⁴⁹⁾

동쪽의 오랑캐와 결탁한 조정 대신들을 비판하면서 ‘척왜’의 뜻을 분명히 하였다. 여기서도 임진의병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시생이 하는 일이 지극히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편단심은 죽더라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천하에서 남의 신하가 되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을 소탕하여 선왕조에서 500년 동안 길러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니 합하게서는 잘 살피시어 함께 의를 위하여 죽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라 하고 “의를 위해 달려가는 시생이 삼가 절하고 올림”이라 마무리하였다.

“시생이 하는 일이 지극히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편단심은 죽더라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의병다운 말이다. 이처럼 농민군의 봉기를 농민군은 모두 ‘거의’라는 명분으로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우금치 전투 패배 이후에 전봉준이 경군과 영병에게 보낸 고시문에도 그런 뜻이 잘 담겨 있다.

“금년(1894년) 10월에 간악한 개화당(開化黨)이 왜국(倭國)과 결탁하여 밤을 틈타 서울로 들어와서, 임금을 핍박하고 국권(國權)을 제멋대로 농단하였다. 더구나 방백(方伯)과 수령이 모두 개화당 소속으로 백성을 보살피지 않고 즐겁게 살육(殺戮)을 자행하며 생령을 도탄에 빠뜨렸다. 이에 우리 동도(東徒)가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소멸하고 개화당을 제압하며 조정을 태평하게 하고 사직을 보전하고자 한다.

그런데 의병이 이르는 곳마다 관군과 군교(軍校)가 의리(義理)를 생각하지 않고 나와서 접전을 하여 승패(勝敗)는 나지 않고 인명만 상하니 어찌 불쌍하지 않겠는가? 사실 조선 사람끼리 서로 싸우자는 것이 아닌데, 이처럼 골육상전(骨肉相戰)을 벌이니 어찌 애달프지 않겠는가? 또 공주(公州)와 한발[대전]의 일로 논하더라도, 이것이 비록 원수를 갚은 것이라고는 하나 일이 참혹하고 후회막급이다. 방금 대군[일본군]이 서울로 들이닥쳐 사망이 흉흉한데 편벽되게 서로 싸우기만 한다면 이는 골육상전이라 할 만하다. 한편 생각건대, 조선 사람끼리는 도(道)는 다르지만 왜를 배척하고 중국을 배척하는 의리는 마찬가지로이다.

이에 두어 자 글로 의혹을 풀어 알게 하노니, 각자 자신을 돌아보아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귀의(歸義)하여 서로 의논하여 함께 왜와 중국을 배척하여 조선이 왜국이 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합하여 큰 일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갑오년 11월 12일 동도창의소(東徒倡義所)”⁵⁰⁾

“충군(忠君)우국지심(憂國之心)이 잇거든 곳 의리로 도라오면 상의 혀야 갖치 척왜척화(斥倭斥

49) 『宣諭榜文竝東徒上書所志騰書』, 「全琿準上書」

50) 『宣諭榜文竝東徒上書所志騰書』, 「告示 京軍與營兵以教示民」

華) ㅎ야 도션으로 왜국이 되지 안이케 ㅎ고 동심합녁 ㅎ야 디스를 이루게 ㅎ을시라”라고 하여 조선 사람끼리 싸우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조선이 왜국이 되지 않도록 동심합력하자”는 간절한 바람을 표현하였다. 아쉽게도 끝내 이를 막지 못했다. 하지만, 일제의 국권 침탈에 민족의 힘을 모아 항거하여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의지만은 분명했다.

3) 반농민군의 의리론 - 신하의 의리

위정척사(衛正斥邪) : 그름과 바름의 대결로 인식

『금성정의록』은 전라도 나주의 유생 이병수(李炳壽, 1855~1941)가 나주와 장흥 일대의 동학농민혁명 사실에 대해 정리한 기록이다. 여기에 기우만의 「토평비명 병서」(討平碑銘 并序)가 수록되어 있다. 그 당시의 사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당시의 일에 대해 바른 사람은 한편으로는 나주를 마치 길을 잃은 배가 북두칠성을 보듯이 믿었고, 그른 사람은 한편으로는 나주를 마치 등을 찌르고 눈을 찌르듯이 꺼려하였다. 바름[正]에 대한 믿음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그름[邪]에 대한 꺼림이 저와 같았다. 나주의 목민관은 곧 민종렬(閔種烈) 공으로 유학을 공부하였고 나주에 이르러서는 향약으로 인도하고 이끌어 백성들로 하여금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바치며, 바름을 세우고 그릇됨을 중식시킬 줄 알게 하였으니 의(義)와 충(忠)과 효(孝)를 하는 유속(遺俗)이 고을 인사들을 진작시키고 격려시키는 데서 바꾸었다.”⁵¹⁾

동학과 반동학을 그름과 바름으로 나누었고, 바름의 근거로 유학, 향약을 통해 의, 충, 효를 진작시켰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전형적인 위정척사론이다. 그리하여 나주 수성군에 대해서는 “의기(義氣)가 성에 가득 차고 ‘의성(義聲)’이 사람에게 전파되어” 나주 인사들도 의병을 일으켰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학군의 거병에 대해서는 명분 없는 거병으로 법에 의해 마땅히 죽어야 한다며 물리쳤다. 갑오 4월경으로 추정되는 「언문선유문」에서는 그런 감정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이를 보면, 그 문구가 잔인하기 짝이 없다. 선유는커녕 반발만 더할 듯하다.

51) 『금성정의록』, 토평비명 병서[討平碑銘 并序]

“너희 무리가 참서(讖書)를 주장하고 요괴(妖怪)를 선동하여 어리석은 백성들을 미혹하고 윗사람을 업신여기며 무기를 훔치고 관아의 곡식을 빼앗으며 고을을 공격하고 수령도 해치니 반역이 아니고 무엇인가? 임금께서 매우 진노하시어 크게 군사를 출동시키셨으니 우리는 위령(威令)을 믿고 용맹을 가다듬어 너희의 소굴을 소탕하고 너희 무리들을 도륙하여 씨를 남기지 않고 다 죽일 것이다. … 슬프구나! 너희들은 이제 모두 죽을 것이다. 어이할꼬! …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⁵²⁾

동학은 사학(邪學), 농민군은 도적, 반농민군은 ‘정의’ -‘정사(正邪)’와 ‘선악’ 개념으로 대처

동학농민전쟁기에 대교김씨가(大橋金氏家) 중의 한 사람으로 피난 생활에서 남긴 기록인 『피난록(避亂錄)』을 살펴보자.

“어떤 한 이단(異端)의 학설이 수년 전부터 도처에서 성행하여 이른바 동학이라고 불렀다. … 이들은 비단 패류라고 지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화적이고 나라의 역적이다. 대개 동학이라고 지칭하는데 그 학이 무슨 학이며, 또 동도(東道)라고 칭하는데 그 도가 무슨 도인가. … 학(學)은 사학(邪學)의 학(學) 자이며, 도(道)는 도적(盜賊)의 도(盜) 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 적절한 비유이다.”

동학의 “학(學)은 사학(邪學)의 학(學) 자이며, 도(道)는 도적(盜賊)의 도(盜) 자”라고 하여 우선 동학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다. 유교지식인들은 지역이나 학파의 차이를 떠나 동학에 비판적이었다. 동학을 사학(邪學), 사설(邪說), 이단, 요도(妖道)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동학교도에 대해서도 동비 또는 적도(敵徒), 비도(匪徒), 사도(邪徒), 반적(叛賊), 화적 등 도적이거나 반역을 꾀하는 불순한 무리로 파악하고 있었다.⁵³⁾ 동학과 연결된 농민군의 활동 역시 같은 맥락에서 부정하였다. 이처럼 동학과 농민군의 봉기를 ‘정사(正邪)’와 ‘선악’ 개념으로 대처하는 방식은 집권 관료들과 많은 양반들이 모두 같았다.⁵⁴⁾

그들에게 동학이 사학(邪學)이라면, 반면에 유학은 ‘사도(斯道)’ 즉 ‘善’이었다. 8월 21일에 예천 집강소에서는 안동부도총소(安東府都摠所)에 보낸 통문을 보면, “(동학의) 그 학(學)이 비록 무슨 학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법을 경멸하고, 양민들을 침학하는 등 갖은 폐단을 자행”한다고 언급하면서 동학의 學과 道를 비판적으로 언급하고 있다.⁵⁵⁾ “도(道)와 도(盜)는 본래 구별이 된다. 도(道)는 존경할 만하고 도(盜)는 죽여도 된다”라 하여 반동학군의 행위를 정당화하였다. 그러면서 “하늘이 백성들을 태어나게 하고 이충(彝衷), 양심과 충효의 모든 덕목을 내리셨으니 이것을 사도(斯道), 유학이라고 합니다”라 하여 유학이 사도(斯道) 즉 ‘선(善)’임을 절대화하고 있다.

이처럼 당시의 국면을 ‘정사(正邪)’의 대립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의거는 특별히 ‘정의’였다. 앞서 본 『금성정의록』]에도 ‘정의’란 표현을 썼으며, 광양·순천의 농민군 진압에 참여한 하동의 민병들은 자신들에게 ‘정의진(正義陣)’이란 이름을 붙였다.⁵⁶⁾

52) 『宣諭榜文竝東徒上書所志臆書』, [諺文宣諭榜文], 날짜 미상.

53) 김상기, 「유교지식인의 동학 인식과 대응」(『역사연구』 27, 역사학연구소, 2014.12), 87쪽.

54) 김현주, 「1894년 동학·반동학 세력의 ‘義學’ 선취 투쟁과 지역 사회의 대응」(『역사와 담론』 第93輯, 호서사학회, 2020.01), 115쪽.

55) 『甲午斥邪錄』, 「(八月)二十一日乙丑」

56)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권, (19) 甲午十二月二十二日河東領率軍官告目. 박찬승, 앞 논문, 381쪽.

‘척왜’도 가짜라고 비판

‘척왜’도 “본래 거짓으로 의탁한 것[斥倭之名 本是假托]”이라 하여 부정하였다. 즉 공주 유생 이단석(李丹石)의 기록을 보면,

“모두 왜적(倭賊)을 몰아내는 것으로 명분을 삼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화적(火賊)처럼 자행하고 협박해 빼앗고 전곡(錢穀)을 강제로 탈취하고 사적인 원한을 풀고 다른 사람의 분묘를 파헤쳤다. 또한 한 빛을 받는다고 하면서 남의 살림살이를 빼앗고 병장기를 약탈하고 말과 소를 탈취하였다. 그들의 행위가 모두 이와 같을 뿐이니, 말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천하 만고에 천한 도적 때였는데,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이 병란보다도 심하였다.”⁵⁷⁾

라 하였고, 이어서 “왜국을 배척한다는 명분이 본래 거짓으로 의탁한 것[假托]이기에 물어볼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하여 왜적을 몰아내는 것을 명분으로 삼은 것조차 가짜라고 부정한다.

대의 = 신하의 도리

『갑오척사록(甲午斥邪錄)』을 보면, 8월 29일에 선무사의 행차가 예천군에 당도하여 전시(宣示)한 효유문(曉諭文)이 수록되어 있다. 그 일부를 보면,

“너희들이 만약 줄곧 관읍(官邑)과 대치한다면 대의(大義)로써 논하여 보면 결코 신하의 도리는 아니다. 너희들 역시 이성(彝性)을 갖추고 있으니 틀림없이 의리가 무엇인지를 알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먼저 명령을 전하니, 가지고 있는 무기를 낱알이 반환하고 즉시 해산하여 돌아가서 조용히 생업에 종사하여 우리 성상께서 윤교(綸敎)를 내리신 극진한 뜻에 부응하라”⁵⁸⁾

라 하였다. 여기서 보이듯이 “관읍과 대치한다면 대의로써 논하여 보면 결코 신하의 도리는 아니다”라 하여 농민군의 의리는 의리가 아니라고 하였다. 반농민군의 시각에서는 ‘신하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의리이기 때문에 “관읍과 대치하는” 농민군의 행위는 의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신하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 그들의 반동학 행위는 의거였다. 『거의록(擧義錄)』이란 제목의 책까지 있다. 이 책은 흥덕현감 윤석(尹錫)의 협조 아래 흥덕의 유생 강영중(姜泳重), 박윤화(朴胤和)와 고창의 유생 강우중(姜宇重) 등 유생들이 1894년 9월 수성군을 조직하여 활동한 기록을 모은 것이다. 관계기록으로 보아 동학농민혁명이 끝나고 논공을 할 시기인 을미년 4월에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성인이 입인(立人)의 도에 관하여 말한 것이 있으니, 곧 인(仁)과 의(意)이다. 의는 군신 사이보다 그 덕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이 없다. 무릇 국가가 환난에 처하였을 때, 그 신하된 자로서, 자신의 몸을 바쳐 분발하려는 자는 오직 의를 본받으려는 마음만을 가질 뿐, 사생과 화복은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덕을 가져야 성인이 이르신 입신의 도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다.”⁵⁹⁾

‘신하의 도리’가 곧 입인의 도였다.

예천의 반동학 집강소에서는 오히려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예천의 공도 조금의 보탬은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스스로 의병이라고 불렀다. 7월 28일에는 집강기를 제작하면서 그 깃발에 ‘부의집강령(扶義執綱令)’이라고 썼는데⁶⁰⁾ 같은 맥락의 행위이다.⁶¹⁾

57) 『時間記』, 「甲午」

58) 『甲午斥邪錄』, 「(八月)二十九日癸酉」

59) 『擧義錄』 「흥덕고창창의서(興德高敞倡義序)」

60) 『甲午斥邪錄』 「醴泉郡斥邪錄序」二十八日壬寅造執綱旗紅旂青脚黃字大書扶義執綱令

61) 김현주, 앞 논문 참조.

이는 나주도 마찬가지였다. 갑오년에 “그 의를 밝히고 항거하여 지키면서 대략 섬멸한 곳으로는 호서에는 홍주가 있고 호남에는 나주가 있었다”라고 할 만큼 나주는 호남에서 동학군이 유일하게 점거하지 못한 곳이었다. 그래서 나주가 없었다면 호남이 없었고, 민공[민종렬]이 없었다면 나주가 없었다[無羅州無湖南 無閔公無羅州]고까지 말한다.⁶²⁾

농민군의 봉기는 의거가 아닌 패거

다음과 같이 평등을 말하는 동학도들이 그들 눈에는 단지 ‘적’일 뿐이었다.

“간혹 양반 중에는 주인과 노비가 함께 적을 추종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은 서로를 ‘접장’이라고 부르면서 적의 법도를 따랐다. 백정이나 재인들 또한 평민이나 양반과 더불어 평등한 예를 행하여 사람들은 더욱 이를 갈았다. ... 적은 서로 대하는 예가 매우 공손하였으며 신분의 귀천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평등한 예로 대하였다. 비록 접주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서 남보다 뒤쳐지는 사람이 있다 하여도 적들은 정성껏 섬겼다.”⁶³⁾

따라서 이런 반농민군의 시각에서 보면, 농민군의 봉기는 의거가 아닌 패거일뿐이었다.

『갑오척사록』은 경상북도 예천의 유학 반재원(潘在元, 1854~1921)이 예천군 ‘보수’집강소의 설치배경에서 해체 시기까지 전 활동상을 일기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 나타난 그의 가치관은 주자성리학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그는 주자학적인 사회질서를 부정하는 농민군의 봉기를 ‘원한(怨恨)에서 시작해서 패역(悖逆)으로 마친’⁶⁴⁾ 것이라 보고 이를 적극 배척하고 있었다. 11월 3일에는 대원군의 효유문이 내려졌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믿었던’ 대원군마저도

“너희들은 생각해 보라. 이것이 과연 의거(義舉)인가 패거(悖舉)인가? ... 조정에서 이미 삼도(三道)에 사자를 파견하여 후덕한 뜻을 널리 알렸는데도 너희들은 끝내 듣지 않았으니 이는 조정과 맞서겠다는 것이다.”⁶⁵⁾

라 하여 농민군의 봉기를 끝내 ‘패거’로 규정하면서 “너희들이 즉시 깨달아서 무기를 버리고 밭으로 돌아”갈 것으로 효유하였다.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의거(義舉)가 아닌 패거(悖舉)로 규정하는 것은 양반유생층의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특히 위정척사파에게는 당연한 것이었다. 따라서 공적(公敵)인 일본을 놓고 서로 힘을 합할 수가 없었다.

7. 절의(節義)와 청담(淸談)의 불편한 진실

절의가 공명(功名)이 되고 청담이 모리(謀利)가 되는 불편한 진실

정개청(鄭介淸, 1529~1590)은 「동한절의진송청담설(東漢節義晉宋淸談說)」을 지었는데 여기서 ‘절의’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다.⁶⁶⁾ 정개청은 후한의 절의를 공명(功名)과 비교하고 진

62) 『금성정의록』, 토평비명 병서[討平碑銘 并序]

63) 『梧下記問』 二筆 「大院君是應 曉諭三南亂民其文」 “或士族而奴主俱從賊者互稱接長以從其法屠漢才人之屬亦與平民士族抗禮人尤切齒 ...賊相見禮數甚恭無貴賤老幼一施之一稱接主雖甚孱劣其黨皆折節事之”. 번역문 2필 중 ‘가뭇과 동학교도들의 기세’, ‘최시형의 활동’ 참조.

64) 『甲午斥邪錄』 「醴泉郡斥邪錄序」 “始以怨讟而起終以悖逆而亂(처음에는 원망에서 발단하였으나, 중국에는 패역(悖逆)을 행하며 난리를 일으켰다)”.

65) 『甲午斥邪錄』, 「(十一月)初三日乙亥」

66)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강민구, 「조선 節義論의 전개 양상」(『동방한문학』 제97호, 동방한학회, 2023.12.) 참조.

송(晉宋)의 청담을 모리(謀利)와 비교하면서, 절의가 공명이 되고, 청담이 모리가 되어 결국 세상의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대개 절의를 숭상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천하를 업신여기고 온 세상을 오만하게 보아 예의의 규범을 벗어나고 성명(性命)의 올바름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하여 천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자기는 옳고 남은 그르다고 여기게 하여, 마침내 교활한 무리가 함께 일어나 국권을 호시탐탐 노리게 만든다.”⁶⁷⁾

고 하여 절의를 숭상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경시하고 예의 규범도 거부하고 성명(性命)이 올바르다고 하는 말도 무시한다. 그래서 “모두 자기는 옳고 남은 그르다고 여기게” 한다. 이것이 마침내는 편견과 아집을 갖게 함으로써 오히려 국권을 찬탈하는 무리를 만들게 된다고 하였다. 절의가 국가를 지키는 고귀한 윤리이자 가치라는 상식을 뒤집어서 정반대로 국권을 찬탈할 수 있는 위험하고 불온한 의식이라는 견해를 개진하고 있다.

또 청담에 대해서도

“청담의 부류에 이르러서는 다만 세과를 따르고 흐름을 쫓는 사람으로, 스스로 ‘부귀를 필요로 하지 않고 빈천을 망각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한편으로 비록 청고(淸高)한 듯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로 권력을 농단하고 뇌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면치 못한다. 또 일세의 양모해 본받는 자로 하여금 서로 이끌여 교만하고 허황하며 부화하고 허무맹랑한 짓을 하고 마침내 진작하고 회복할 계책을 만들지 못하여 찬탈의 세력을 이루게 만든다.”⁶⁸⁾

고 하였다. 정개청은 절의가 지니는 위험한 속성에 관한 논리 개진에 이어 청담의 부정적 속성에 관하여 피력하였다. 청담은 부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의 고결함을 지키는 사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건만, 정개청은 그와 정반대로 세과를 추종하여 권력을 농단하고 뇌물을 받는 작태를 저지른다고 하였다. 청담은 교만하고 허황된 속성을 지니는데, 그것도 결국 찬탈의 세력을 이루는 위험성이 있다고 단언하였다.

그래서 『선조실록』의 사평(史評)에

“사신은 논한다. 신이 듣건대, 정개청이 남도(南道)에 있으면서 선비들의 풍습이 오만하고 과격하여 수령의 기를 꺾어 모욕하는 것을 절의로 여기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러하기에 정개청이 「절의청담변」을 지어 그들의 오만하고 과격한 습속을 억제하였는데 그 뒤에 간신 정철이 ‘정개청이 배절의론을 지어 역적질을 조성하였다’라고 하여 드디어 큰 옥사를 엮어 만들었다.”⁶⁹⁾

라 하여 ‘절의’의 불편한 이면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정개청을 비호하고 있다.

절의와 청담에 대한 정개청의 해석은 과격적이고 도발적이었다. 그런데 분명 여기에도 진실이 있다. “절의란 기본적으로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죽어야 비로소 ‘절의’로 인정된다.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치이기 때문에 숭고한 것이지만, 이런 각오를 실천할 사람이라면 결코 평범한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분출된다면 위정척사파의 아집이나 확증편향이 되어 반농민군의 의리론을 오염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무엇을 위한 의리이어야 하나?

67) 『愚得錄』, 「東漢節義晉宋清談說」, “蓋節義底人, 其心高視天下, 而傲睨一世, 出乎禮義之規, 不屑性命之正. 使天下之人, 皆有以自是而非人, 終至於群狡竝起, 睥睨神器”

68) 『愚得錄』, 「東漢節義晉宋清談說」, “至於清談之類, 則只是隨波逐流底人, 自以爲不要富貴而能忘貧賤. 然而這一邊, 雖似淸高, 那一邊, 實未免招權納貨, 亦使一時之慕效者, 相率而爲驕虛浮誕, 卒無以爲振起恢復之策, 以成其篡奪之勢”

69) 『선조실록』 권161, 선조 36년(1603) 4월 9일 2번째 기사. “臣聞介淸在南中, 閔士習矯激, 以折辱守宰爲節義, 故介淸作節義清談辨, 以抑其矯激之習, 而其後奸臣鄭澈, 以介淸作排節義論, 助成逆賊, 遂構大獄”

그렇다면 진정한 의리란 어떤 것일까? 작은 절개를 지키는 것보다 ‘백성의 진정한 이익’, 곧 ‘공리(公利)’를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의리를 따르는 길이다.⁷⁰⁾ 정의나 의리나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라는 지향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왕이나 지배계급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 모두를 위한 것이 진정한 국가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민유방본 이데올로기의 본원이다. 따라서 의리의 지향이 어디를 향한 것이어야 하는 지는 분명하다.

1894년 동학농민군의 의리론은 “혁명을 지향하는 치인적, 또는 창업적 의리론”으로 새로운 체제로 나아갈 고비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의거를 둘러싼 동학농민군과 반농민군의 대립을 ‘의거’를 둘러싼 선취투쟁이란 관점에서 분석하기도 한다. 입장은 달랐지만, 그 의거의 토대는 ‘성리학’으로 같았다. 성리학이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갈래들이었다. 뿌리=패러다임이란 인식 틀 내에 있었다. 다른 의미를 담아도 같은 용어로, 같은 틀 내에 있었다. 따라서 ‘의거’라는 표현은 같지만, 양자의 의리가 내포하는 지향은 ‘수기와 치인’, ‘창업과 수성’의 차이 같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⁷¹⁾ 이는 마치 1960~80년대 ‘민족’이란 깃발을 둘러싼 뺏기 싸움에 나타나는 차이와 유사하다.

8. ‘민족’ 깃발 빼앗기⁷²⁾

한국적 민족주의 대 민중적 민족주의

현대사에서도 지배와 저항의 대립은 이어졌다. 그런데 지배든 저항이든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민족’ 지상주의였다. 민족은 지배든 저항이든 어디든 나타나는 화두였다. 내용상의 스펙트럼은 다양했지만, 어느 경우든 민족을 떼어 놓고는 존재할 수 없었다. ‘민족주의’가 어떤 이념보다도 초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는 데 사실상 20세기 한국 문화의 특징이 있다.

민족이란 말의 지위는 1960·70년대로 들어오면서 더욱 높아진다. 특히 4·19 혁명 이후 민족주의 계열의 민족 내지 민족문화 인식이 계승되면서 증폭되었다. 이처럼 민족주의 전통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지배’든 ‘저항’이든 대립세력이 똑같이 ‘민족’이란 깃발을 들었다. 그러나 역시 그 내포는 많이 달랐다.

지배문화=한국적 민족주의

유신체제가 들어선 1970년대 초 이후에는 국가주의 이데올로기가 극성을 부렸다. 국가주의는 ‘민족’을 불러내는 담론의 틀이 되었고, 국가는 ‘민족’의 성격과 내용을 규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가는 역사를 역시 ‘민족적’=‘국가적’이란 기준에서 선택하여 재구성하였다. 전통문화 속에서 만나는 ‘국가주의’, ‘충’의 관념을 과다할 정도로 취하였다. 문화재정책도 ①국난 극복의 역

70) 임종진, 앞 논문, 230쪽.

71) 김양식,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예우 방안」(『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와 동학농민군 서훈』, 동학농민혁명 학술총서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編, 2020.12, 158쪽)에서는 계급관과 현실인식에 따른 양자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72)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고석규, 「제3부 한국 문화의 정체성」(『문화정체성(正體性)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6.) 참조.

사적 유산, ②민족사상을 정립시킨 선현유적 등에 집중되었다. ‘동학혁명’ 관련 유적도 그중 하나였다. 이런 일련의 “선택적 역사재구성”의 과정은 10월 유신 이후 “한국적 민족주의”의 표방과 함께 가속화되었다.

이런 경향은 역사학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선근 등의 주도로 역사에 토대를 둔 한국적 민족주의를 형성하게 하였다. 1980년대 5공화국의 문화정책도 기본적인 맥락은 여전히 같았다. 물론 이에 대한 저항 영역에는 민중사학을 표방하는 한국사 연구자들이 서 있었다. 역사의 스펙트럼도 마찬가지로 넓었다.

저항문화=민중문화운동(민중적 민족주의)

저항문화의 영역은 민중문화운동이 차지하였다. 서구 상업문화에 대비되는 ‘민족성’ 짙은 문화를 강조하였고, 지배계층의 문화에 대비되는 ‘민중성’ 강한 문화를 강조하였다. 그들은 관 주도의 문예정책들로 인해 한국의 전통문화는 박제화되어 박물관에 격리, 감상의 대상으로 전락하였고, 그 결과 생생한 생명력을 잃었다고 비판하였다. 또 상업화, 서구화가 문화의 계급성을 부추겼고, 그나마 대접받고 있는 전통문화라 해 봐야 양반문화일 뿐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런 이해에서 나오는 문화운동권이 외래문화에 대항하는 민족문화를, 그리고 지배층의 문화에 대비되는 민중문화를 한국문화의 본령으로 지향하게 되었다.

이는 더 나아가 ‘민중=민족’이 되었다. 민족문화의 원형을 민중문화 속에서 찾고 전통의 현대적 재창조는 민중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민중적 민족주의’ 입장을 취하게 했다.

이렇듯 지배와 저항의 이항대립에서 ‘한국적 민족주의’와 ‘민중적 민족주의’로 나뉘어졌다. 다만 어느 경우든 민족주의를 앞세웠다는 데 공통점이 있었다. 따라서 두 진영 간에 그 ‘민족’이란 깃발을 빼앗기 위한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1960~80년대 동학농민혁명에 대하여도 그대로 나타났다.

9. 대립하는 두 개의 ‘기억’ 다투기

동학농민혁명을 둘러싼 또 다른 ‘의거’ 깃발 빼앗기

1960~80년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억에서도 ‘의거’라는 깃발을 앞세운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역시 지배문화와 민중문화의 차이, 그만큼 달랐다.

5·16 군사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그들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역설적이게도, ‘동학혁명’에 주목하였다. 농민군의 첫 승전지인 정읍 황토현에 기념탑을 건립하였다. 이는 해방 후 정부 차원에서 기념하는 첫 행위였다.

1963년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황토현 언덕에서 2만 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갑오동학혁명기념탑’ 제막식이 열렸다.

기념탑 제막식에 참석한 박정희의 치사(致辭)에 동학혁명의 정치적 활용 의도가 잘 나타나 있다.

“동학혁명을 일으키게 한 것은 당시의 부패에 있다. 내 자신이 2년 전의 5·16 당시 한강교를 넘어 설 당시의 심정과 손(봉준) 장군의 심정은 동일했을 것이다. 현재와 부패했던 5·16 당시와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동학혁명은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민권을 주장한 민주주의 교시임이 분명했다. 이러한 숭고한 정신을 계속 이어받자. 선량한 백성이기에 이러한 폭정을 참지 못하고 일어선 동학혁명의 교훈을 살려 공무원들은 국민들에 봉사를 해야 하며 국가는 물론 정치도 국민 위주의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⁷³⁾

“내 자신이 2년 전의 5·16 당시 한강교를 넘어설 당시의 심정과 손(봉준) 장군의 심정은 동일했을 것이다”라 하여 폭정을 참지 못하고 일어났던 ‘동학혁명’과 ‘5·16 혁명’을 동일시하고 있다. ‘동학혁명’을 “민권을 주장한 민주주의의 교시”라고 규정함으로써 ‘5·16 혁명’ 역시 쿠데타가 아닌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이라고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군사정권은 1972년 10월 유신을 감행하면서도 ‘동학혁명’의 이미지를 차용하였다. 이들은 이듬해인 1973년 11월 11일 농민군의 패전지인 공주 우금치에 ‘동학혁명군위령탑’을 건립하였다. 천도교 산하 동학혁명군위령탑건립위원회의 이름으로 세운 이 탑의 제자(題字)는 박정희가 했고, 전면 비문은 문학박사 이선근이 작성했다. 충남 공주시 금학동 소재 우금치 전적지 내에 있다.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 그러나 님들이 가신 지 80년, 5·16 革命 이래의 신생조국이 새삼 동학혁명군의 순국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면서 빛나는 十月維新의 한뫼를 보내게 된 만큼 우리 모두가 피어린 이 언덕에 잠든 그 님들의 넋을 달래기 위하여 이 탑을 세우노니 오가는 千萬代의 후손들이여! 그 위대한 혁명정신을 영원무궁토록 이어받아 힘차게 宣揚하라.”

라는 부분이 있다. 앞서 본 ‘동학혁명기념탑’이 5·16을 동학혁명에 견주었다면, 위령탑에서는 10월 유신에 견주고 있을 뿐, 그 정치적 목적과 의도는 똑같다. 동학농민혁명군 희생자에 대한 추모보다는 유신정권의 정당성을 위해 이용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1963년 동학혁명기념탑 건립 당시의 상황을 되풀이한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에서 민족을 찾고 이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던 행위들은 한국적 민족주의를 내세워 ‘민족’의 깃발을 차지하려던 의도와 똑같다. 이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반복되었다.

반복되는 깃발 싸움

알다시피 전두환 등은 “(1979년) 12·12사건은 군사반란이며 (1980년) 5·17사건과 5·18사건은 내란 및 내란목적의 살인행위였다”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이런 신군부 세력들도 똑같은 의도를 갖고, `81년과 `85년 두 차례에 걸쳐 ‘동학혁명유적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였다. `81년 2월 전두환은 지방순회시 정읍에서 “(전봉준은) 나와는 宗氏고 집안 선조 ...” 운운하며 ‘전봉준 장군 유적지 성역화 사업’의 연차적 추진을 지시하였다.⁷⁴⁾

제13회 기념문화제에 초청된 김대중의 축사

한편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추진된 기념문화제가 있었다. `80년 5월 계엄 하에서 정읍의 갑오 동학혁명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제13회 기념문화제에 초청된 김대중은 국민연합 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10만 여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기념식 축사를 했는데, 박정희나 신군부의 입장과

73) 『전북일보』 1963년 10월 5일.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은 이진영, 「동학농민혁명 인식의 변화와 과제」(『동학연구』 9, 10 합집, 2001.09), 80쪽 참조.

74) 이진영, 앞 논문, 86쪽.

는 너무 다른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였다.

“동학혁명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위대한 혁명이다. 동학은 민주주의 정신과 일치된다. 3·1 정신과 4·19정신은 동학의 정신 속에서 흘러온 것이다. 전봉준 장군의 동학정신은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 근대화의 원천으로 민주주의와 근대화를 지켜볼 것이다. 동학정신을 되살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봉건 앞잡이에 짓밟힌 조상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온 국민이 민주정부 수립에 매진해야 한다. 동학혁명은 처음부터 폭력이 아니고 극심한 학정으로 백성들이 원성을 입금에 상소하고 호소했으나 하다못해 마지막으로 봉기한 것으로서 동학은 당초부터 폭력이 아니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질서와 안녕을 지켜가며 평화적으로 민주대업을 달성하자.”⁷⁵⁾

그는 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것은 5·16 쿠데타나 10월 유신이 아니라 3·1 운동과 4·19 혁명이라고 정의한 뒤, 현재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농민혁명의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그 현재적 의의를 역설하였다. 그의 이런 인식은 과거 정권의 역사인식에 대한 거부였을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정치무대에 등장한 신군부의 집권 행보에도 정면으로 맞선 것이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신군부는 노골적인 탄압을 자행하였다. 하지만 1987년 이후 민주화운동이 결실을 맺어갔다. 또 1994년 100주년이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고, 마침내 2004년 2월 9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3월 5일 공포되었다. 기념재단의 설립(2010년), 기념일 제정(2019년), 그리고 기록물의 세계유산 등재(2023년) 등을 거치면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왜곡이나 축소 시도는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게 되었다. 지금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상전벽해라 할 만큼 달라졌다.

10. 맺음말

기억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의 하나가 서훈 문제이다. 이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면서 맺음말에 대하고자 한다.

서훈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민족’ 깃발을 둘러싸고 정권과 민중의 빼앗기 싸움이 진행 중일 때 독립유공자 서훈 관련 기준들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이럴 때 만들어진 서훈 규정이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그때까지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였다.

독립유공자 서훈 시도는 1957년 독립기념사업위원회규정이 제정되면서 이루어졌다. 이때의 심사기준 시점은 “을사보호조약이 있을 때로부터”였다. 이후 제3공화국 출범 이후 1963년 12월 14일 상훈법이 제정되고 1964년 독립유공자 심사기준이 개정되면서 법제적으로 확립되었다. 이때 개정된 심사기준에서는 일제의 국권 침탈의 기준 시점을 1895년(을미의병)으로 잡았다. 이 기준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5·16 이후 한국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깃발이 한창일 때였기에 당연히 의병은 주목되었겠지만, 그때까지 연구도 거의 없어 잘 알려지지 않았고, 의병과는 달리 특히 챙겨주는 사람들도 없어서 동학농민혁명은 논의 대상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해진 심사기준이 그대로 고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동학농민혁명과 비슷한 시기

75) 『전북일보』 1980년 5월 11일. 이진영, 같은 논문, 85쪽 참조.

(1895~1896년)에 활동한 의병 참여자에게는 서훈하면서 바로 그 전 해에 ‘척왜양’의 기치를 내걸며 ‘먼저’, 그리고 ‘훨씬 활발하게’, 또 ‘희생도 컸던’ 동학농민군을 국가에서 서훈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입장은 달랐지만, 둘 다 의리에 기반한 구국운동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농민군 참여자들은 여전히 서훈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⁷⁶⁾

서훈 기준이 정해지던 1964년경에 비하면 지금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해졌고, 그에 따라 해석도 크게 달라졌다. 그러다 보니 기억 투쟁이 두 가지 기억·기념의 공간에서 부딪히며, 2차 봉기의 비서훈과 을미의병의 서훈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1895년 을미의병에 기댄 서훈 논의에서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구국운동과 독립운동의 구분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대상 요건을 보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모두 기본적으로 “일제의 국권 침탈(1895년)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분들이 대상이다.

관건은 국권 침탈의 기점인데, 을사보호조약과 경술합병 출선 반대가 기점과 연관되어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반대의 주체들은 아무래도 의병이었기 때문에 의병이란 관점에서 볼 때, 을사를 넘어 을미의병으로까지 소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갑오·을미년의 사건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어난 구국운동이었고, 그 덕분에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 을사늑약과의 사이에 10년의 간격이 있었고, 그 사이에 대한제국의 탄생이 있었다. 이견이 있겠지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반면에 을사늑약 이후에는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변수가 거의 없었다. 식민지로 바로 이어졌다. 그래서 을사 이후에 일어난 일제에 대한 저항은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구국운동’과 ‘독립운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동학농민혁명은 을미의병과 함께, ‘독립운동’이라기보다는 그 앞 시기에 해당하는 ‘구국운동’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겠다.

또 굳이 국권 침탈의 기점을 1894년까지 올려야 할까? 빼앗기지도 않은 국권을 굳이 빼앗겼다고 할 이유가 있을까? 식민지로의 귀결을 당연시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2차 봉기를 구국운동이란 관점에서 을미의병과 연결시켜 서훈을 요청하기보다는 - 을미의병도 서훈 대상에서 분리시켜야 할 테지만 거기까지는 그냥 두고 - 동학농민혁명은 5·18 민주화운동이나 제주4·3사건 관련 법률과 같이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서훈에 준하는 예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76) 서훈 관련해서는 박용규, 『전봉준 최시형 독립유공 서훈의 정당성』(인간과 자연사, 2021.01); 유바다, 「독립유공자 대상요건의 성립 과정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대상 여부에 대한 고찰」(『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2024.08.13.); 김양식,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예우 방안」(『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와 동학농민군 서훈』,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編, 2020.12) 등 발제와 토론문 참조.

동학 접주 임명장 현황과 특징

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 최초 접주 임명: 1862년 12월

- 최선생문집도원기서

- 1862년 12월 30일

- 日去月諸 奄迫歲暮 此處爲過歲之計 當其晦日 先生 親定各處接主

- 수운행록

- 1862년 11월조

- 부서접중(府西接中)

- 접내(接內)

□ 접(接)

- 표준국어대사전

- 글방 학생이나 과거에 응시하는 유생의 동아리.

- 보부상의 동아리.

- 동학의 교구 또는 집회소.

□ 접주

- **접장(接長)**

- **접주(接主)**

- 동경대전 논학문: 主者 稱其尊而 與父母同事者也

- **접의 규모**

- 30 ~ 50호

□ 포(包)

- **시천교종역사 : 1884년 10월 28일**

- 대신사 수운 탄신기념제례를 봉행할 때 각포(各包) 두령 82명이 참석했다.

- **시천교종역사 : 1890년 8월**

- 金演局包

- **시천교종역사 : 1890년 11월**

- 금릉군 구성면 복호동 김창준의 집에서 신사 해월이 내칙(內則)과 내수도문(內修道文)을 찬하여 각포(各包)에 반시(頒示)했다.

- **천도교서 초고 : 1891년**

- 是時에 金洛三이 호남 좌우도 16포(包) 도인 백여명을 솔하고

- **신사 해월의 통유문 : 1892년**

- 이쪽 포(包) 연원(淵源)을 저쪽 포(包) 연원(淵源)으로 옮기고, 저쪽 포(包) 연원(淵源)을 이쪽 포(包) 연원(淵源)으로 옮긴다.

- **천도교서 1893년 : 3월**

- 3월 11일 신사 해월은 장내리로 올라왔다. 이로부터 幾旬을 度하여 대접주(大接主)와 포명(包名)을 명했다.

□ 포접제(包接制)

구분	접(接)	포(包)	교단(教團)
책임자	접주(接主)	대접주(大接主)	교주(教主)
규모	30~50가구	10개 접(接) 이상	전체
조직	접사(接司)	육임직(六任職) 동몽육임직(童蒙六任職)	육임직(六任職) 동몽육임직(童蒙六任職)

□ 현존하는 동학(접주) 임명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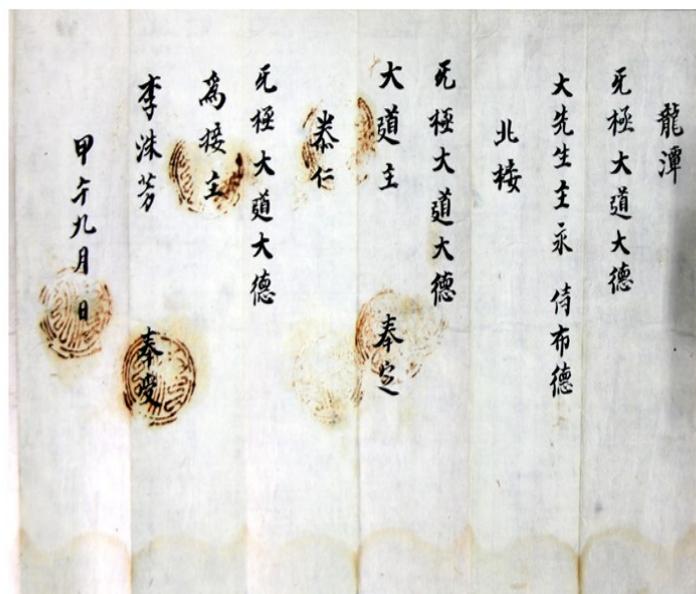
- 대상 시기 : 1860(1889) ~ 1904
- 접주, 접사, 도접사, 차접주, 수접주, 대접주
- 육임직 : 교장, 교수, 도집, 집강, 대정, 중정
- 동몽육임(교법)직 : 봉교, 봉령, 봉규, 봉헌, 봉도, 봉좌, 봉례

□ 현존 가장 오래된 임명장

- 직책 : 商州 元義
- 임명주체 : 北接法憲
- 임명일자 : 己丑(1889) 8월
- 임명대상자 : 金顯榮
- 내용 : 無極大道大德永 侍教法 商州元義金顯榮

□ 접주 접사임명장

이수방 접주임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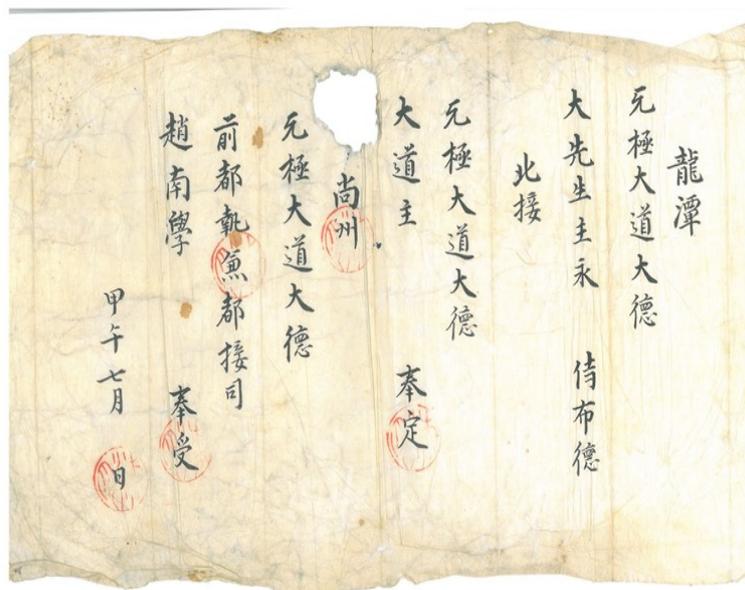
□ 접주 접사임명장

정성영 접사임명장



□ 접주 접사임명장

조남규 도접사임명장



동학 접주 임명장 현황과 특징

□ 접주 접사임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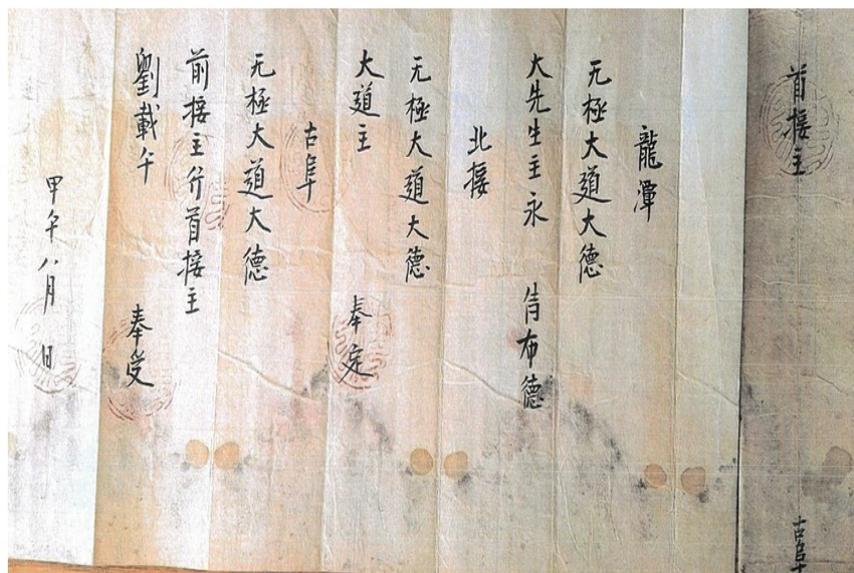
문장으로 차접주임명장



동학 접주 임명장 현황과 특징

□ 접주 접사임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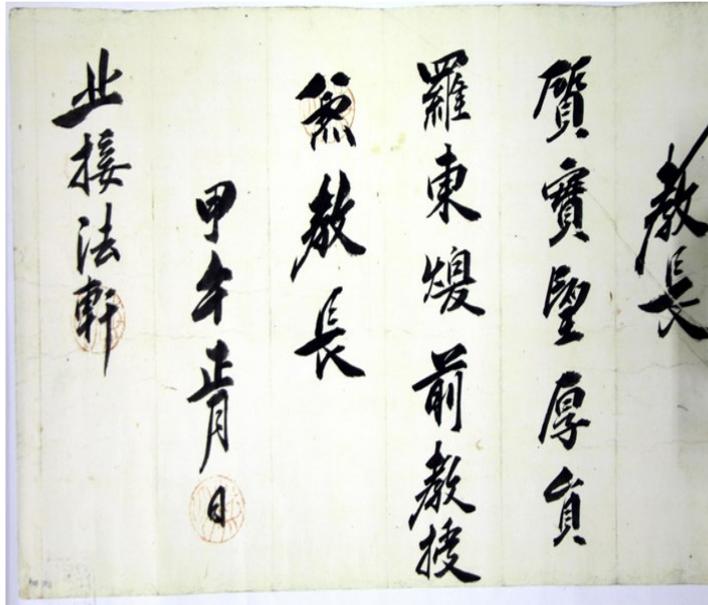
유재오 수접주임명장



동학 접주 임명장 현황과 특징

□ 육임직 임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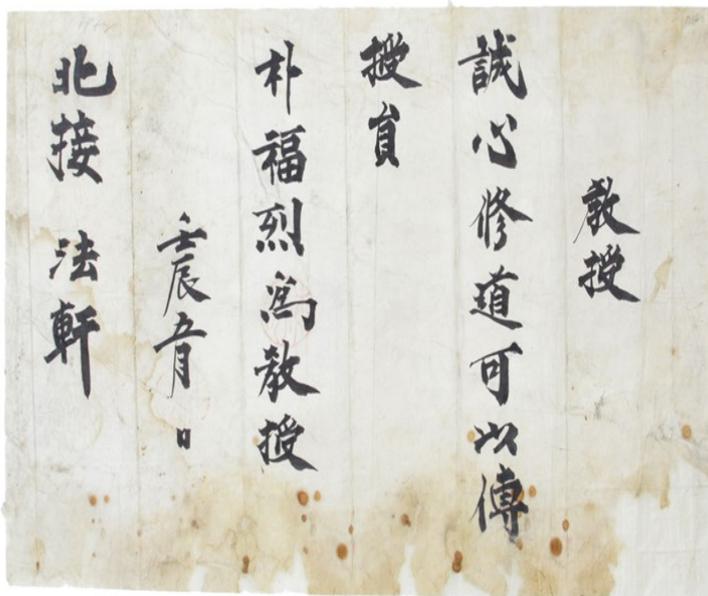
나동환 교장임명장



동학 접주 임명장 현황과 특징

□ 육임직 임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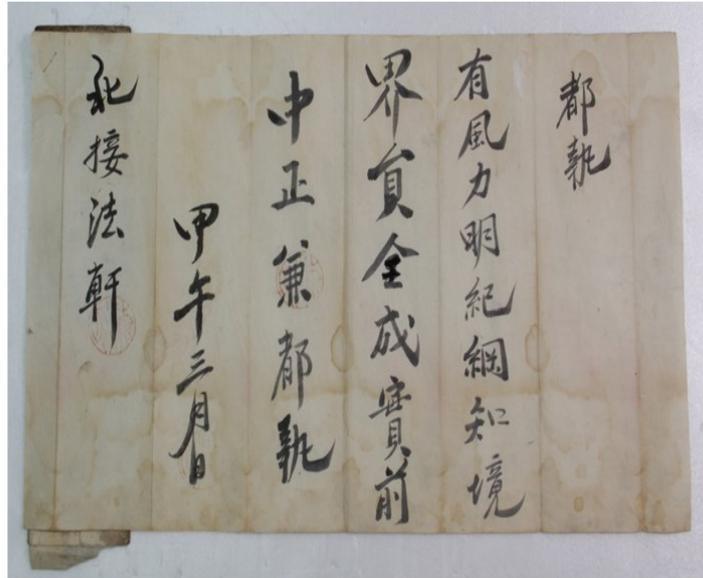
박복렬 교수임명장



동학 접주 임명장 현황과 특징

□ 육임직 임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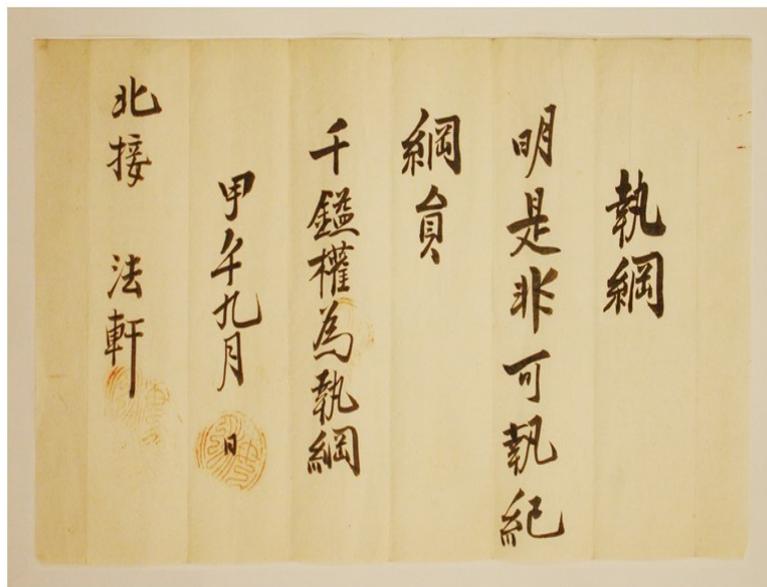
전성실 도집임명장



동학 접주 임명장 현황과 특징

□ 육임직 임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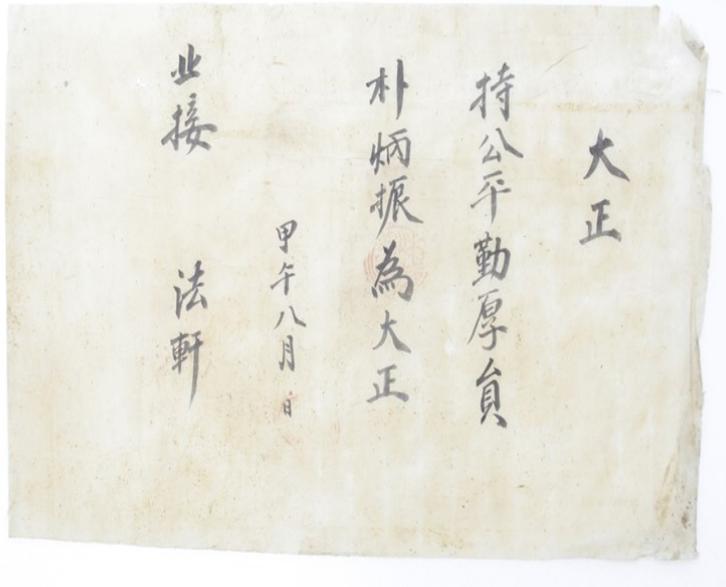
천일권 집강임명장



동학 접주 임명장 현황과 특징

□ 육임직 임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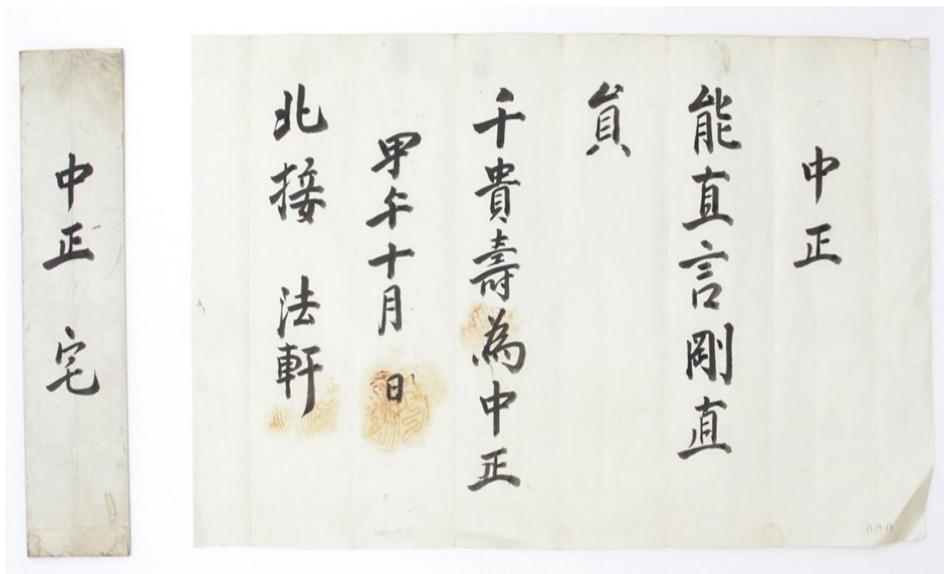
박병진 대정임명장



동학 접주 임명장 현황과 특징

□ 육임직 임명장

천귀수 중정임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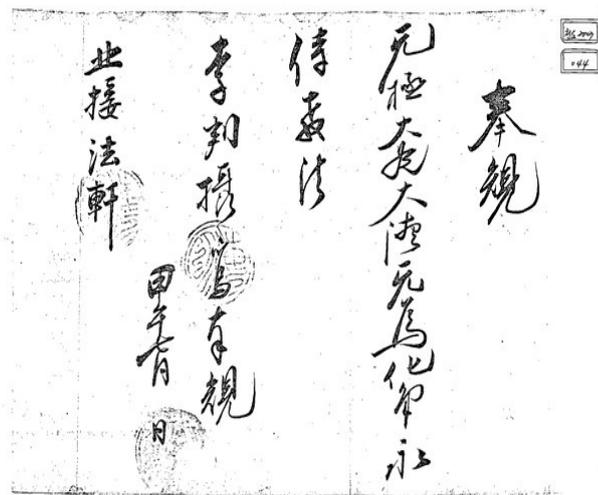
□ 교법(동몽육임)직 임명장

양언남 봉헌임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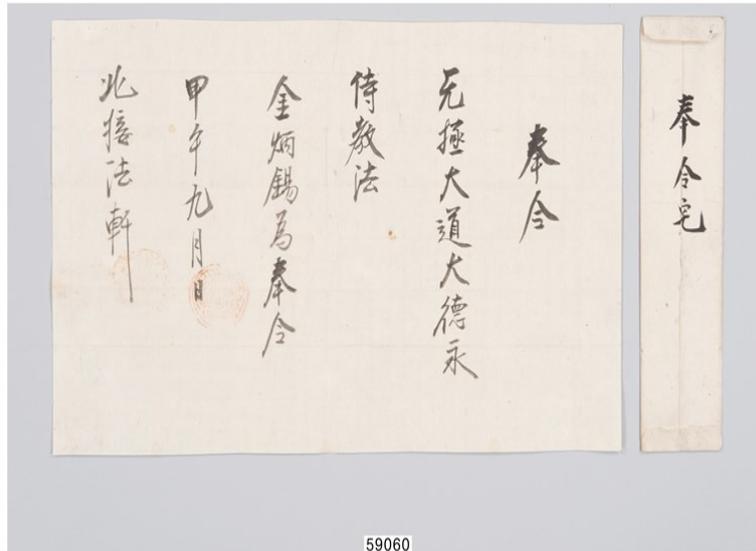
□ 교법(동몽육임)직 임명장

이판렵 봉규임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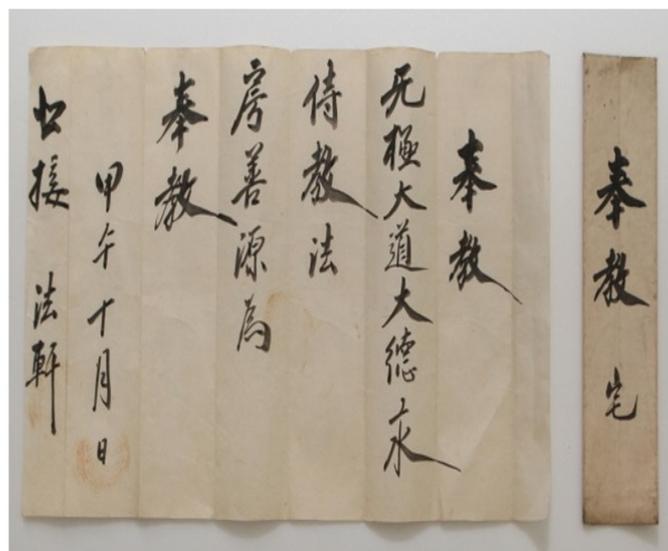
□ 교법(동몽육임)직 임명장

김병석 봉령임명장



□ 교법(동몽육임)직 임명장

방성원 봉교임명장



동학 접주 임명장 현황과 특징

□ 접주, 접사 발급현황

직책	임명 주체	임명일자	임명 대상자	지역	내용
접주	大道主	임진(1892) 1월	金顯榮	商州	龍潭 無極大道大德 大先生主永 侍布德 北接 無極大道大德 大道主 奉定 商州 無極大道大德 前接司兼接主 金顯榮 奉受
접사	大道主	甲午(1894) 1월	金在龍	扶安	龍潭 無極大道大德 大先生主永 侍布德 北接 無極大道大德 大道主 奉定 扶安 無極大道大德 前教長兼接司 金在龍 奉受
都接司	大道主	甲午(1894) 7월	趙南學	商州	龍潭 無極大道大德 大先生主永 侍布德 北接 無極大道大德 大道主 奉定 商州 無極大道大德 前都執兼都接司 趙南學 奉受
접주	大道主	甲午(1894) 7월	朴奎漢	懷德	龍潭 無極大道大德 大先生主永 侍布德 北接 無極大道大德 大道主 奉定 懷德 無極大道大德 爲接主 朴奎漢 奉受
접주	大道主	甲午(1894) 8월	金炳遠	任實	龍潭 無極大道大德 大先生主永 侍布德 北接 無極大道大德 大道主 奉定 懷德 無極大道大德 爲接主 金炳遠 奉受
접사	大道主	甲午(1894) 8월	鄭聖英	公州	龍潭 無極大道大德 大先生主永 侍布德 北接 無極大道大德 大道主 奉定 公州 無極大道大德 爲接司 鄭聖英 奉受
접주	大道主	甲午(1894) 8월	吳秉善	淳昌	龍潭 無極大道大德 大先生主永 侍布德 北接 無極大道大德 大道主 奉定 公州 無極大道大德 爲接主 吳秉善 奉受
行接主	大道主	甲午(1894) 8월	徐相皞	文義	龍潭 無極大道大德 大先生主永 侍布德 北接 無極大道大德 大道主 奉定 公州 無極大道大德 前執綱兼都執接司行接主 徐相皞 奉受
行首接主	大道主	甲午(1894) 8월	劉載午	古阜	龍潭 無極大道大德 大先生主永 侍布德 北接 無極大道大德 大道主 奉定 古阜 無極大道大德 前接主行首接主 劉載午 奉受
접주	大道主	甲午(1894) 8월	朴致相	務安	龍潭 無極大道大德 大先生主永 侍布德 北接 無極大道大德 大道主 奉定 公州 無極大道大德 爲接主 朴致相 奉受
접주	大道主	甲午(1894) 9월	李洙芳	秦仁	龍潭 無極大道大德 大先生主永 侍布德 北接 無極大道大德 大道主 奉定 公州 無極大道大德 爲接主 李洙芳 奉受

동학 접주 임명장 현황과 특징

□ 접주, 접사 발급현황

大接主	大道主	甲午(1894) 9월	宋大和	古阜	龍潭 無極大道大德 大先生主永 侍布德 北接 無極大道大德 大道主 奉定 公州 無極大道大德 前接主兼大接主 宋大和 奉受
接사	大道主	甲午(1894) 9월	金容熙	?	龍潭 無極大道大德 大先生主永 侍布德 北接 無極大道大德 大道主 奉定 ?? 無極大道大德 爲接司 金容熙 奉受
行首接主	大道主	甲午(1894) 9월	趙英九	舒川	龍潭 無極大道大德 大先生主永 侍布德 北接 無極大道大德 大道主 奉定 舒川 無極大道大德 前接主行首接主 趙英九 奉受
接사	大道主	甲午(1894) 10월	鄭高采 改名 璋根	全州	龍潭 無極大道大德 大先生主永 侍布德 北接 無極大道大德 大道主 奉定 全州 無極大道大德 前都執兼接司 金在龍 奉受
次接主	大道主	정유(1897) 3월	文章魯	大山	龍潭 無極大道大德 大先生主永 侍布德 北接 無極大道大德 大道主 奉定 大山 無極大道大德 文章魯 爲次接主 奉受
首接主	大道主	경자(1900) 7월	文章魯	泰安	龍潭 無極大道大德 水雲大先生主永 侍布德 劔岳 無極大道大德 海月先生主永 定布德 北接 無極大道大德 大道主永 知奉命 泰安 無極大道大德 賜首接主 文章魯 奉受
該接主	法大道主	癸卯(1903) 3월	崔圓南	秦仁	龍潭 無極大道大德 水雲大先生主永 侍布德 劔岳 無極大道大德 海月先生主永 定布德 北接 無極大道大德 法大道主永 知奉命 秦仁 無極大道大德 賜該接主 崔圓南 奉受
大接主	法大道主	갑진(1904) 1월	姜永照	全羅道	龍潭 無極大道大德 水雲大先生主永 侍布德 劔岳 無極大道大德 海月先生主永 定布德 北接 無極大道大德 法大道主永 知奉命 全羅道 無極大道大德 賜大接主 姜永照 奉受
接主	法大道主	갑진(1904) 1월	盧禎喜	玉果	龍潭 無極大道大德 水雲大先生主永 侍布德 劔岳 無極大道大德 海月先生主永 定布德 北接 無極大道大德 法大道主永 知奉命 玉果 無極大道大德 賜接主 盧禎喜 奉受
大接主	法大道主	갑진(1904) 1월	鄭璋根	全羅道	龍潭 無極大道大德 水雲大先生主永 侍布德 劔岳 無極大道大德 海月先生主永 定布德 北接 無極大道大德 法大道主永 知奉命 全羅道 無極大道大德 賜大接主 鄭璋根 奉受

동학 접주 임명장 현황과 특징

□ 육임직 발급현황

직책	임명주체	임명일자	임명 대상자	내용
教長	北接法憲	辛卯(1891) 11월	宋斗浩	質實望厚員宋斗浩爲教長
教授	北接法憲	壬辰(1892) 5월	朴福烈	誠心修道可以傳授員朴福烈爲教授
教長	北接法憲	甲午(1894) 1월	羅東煥	質實望厚員羅東煥前教授兼教長
執綱	北接法憲	甲午(1894) 1월	李信教	明是非可執紀綱員李信教爲執綱
都執	北接法憲	甲午(1894) 3월	全成實	有風力明紀綱知境界員全成實前中正兼都執
中正	北接法憲	甲午(1894) 3월	李順教	能直言剛直員 李順教爲中正
大正	北接法憲	甲午(1894) 4월	嚴次生	持公平勤厚員 嚴次生爲大正
都執綱	北接法憲	甲午(1894) 7월	趙英九	明是非可執紀綱員趙英九前接主兼都執綱
中正	北接法憲	甲午(1894) 7월	金鐵九	能直言剛直員金鐵九爲中正
執綱	北接法憲	甲午(1894) 7월	金浚燮	明是非可執紀綱員金浚燮爲執綱
執綱	北接法憲	甲午(1894) 7월	安鎮金	明是非可執紀綱員安鎮金爲執綱
教授	北接法憲	甲午(1894) 7월	李承龍	誠心修道可以傳授員李承龍爲教授
中正	北接法憲	甲午(1894) 8월	朴順道	能直言剛直員朴順道爲中正

동학 접주 임명장 현황과 특징

□ 육임직 발급현황

大正	北接法憲	甲午(1894) 8월	朴炳振	持公平勤厚員 朴炳振爲大正
教授	北接法憲	甲午(1894) 8월	金昌模	誠心修道可以傳授員金昌模爲教授
執綱	北接法憲	甲午(1894) 8월	具東植	明是非可執紀綱員具東植爲執綱
大正	北接法憲	甲午(1894) 8월	洪在寅	持公平勤厚員 洪在寅爲大正
教長	北接法憲	甲午(1894) 8월	鄭淳敬	質實望厚員前奉座鄭淳敬兼教長
教授	北接法憲	甲午(1894) 8월	宋秉宇	誠心修道可以傳授員宋秉宇爲教授
大正	北接法憲	甲午(1894) 8월	申寬	持公平勤厚員 申寬爲大正
大正	北接法憲	甲午(1894) 8월	韓世教	持公平勤厚員 韓世教爲大正
教授	北接法憲	甲午(1894) 8월	李在斗	誠心修道可以傳授員李在斗爲教授
執綱	北接法憲	甲午(1894) 9월	天鎰權	明是非可執紀綱員天鎰權爲執綱
教授	北接法憲	甲午(1894) 9월	金丘根	誠心修道可以傳授員金丘根爲教授
中正	北接法憲	甲午(1894) 9월	金溶守	能直言剛直員金溶守爲中正
中正	北接法憲	甲午(1894) 10월	千貴壽	能直言剛直員千貴壽爲中正
大正	北接法憲	甲午(1894) 10월	房鎮湖	持公平勤厚員 房鎮湖爲大正
別定禁寮	北接法憲	甲午(1894) 10월	裴洪玉	禁私明公裴洪玉爲別定禁寮

동학 접주 임명장 현황과 특징

□ 육임직 발급현황

別定教授	北接法憲	甲午(1894) 10월	裴文玉	誠心修道可以傳授員裴文玉前執綱兼別定教授
都執	北接法憲	丙申(1896) 11월	梁洙集	有風力明紀綱知境界員梁洙集爲都執
都執	北接法憲	丙申(1896) 11월	姜永照	有風力明紀綱知境界員姜永照爲都執
教授	北接法憲	丙申(1896) 12월	趙鳳九	誠心修道可以傳授員趙鳳九爲教授
別執綱	龍潭淵源	丁酉(1897) 3월	梁洙集	明是非可執紀綱人梁洙集別定執綱
別教授	龍潭淵源	丁酉(1897) 3월	姜永照	誠心修道可以傳授人 姜永照別定教授
大正	龍潭淵源	丁酉(1897) 3월	金奉龍	持公平勤厚人 金奉龍爲大正
別教長	龍潭淵源	丁酉(1897) 3월	金殷相	質實望厚人 金殷相別定教長
別教長	龍潭淵源	丁酉(1897) 3월	崔鍾器	質實望厚人 崔鍾器別定教長
別執綱	龍潭淵源	丁酉(1897) 3월	李順教	明是非可執紀綱人李順教別定執綱
執綱	龍潭淵源	丁酉(1897) 3월	文興采	明是非可執紀綱人文興采爲執綱
教長	北接 法大道主	壬寅(1902) 8월	金在弘	質實望厚人 金在弘爲教長
都執	北接 法大道主	癸卯(1903) 4월	李重煥	有風力明紀綱知境界人李重煥爲都執
中正	北接 法大道主	갑진(1904) 6월	申今碩	能直言剛直員申今碩爲中正

동학 접주 임명장 현황과 특징

□ 교법(동몽육임)직 발급현황

직책	임명주체	임명일자	임명 대상자	내용
商州元義	北接法憲	기축(1889) 8월	金顯榮	無極大道大德永 侍教法 商州元義金顯榮
奉教	北接法憲	辛卯(1891) 5월	韓台鉉	無極大道大德永 侍教法 韓台鉉爲奉教
奉教	北接法憲	壬辰(1892) 6월	金道培	無極大道大德永 侍教法 金道培爲奉教
奉令	北接法憲	甲午(1894) 7월	李富興	無極大道大德無爲化氣永 侍教法 李富興爲奉令
奉規	北接法憲	甲午(1894) 7월	李判攝	無極大道大德無爲化氣永 侍教法 李判攝爲奉規
奉軒	北接法憲	甲午(1894) 8월	黃綬八	無極大道大德無爲化氣永 侍教法 黃綬八爲奉軒
奉軒	北接法憲	甲午(1894) 8월	梁彦男	無極大道大德無爲化氣永 侍教法 梁彦男爲奉軒
奉令	北接法憲	甲午(1894) 8월	金太星	無極大道大德無爲化氣永 侍教法 金太星爲奉令
奉令	北接法憲	甲午(1894) 9월	金炳錫	無極大道大德永 侍教法 金炳錫爲奉令
奉教	北接法憲	甲午(1894) 10월	房善源	無極大道大德永 侍教法 房善源爲奉教

□ 발급 주체(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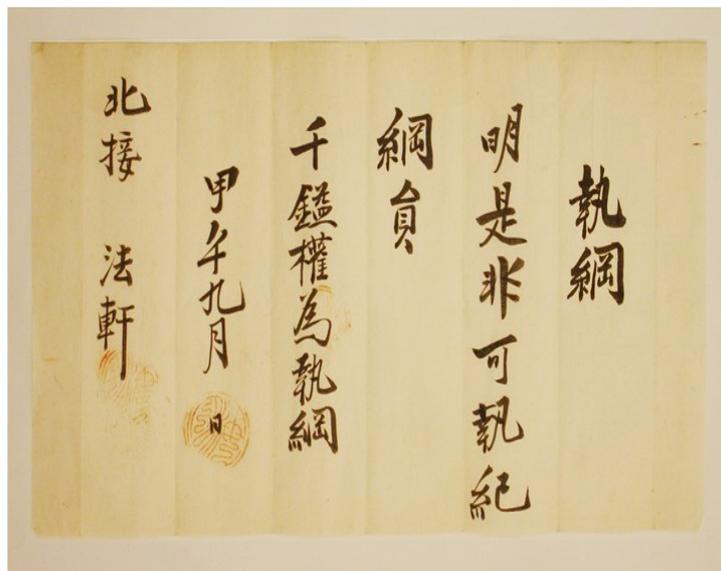
한태헌 봉교임명장



81140

□ 발급 주체(인장)

천일권 집강임명장



□ 발급 주체(인장)

문장으로 차접주임명장



□ 발급 주체(인장)

최시형 인장



발급 방법

- 빈 문서에 해월 인장을 찍어 각 지역에 분배
- 각각 접주 또는 대접주가 내용 작성

발급 시기

- 1894년 7월 이전
- 1894년 8월 이후
- 1896년
- 1900년

농민군과 동학교단의 관계

감사합니다

그림으로 보는 동학농민혁명

박홍규 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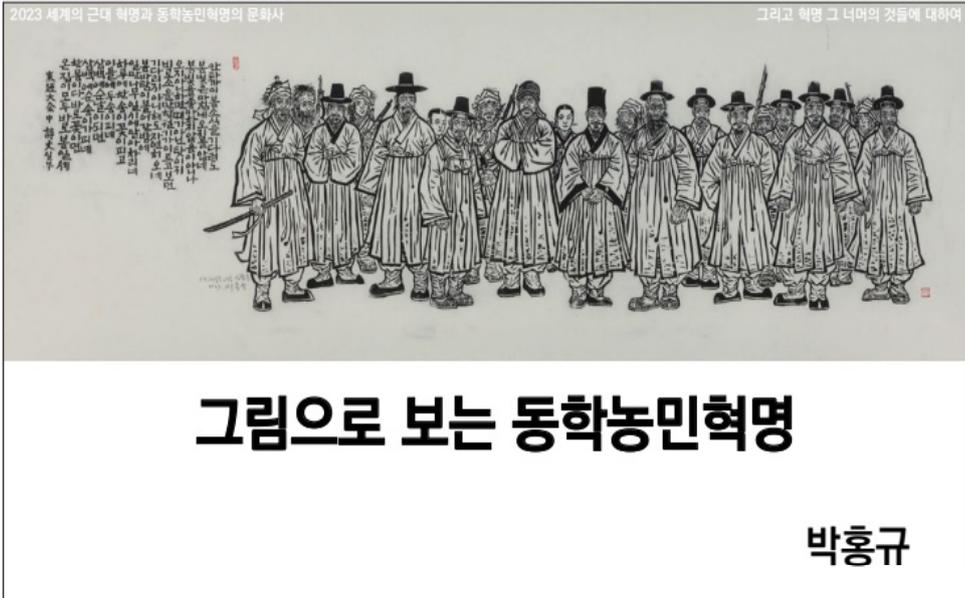




그림03. 일어서는 두승산



그림04.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

(상단) 그림05. 백골징포도

(하단) 그림06. 탐관오리도

2023 세계의 근대 혁명과 동학농민혁명의 문화사

그리고 혁명 그 너머의 것들에 대하여



그림07. 낮네 낮어 난리가 났어

2023 세계의 근대 혁명과 동학농민혁명의 문화사

그리고 혁명 그 너머의 것들에 대하여

1차 농민전쟁 (3월봉기)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무장기포/ 백산대회/ 황토현전투/ 황룡전투/ 전주성
점령/ 전주화약/ 집강소 설치

우리가 의를 들어 여기에

이름은 그 본의가 다른 데 있는게 아니라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함이다.



그림08. 전봉준, 새벽길 가다.



그림09. 동학우영농민군

그림10. 적벽산

2023 세계의 근대 혁명과 동학농민혁명의 문화사

그리고 혁명 그 너머의 것들에 대하여



그림11. 바람 부는 보리밭

2023 세계의 근대 혁명과 동학농민혁명의 문화사

그리고 혁명 그 너머의 것들에 대하여



그림12. 진봉준, 집강소 순찰도



그림13. 후천개벽도



그림14. 새 세상으로 가는길

2차 농민전쟁(9월봉기)

나락 익기만 기다렸다!

삼례봉기/ 청산기포/ 남북접 연합군/ 우금치전투/ 전
봉준 피체/ 석대들전투/ 북실전투/ 대둔산전투

왜병이 장차 이를 것이다.

일이 심히 급박하다.

왜놈과 맞서 싸울 세력은 조선 천지에 오직 농민군 말
고는 없다!



그림15. 바람 앞에 서다



그림16. 아리랑고개 2



그림17. 삼례 가는길



그림18.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그림19. 한 밤에 나리는 윤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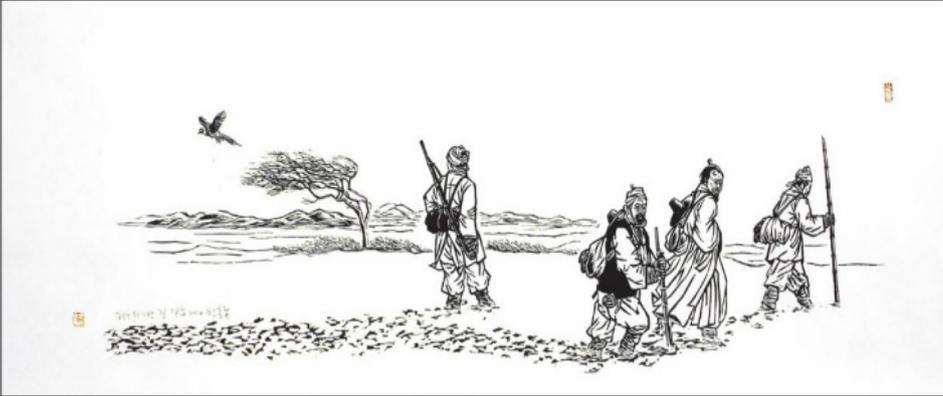


그림20. 피노리 가는 길



그림21. 달빛 너머





그림24. 땅끝



그림25. 대둔산의 아침



그림26. 대둔산항쟁 김석순 점주



그림27. 혼비백산

2023 세계의 근대 혁명과 동학농민혁명의 문화사

그리고 혁명 그 너머의 것들에 대하여

끝나지 않은 혁명

한번 크게 패배하여라.

그리하여 영원히 승리하리라!



그림28. 농민군 마지막 밥을 받다.



그림29. 동백꽃 대남

2023 세계의 근대 혁명과 동학농민혁명의 문화사

그리고 혁명 그 너머의 것들에 대하여



그림30. 아리랑고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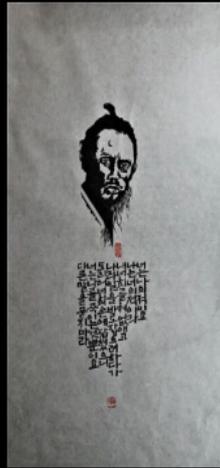


그림31. 너는 나의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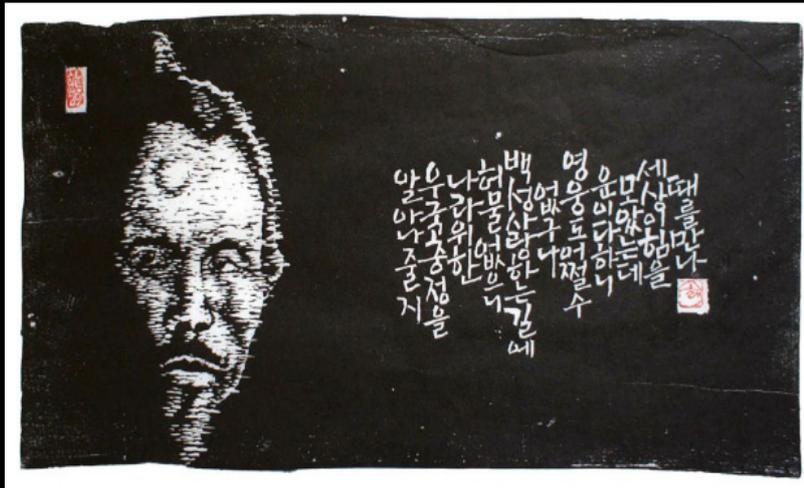


그림32. 전봉준 절명시





그림36. 금강



그림36. 전사의 길



그림38. 눈보라



그림39. 별빛 따라



그림40. 새 세상을 여는 사람들



그림40. 새 세상을 여는 사람들

19세기 말 경상도 상주 사족 사회의 동향

-동학농민혁명과 을미의병을 중심으로-

송진현(경북대학교 사학과 박사수료)

1. 머리말
2. 상주 사족 사회와 계당학과
3. 사회 혼란기 사족의 동향
4. 맺음말

1. 머리말

18세기 이래 조정의 수령권 강화 기조는 지속되어, 19세기 향촌 사회의 모습도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 향촌 사회 운영 집단이었던 사족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강화된 수령권을 바탕으로 관 조직과 관련 직임의 영향력이 증대된 것이다. 특히 영남 사족은 이인좌의 난으로 인해 관직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향촌 내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키우고자 했으나, 조정의 수령권 강화와 맞물려 축소되었다. 즉, 조정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향촌 사회에 전반적이고 강하게 미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향촌 사회 내에서 조정과 관련된 인물의 위상이 증대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19세기 경상도 상주 사족 사회에 대한 연구¹⁾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6세기 이래 특정 가문 간 사승 관계 및 혼인을 통해 학맥을 이어왔으며, 이를 매개로 문중간 결속이 19세기에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는 특징이 파악되었다. 특히 서애 류성룡과 우복 정경세의 학맥을 이은 남인이 주류가 되었으며, 18세기부터 흥암서원을 중심으로 노론도 세력을 확장했다. 그 매개체는 주로 서원이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인적, 학문적 결속을 강화했다. 또한, 문중 사우·서원을 건립해 문중 내 결속도 공고히 했다.²⁾ 이를 기반으로 상주 사족 사회는 19세기 후반 농민항쟁, 영남만인소, 동학농민혁명, 을미의병 등 정치적, 사회적 혼란에 대응했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 19세기 말 사족 사회의 동향에 대한 분석은 미미했다. 이와 관련해 송진현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맹제 정의목의 활동을 통해 19세기 말 혼란에 대처하는 상주 사족

1) 이와 관련해, 김종석, 「한말 영남 유학계의 동향과 지역별 특징」 『국학연구』4, 2004; 금장태, 「19세기 한국성리학의 지역적 전개와 시대인식」 『국학연구』15, 2009; 설석규, 「조선시대 영남유생의 공론형성과 柳道洙의 만인소」 『퇴계학과 한국문화』44, 2009; 송석현,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도남서원의 운영과 상주 사족의 동향」 『조선시대사학보』79, 2016; 「조선시대 상주지역 서원의 동향」 『민족문화논총』81, 2022; 권오영, 「19세기 영남유림의 사상적 동향」 『민족문화논총』70, 2018; 김순환, 「18-19세기 상주지역 남인 세력의 갈등」 『민족문화논총』81, 2022; 「道南疏廳雜錄」을 통해 본 조선후기 상주 사족 사회의 변화상」 『지역과 역사』54, 2024; 김지은, 「영남학파 문인록을 통해 본 조선후기 문인집단의 확대와 변화」 『한국사상사학』75, 2023 등의 논문이 참고된다.

2) 19세기 상주 사족 사회에서 중심을 형성한 집단은 진주정씨(晉州鄭氏), 진주강씨(晉州姜氏), 풍산류씨(豊山柳氏), 연안이씨(延安李氏), 여산송씨(礪山宋氏) 등이다.; 송진현, 「19세기 말 경상도 상주 사회의 혼란과 맹제 정의목의 활동」 『동학학보』73, 2025, pp.484-485.

사회를 검토했다. 정의목은 유력가문의 지위 및 중앙정부에서 동부승지에 오른 경험이 있었다. 그의 향촌 사회에서의 위상은 사회가 혼란에 처했을 때 사족 사회 및 향촌 사회 전반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는 19세기 말 사족 사회가 개인의 위상과 영향력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³⁾

그 연장선에서 본 발표문은, 19세기 말 경상도 상주 사족 사회의 변동을 계당 류주목의 문인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19세기 후반 상주 사족 사회는 우복 정경세와 서애 류성룡의 후손인 계당 류주목의 학문적 영향을 받았다. 상주 및 인근 향촌의 사족은 류주목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문인이 되었다. 한편, 상주는 서인 세력이 동춘당 송준길을 배향한 서원인 홍암서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상주의 사족은 도남서원을 중심으로 남인과 노론을 막론하고 향촌의 문제를 논하기도 했다. 이러한 특색을 가진 상주의 사족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계기로 소모영에 모여 향촌 방어에 힘썼다. 더불어 상주의 사족은 1896년 의병을 조직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본 논문은 그 연속성을 추적하기 위해 향촌에서 활동한 이들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는 사족 사회가 점차 변화하고 한 사람의 영향력에 따라 사회적 위상 재편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단서라 판단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본 논문의 2장에서는 19세기 후반 상주 사족 사회의 변동을 확인하고 상주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했던 계당 류주목과 관련된 인물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류주목의 문집인 『溪堂集』의 급문록을 통해 파악한다. 3장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소모영에 모인 인사들의 출신과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소모사 정의목이 작성한 『소모사실』의 소모영막하과임기 및 관련한 대표 연구인 신영우의 논문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계당 류주목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그 다음 이를 바탕으로 당시 사족 사회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의 활동을 추적한다. 상주 사족 사회의 활동을 확인하는 것은 상주박물관 소장 홍암서원 기탁자료 및 상주 출신 의병장인 이기찬의 『止山遺稿』⁴⁾를 통해 확인한다.

2. 상주 사족 사회와 계당학파

1) 상주의 남인과 노론

경상도 상주는 16세기 이래 류성룡의 학맥을 이은 정경세 이후 사승관계 및 혼인관계를 통해 퇴계학맥의 연원이 이어졌다. 도남서원은 류성룡의 문인들을 중심으로 1606년 정몽주·김필·정여창·이언적·이황을 제향하기 위해 창건되었다. 이후 사액을 청하는 데에도 류성룡·정경세의 문인을 비롯해 상주의 전 사족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17세기 중후반에는 노론계 가문 인사들도 운영에 참여하고 있어, 도남서원은 홍암서원 창건 이전까지 상주의 사론을 대변하는 기능을 했다. 도남서원은 노수신을 중향하고 류성룡·정경세를 추배해 퇴계 학통을 공식화하고 도내 남인의 대거 참여를 끌어내었다. 관련 성씨로는, 상산김씨·진주정씨·홍양이씨·여산송씨·광주노씨·장수황씨·부림홍씨·안동권씨·풍양조씨·풍산류씨 등이 있다.⁵⁾

더불어 서인, 노론세력의 영남 진출 및 호서지방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노론과의 교류도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成灋 가문의 이주로 인한 창녕성씨의 정착과, 송시열의 친척인 송준길이 정경세의 사위가 되는 등 서인, 노론세력이 안정적으로 상주에 정착하게 되었다.

3) 송진현, 「19세기 말 경상도 상주 사회의 혼란과 맹제 정의목의 활동」 『동학학보』73, 2025, pp.517-519.

4)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국역 지산유고』, 2021(이하『국역 지산유고』).

5) 박소희, 「17~18세기 상주지역 남인·노론계 서원의 인적구성 분석」 『민족문화논총』81, 2022, pp.92~93.

흥암서원은 창건 논의에서 창녕성씨 成晩徵의 역할이 컸으며 그와 노론계 성씨의 주도로 상주 내 노론계 서원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했다. 관련 성씨로는 인천채씨, 창녕성씨, 청도김씨, 평산신씨, 창녕조씨 등이다.⁶⁾

그러나, 서인 세력의 영남 진출 본격화에 따라 서인계 인사와 남인계 인사가 번갈아 가며 도남서원 원장직을 맡는 모습을 보인다. 서인 세력은 서산서원, 충의단 건립, 향교 장악 시도 등을 통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자 했다, 또한 영조의 즉위, 이인좌의 난 등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상주의 남인 세력은 위축되어 갔다. 특히 이인좌의 난에 연루된 인물들(曹景洙·曹景泗·洪益龜 등)이 도남서원 출신 인사였기에, 도남서원은 이들과의 연결을 차단했다.⁷⁾ 서인계 인사들은 도남서원에 더욱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⁸⁾ 이후 도남서원 원장의 출신이 다시 남인계 위주로 이어지긴 하지만, 도남서원이 상주 내 사족 전체를 아우르는 서원이었다는 점에서 19세기에 도 상주의 중심 서원으로써의 역할은 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남서원이 1871년 3월에 훼손된 이후, 상주의 사족들은 壇[道壇]을 설치하고 매월 모여, 이곳에서 계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강학회를 진행했다.

19세기 상주 사족 사회를 주도한 것은 남인계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도남서원 및 문중서원을 중심으로 향촌 사회 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했고, 주로 서애·우복의 학맥에 속해 도남서원을 중심으로 인근 서원과 학술 교류와 연대를 통해 결속했다. 그 중 주목되는 것은 19세기 도남서원의 원장을 역임한 인물들이 입재 정종로, 그의 문인인 강고 류심춘, 낙과 류후조 등 진주정씨와 풍산류씨 가문 및 그와 관련되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진주강씨, 장수황씨 등 오랜 기간 세거하거나 18세기 후반 정종로의 문하에 있던 인물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⁹⁾

상주의 사족 중 일부는 학문적 사승관계, 통혼, 관직 진출을 통해 사족 사회에서 유력한 지위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19세기 후반에는 향촌 내에서도 관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유력가문과 그렇지 못한 가문이 구분되어 갔다. 유력가문은 수령권 강화에 따른 사족의 분화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으며, 향촌 문제나 중앙 정치 문제에 대한 상소운동을 전개할 때 중심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상주의 풍산류씨와 진주정씨는 입재 정종로, 낙과 류후조와 같은 중앙 관직 진출자가 나온 집안이었기에, 더욱 유력한 가문으로 성장했다. 이 두 가문의 인물들은 상주 내 노론계 인사와도 교류했다.¹⁰⁾ 이러한 모습은 유력한 가문을 배경으로 한 개인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바탕을 마련했다. 즉, 개인의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향촌 내에서 더욱 큰 위상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상주 사족 사회는 남인계나 노론계나 점차 각각의 문중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특정 유력가문의 영향력이 더욱 증대되었다. 19세기 관권 중심의 향촌 운영은 사족 내 분화를 가속했다. 더불어 중앙관직자를 배출했거나 학문적 성과를 널리 인정받은 인물이 있는 유력가문은 위상이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정종로, 류후조 등 중앙조정 진출 경험

6) 박소희, 「17~18세기 상주지역 남인·노론계 서원의 인적구성 분석」 『민족문화논총』81, 2022, pp.107-111.
 7) 18세기 전반 상주의 서인계는 상주 향교를 장악하고 도남서원 원장직을 역임하는 과정에서 남인과 갈등을 빚었다. 그 예시로 상주향교의 경우 남인계 재지사족이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대응했다. 또한, 1722년 신임옥사로 성주에서 사사된 金昌集의 喪車가 상주를 지날 때 지원한 노론계 인사 성이한을 남인계가 鄉罰을 적용해 ‘毀家黜鄉’한 사건과 1745년 성이한을 도남서원의 심원록에서 삭제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갈등으로 상주 사족 사회의 당파간, 문중간, 신분계층간 분열 대립으로 발전해 도남서원은 남인계, 흥암서원은 서인 노론계로 분열되었다. : 김순한, 「『道南疏廳雜錄』을 통해 본 조선후기 상주 사족 사회의 변화상」 『지역과 역사』54, 2024, pp.205-210.
 8) 박소희, 「17~18세기 상주지역 남인·노론계 서원의 인적구성 분석」 『민족문화논총』81, 2022, pp.113-120.
 9) 김순한, 「『道南疏廳雜錄』을 통해 본 조선후기 상주 사족 사회의 변화상」 『지역과 역사』54, 2024, pp.210-213.
 10) 송진현, 「19세기 말 경상도 상주 사회의 혼란과 맹제 정의목의 활동」 『동학학보』73, 2025, pp.488-492.

이 있는 인물들은 중앙과의 연결고리로 인식되기도 했다. 더불어 상주 내 서인·노론계 인사의 집결 및 활동 확장은 상주 내 사족 사회의 분열로 이어졌다.¹¹⁾ 이러한 사회적 상황들은 문중 보다는, 위상이 높은 개인의 영향력을 따라 향내 인사들이 모이는 현상을 만들어냈다.

학문적으로도 퇴계의 정통을 잇는 풍산류씨와 진주정씨 가문의 인물들이 부상하게 된다. 입재 정종로는 우복 정경세의 6대손이며, 대산 이상정의 문인이었다. 그는 벼슬 자체는 높지 않았으나, 채재공의 추천을 받아 중앙정부에서 일하다가 사직하고 상주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그의 학문은 진주정씨는 물론, 류성룡과 정경세 이래 사승 및 혼인관계를 맺고 있던 풍산류씨에게도 전해졌다. 이인좌의 난 이후 영남에서 중앙 진출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풍산류씨는 다른 집안과 달리 중앙정부에서 관직생활을 한 이들이 다수 배출되었다. 입재 정종로의 문하에서 수학한 강고 류심춘은 중앙정부에서 세자익위사익찬을 지낸 경력이 있으며, 그의 아들 낙과 류후조는 우의정에 올랐다. 상주에서 퇴계학맥을 위시한 사족은 이러한 인물들의 영향력에 기대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¹²⁾

이러한 사족 사회에서 주목되는 인물이 溪堂 柳疇陸(1813~1872)이다. 그는 서애 류성룡의 9세손이며, 할아버지는 강고 류심춘, 아버지는 낙과 류후조이다. 일찍이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 연구를 이어나갔으며, 1867년 동몽교관, 1868년 공충도도사 등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고 후학 양성에 힘썼다.¹³⁾ 대신, 류주목은 중앙정부에 몸담고 있던 류후조와, 자인 현감을 지내고 있던 아들 류도석에게 經國과 治民에 관한 방안을 알려주고 가르쳤다. 더불어, 1866년 병인양요 당시 상주 진주정씨 가문의 어른이자 소모사였던 정윤우에 의해 의병장으로 추천되어 의병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¹⁴⁾ 그는 비록 직접 중앙정부의 정치현안에 참여하거나 관직에 진출하지는 않았으나, 관직에 나아간 주변 인물들에게 그 역할을 다할 것을 요청하고 간접적으로 세상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기도 했다.¹⁵⁾

계당 류주목은 학문적으로 영남의 퇴계학맥을 정통으로 잇고 있었으며, 상주 유력가문 집안 출신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었다. 이에 더해 그의 학문적 위상에 대한 소식이 영남 전체에 확산되었다. 재지사족은 19세기 후반 정세의 불안정과 향촌 사회 내 분화 현상으로 인해, 정치·사회·학문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구심점을 찾고 있었다. 그 구심점은 학문적 위상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상 또한 갖추어진 것이어야 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류주목은 퇴계학맥의 정통을 배웠으며, 아버지가 좌의정에 오른 거물이었고, 경상도 내에서 인정받는 유력가문 출신 인물이었다. 많은 사족은 그에게 학문·정치·사회적으로 기대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류주목은 정치적 참여보다는 후진 양성에 힘썼기에 계당 본인 보다는 문인들의 활동이 19세기 말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1) 송진현, 「19세기 말 경상도 상주 사회의 혼란과 맹제 정의목의 활동」 『동학학보』73, 2025, pp.492-493.

12) 상주 사족 사회는 서원을 중심으로 결속을 다졌지만, 중앙 정부 정책이나 향촌 운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유력가문의 영향력에 기대었다. 19세기에 영남에서 고위 관직을 지낸 인물이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정종로와 같은 대학자나 우의정을 지낸 류후조 등의 등장은 사족 사회와 중앙정부의 연결고리로 인식되었다. 반면, 대부분의 재지사족은 면 단위의 계 조직, 유력가문을 포섭한 정치활동, 관권과의 유착을 통한 향임직 수행을 통해 자신들의 위상을 유지했다. 상주 사족 사회 구성원은 유력가문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정치적 참여 의사를 드러내고, 향촌에서도 그들의 위상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송진현, 「19세기 말 경상도 상주 사회의 혼란과 맹제 정의목의 활동」 『동학학보』73, 2025, p.493.

13) 도민재, 「계당 류주목의 예학사상」 『퇴계학과 한국문화』44, 2009, pp.53-54.

14) 남재주, 「계당 류주목의 『全禮類輯』과 예설 교류」 『한국실학연구』41, 2021, pp.89-91.

15) 류주목은 1867년 아버지 류후조가 우의정으로 있을 당시, 勤聖學, 嚴邪禁, 得賢才, 修武備, 清士路, 定民志의 내용을 담은 ‘擬上六條疏’를 작성해 아버지에게 보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백도근, 「擬上六條疏를 통해 본 계당 류주목 선생의 사상」 『상주문화연구』5, 1995를 참고.

2) 『계당집』 급문록에 나타난 계당학과

19세기 후반 상주 사족 사회의 주류는 퇴계 학맥이었다. 노론계 인사들이 서원을 설치하고 세력을 확장해 나갔지만, 도남서원 및 홍암서원은 큰 충돌 없이 상주에서 공존하고 있었다. 더불어 유력가문 인물 중에서도 중앙 관직을 역임한 이들은 노론계 인사들과도 지속적으로 교류했다. 특히 19세기 후반부터는 위상이 높은 인물을 중심으로 사족 사회의 구심점이 재편되어 갔다. 그 결과 상주에서는 계당 류주목이 대표적인 학자로 알려져 상주는 물론 타지역 고을의 사족들도 그의 문하에 들고자 했다.¹⁶⁾ 그의 학문적 성과에 더해, 아버지 류후조의 영향력, 즉 홍선대원군과의 관계 및 좌의정에 오른 관력은 상주 사족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주요한 요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계당집』 及門錄 문인의 지역 분포

지역	상주권	안동권	성주권	진주권	경주권	기타	합
인원(명)	111	107	36	18	7	48	321
비율(%)	34.5	33.3	11.2	5.6	2.1	14.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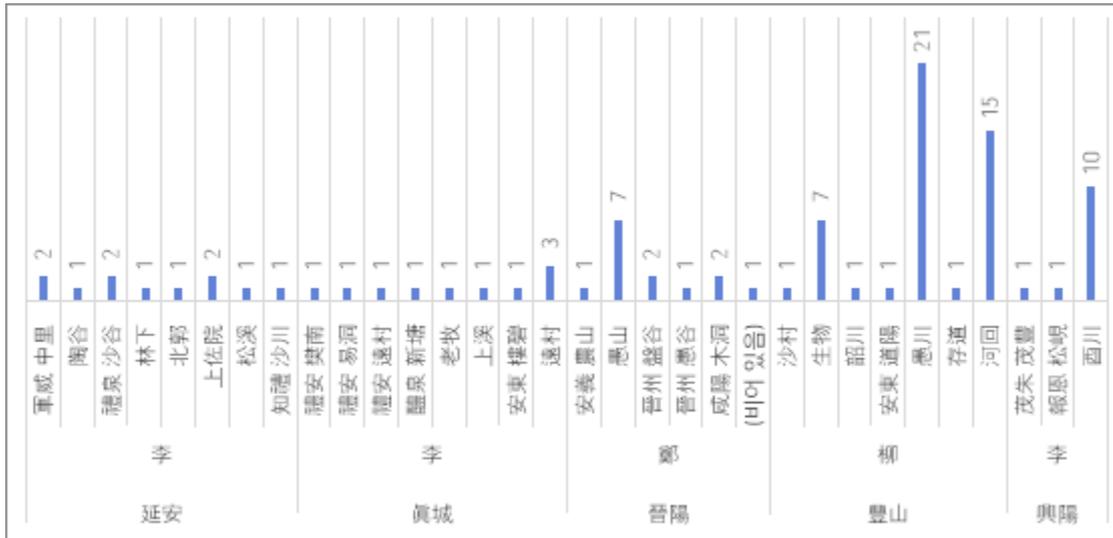
류주목의 문집인 『계당집』에는 「及門錄」이 있어 그의 문인들을 파악할 수 있다.¹⁷⁾ 상주와 안동에서 류주목의 문인이 된 경우가 많았다. 상주는 류주목이 살고있는 공간이었으며, 안동은 풍산류씨의 세거지인 것과 더불어 선조인 류성룡을 모시고 있는 병산서원이 있었다. 그의 문인 대부분이 상주와 안동권에 있었으며,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1/3 정도의 인물들이 문하에 들어왔다.

문인의 구성을 살펴보면, 가족 및 친척이거나 학문적 교류가 있어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문인에 드는 경우들이 있었다. 성씨별로 10명 이상 류주목의 문하에 들어온 경우는, 연안이씨, 진성이씨, 진주정씨, 풍산류씨, 홍양이씨이다. 가장 비중이 많은 것은 총 47명으로, 주로 상주에서 세거하고 있는 愚川과 안동 河回의 풍산류씨이다. 다음은 14명이 있는 진주정씨이다. 愚川과 가까운 愚山은 정경세 이래 진주정씨가 터를 잡은 지역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풍산류씨와 사승·혼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또한, 본관의 지역인 진주에서 적은 인원이 류주목의 문하에 들어왔다. 홍양이씨는 15세기 중반 상주로 이거한 후, 16세기 후반 李堉(1560~1635)이 류성룡의 문하에서 수학한 후 상주에서 도남서원, 옥성서원, 존애원 건립 등에 참여했다. 이후 홍양이씨는 상주 사족 사회에서 주류적 성씨로 자리 잡았다. 진성이씨의 경우 예안, 예천, 안동 등지에서 류주목의 문하에 들기 위해 찾아왔다. 연안이씨 또한 17세기 후반 息山 李萬敷(1664~1732)대에 상주에 정착해 풍산류씨와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렇듯 문인록의 1/3 정도의 인물들이 풍산류씨와 혼인관계, 사승관계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가문이나 가족이 함께 그의 문인이 되었다.

16) 류주목은 퇴계의 이론을 계승하고 예학에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성리설에 있어 안동권과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류주목은 경학과 예학을 학문의 두 축으로 강조했다. 禮는 자신을 다스리고 나라를 경영하는 근본으로 중시했고, 국가 의례와 가정 의례를 총집성해 『全禮類輯』을 편찬했다. 더불어 영남학파와 기호학파의 사단칠정론을 정리해 「四七論辨」을 작성했다. 경세론과 관련해서도 순조 때까지의 당쟁사 자료를 정리한 「朝禁約全」을 쓰기도 했다.; 금장태, 「19세기 한국성리학의 지역적 전개와 시대인식」 『국학연구』15, 2009, pp.21-23.

17) 표 1 『계당집』 「及門錄」의 문인별 지역 분포와 관련해서는 김지은, 「영남학파 문인록을 통해 본 조선후기 문인집단의 확대와 변화」 『한국사상사학』75, 2023, pp.45-51을 참고했다.

차트 56 『계당집』 及門錄 내 성씨별 거주지 분포(10명 이상)



류주목의 문인 중 주목되는 인물은 閩山 柳道洙(1820~1889), 田園 柳道獻(1825~1909), 左山 李晩胤(1834~1906), 南洲 趙承基(1836~1912), 孟濟 鄭宜默(1847~1906), 啓擬 趙南軾(1845~1920), 天必 鄭佑默(1848~?), 聖健 李啓魯(1828~1886) 등이다. 류도수는 류후조가 군주의 보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국 역대 정승들의 功過를 분석한 「相鑑博議」를 저술해 보내고, 1875년 大院位奉還疏를 올리고 유배되었다가 1882년 상주로 돌아왔다.¹⁸⁾ 류도현은 안동에 거주하며 성리학 공부에 힘쓰다가 1893년 의금부도사가 되었다. 이만윤은 안동 예안 출신으로, 1894년 상주목사로 임명되었다. 그는 당시 소모사였던 정의목과 사돈지간이었다. 조승기는 영양 주곡 출신으로, 1861년 영남 만민소에 참여했고, 1896년 영양의진 창의장으로 을미의병에 참여했다.¹⁹⁾

정의목, 조남식, 정우목, 이계로는 류주목의 제자 중에서 당상관을 지냈던 인물이다. 정의목은 류주목에게서 ‘孟齋’라는 字를 받았으며, 문과 급제 이후 홍문관에서 직임을 수행하고 이후 同副承旨에 올랐다. 1894년에는 퇴임 관료임에도 경상도 소모사로 임명되어 상주에서 소모영을 운영했다.²⁰⁾ 조남식은 1873년 문과에 급제한 후 司憲府監察, 司諫院正言, 刑曹參議, 同副承旨, 司諫院大司諫의 직임을 거쳤다. 1896년 을미의병에 가담했으며, 1897년 중추원의관에 임명되었다. 정우목은 정의목의 從弟로, 1882년 문과급제 이후 景孝殿提調, 宮內府特進官 등 중앙에서 관직을 지냈다. 이계로는 안동 樓碧 출신으로 1863년에 병산서원에 사액을 청했으며, 문과 급제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承政院右承旨에 올랐다.

사족 사회에서 과거 합격 및 관직자의 존재는 문인집단의 질적 수준과 함께 해당 학자의 학문적·정치적 명망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이후 상주 향촌 사회에서 남인, 나아가 사족 사회 전반의 정치적 영향력은 위축되고 영남 외 지역에 대한 확장성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지 못했다.²¹⁾ 그러나, 19세기 후반 흥선대원군의 영남 남인 기용과 류후조의 좌

18) 설석규, 「조선시대 영남유생의 공론형성과 류도수의 만민소」 『퇴계학과 한국문화』44, 2009, pp.150-152.

19)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경북독립운동사 I』, 경상북도, 2012, pp.37-38.

20) 송진현, 「19세기 말 경상도 상주 사회의 혼란과 맹제 정의목의 활동」 『동학학보』73, 2025, pp.494-498.

21) 김지은, 「영남학과 문인록을 통해 본 조선후기 문인집단의 확대와 변화」 『한국사상사학』75, 2023, pp.59-63; 김지은은 17~18세기 학자별 문인 집단의 양적·질적 성장이 있었으나, 19세기에는 남인의 정치적 열세, 서원철폐령 등으로 인해 문인집단의 질적수준이 저하되었고, 지역적 범위와 인적 규모는 이전에 비해 크게 확대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19세기의 문인록이 20세기에 문중 주도로 편찬되어 문인 인원들에 대한 실제 검증은 거치

의정 임명 등은 관권에 비해 정치적·사회적으로 미약했던 상주 사족 사회에 있어 새로운 전환 점이였다. 계당 류주목은 상주에서 오랜 기간 세거해온 풍산류씨 집안, 특히 좌의정의 아들이었다. 그는 학문적 수준도 갖추고 있어 영남은 물론 충청, 강원 등에서도 그의 문인이 되고자 찾아온 이들도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영남 남인계뿐만 아니라 19세기 후반 조선의 사족들의 문제의식이 표출된 것은 아닌가 한다. 19세기에 들어 세도정치가 심화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정치적 경색에 대한 사족들의 문제의식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지방에서 활동하던, 특히 영남에서 활동하는 사족들은 이인좌의 난 이후 더욱 위축되어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강력히 전달할 방법이 크게 줄어든 상태였다. 사족들 또한 그러한 세태가 지속되자 점차 성리학에 더욱 몰두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연장선에서 동학을 창도했던 최제우처럼,²²⁾ 여러 고명한 학자들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고자 했던 인물들도 있었다. 즉, 사족으로서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성리학의 영역을 확장하고 정치·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식을 지닌 이들이 나타난 것이다.

결국, 19세기 후반 계당 류주목과 같은 인물의 등장은 상주 사족 사회, 나아가 조선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공부하던 향촌의 선비들을 모으는 데 일조했다.²³⁾ 상주 사족 사회의 경우, 기존의 사족 세력 및 새롭게 학문적·사회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이들이 퇴계학맥이라는 큰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목적을 이루고자 했다. 다른 지역의 선비들 또한 비슷한 목적에 더해, 당시 세도정치의 문제, 국외 정세의 혼란, 삼정을 위시한 향촌 사회의 여러 문제 등 다양한 문제의식을 해결하고자 계당뿐만 아니라 여러 고명한 학자들을 찾아가 고견을 듣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편, 당시 관권의 강화, 1862년 농민항쟁과 동학의 확산, 서원철폐령 등으로 인한 사족 사회의 동요는 그들에게 구심점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18세기 후반 이래 문중서원이 설치되었지만, 서원철폐령으로 인해 대부분의 서원은 사라졌다. 특히 상주 사족 사회 전체를 아우르던 도남서원도 함께 철폐되면서, 사족 사회는 위축되어 갔다. 그 연장선에서 사족들은 기존에 있었던 문인 집단을 활용해 자신들의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계당 류주목은 영남학과 중에서 문인이 많은 인물 중 하나였으며, 소수이지만 상주의 서인계 성씨인 인천채씨도 문인록에 이름을 올렸다. 즉 문인록이 작성될 당시의 문인들은 남인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상주 내 노론계 인물들과의 교류 부재를 뜻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더불어, 상주 내에서도 중앙관직에 나선 인물들의 수가 증가하고 그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중앙정부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직접적 활로로써 활용할 가능성을 열게 되었다.

그렇다면, 계당 류주목 이후 상주 사족 사회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1880년대 이후 상주 향촌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 이들은 중앙정부와 연이 있는 이들일 것으로 판단된다. 관권

지 않았다는 점, 19세기 영남학파 내 과거를 통한 관계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 아닌, 학문 그 자체를 향유하는 '독서인'이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점 등을 언급했다. 그러한 점에서 19세기 문인록에 기록된 이들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학문을 향유하는 인적 자원의 증가, 정치적·학문적 네트워크의 강화, 출판 문화의 보편화 등에 요인한 것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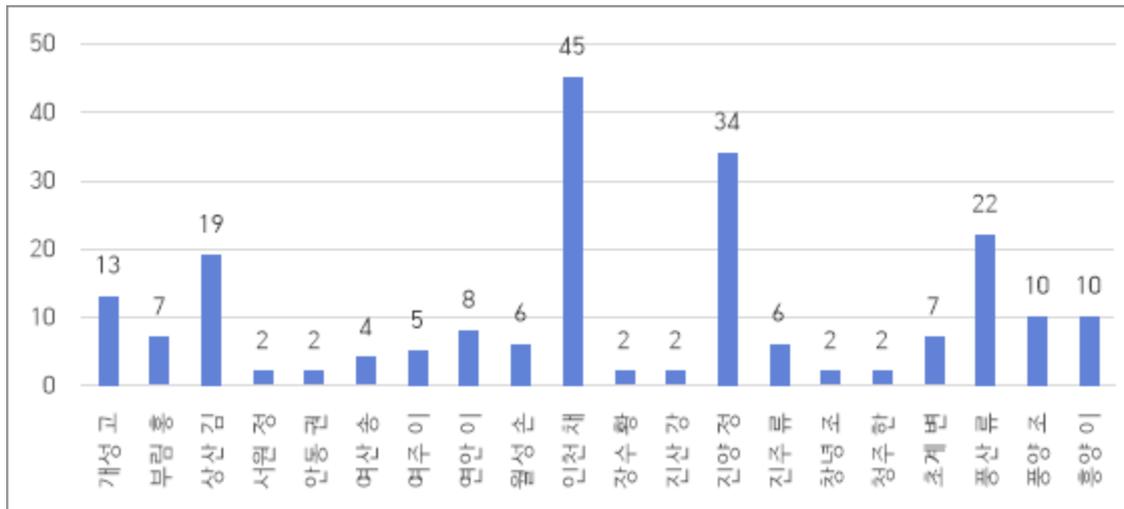
22) 최제우는 오랜 수양의 시간 끝에 깨달음을 얻고 동학을 창도했다. 이후 최제우는 삼남지방을 돌며 가르침을 설파했는데, 이때 많은 선비들이 그를 찾아와 가르침을 듣고자 했다.

23) 김지은의 연구(2023)에 따르면, 定齋 柳致明, 性齋 許傳, 溪堂 柳疇睦, 四末軒 張福樞, 西山 金興洛의 문인 2300여 명 중 중첩되는 인물은 74명(약3%)으로, 이들은 19세기 영남학파의 여러 학자와 함께 지역 간·학파 간 교류를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김지은, 「영남학파 문인록을 통해 본 조선후기 문인집단의 확대와 변화」 『한국사상사학』75, 2023, pp.52-57.

을 직접 행사하는 상주목사 및 그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향임·이서 집단, 그리고 상주 향촌 사회에서 중앙정부와 연을 가진 인물들, 즉 직접 중앙정부에 참여했었던 인물들이다. 앞서 언급한 정의목, 정우목, 이만윤 등 계당 류주목의 문인 중 중앙 관직을 지낸 인물들은 19세기 말의 여러 사건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다.

이후 상주 사족의 활동이 확인되는 것은, 道南講學所契이다. 도남서원이 훼손된 이후, 1892년 고종이 鄉三物로써 백성을 가르치고자 했는데, 그 뜻으로서 상주목사 尹泰元이 1893년에 향교에 상주의 사족들이 모여 강학했다. 또한 江壇에서 향음과 강학의 자리를 가졌다. 이때 만들어진 계가 1905년까지 이어졌다.²⁴⁾ 1893년 강학계의 구성원의 성씨 중 2명 이상의 성씨는

차트 57 1893년 道南講學所契 구성원 성씨(2명 이상)



다음과 같다.²⁵⁾

총 222명 중 10명이 넘는 성씨는, 인천채씨, 진주정씨(진양정씨), 풍산류씨, 상산김씨, 개성고씨, 풍양조씨, 홍양이씨이다. 도남서원이 상주의 대표 서원이라는 점에서, 서인계 성씨인 인천채씨의 비중(20.2%)이 가장 높은 것은 특이하다. 다만, 인천채씨의 경우, 관직자가 1명(都事)으로, 계 내에서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인계 서원인 홍암서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창녕성씨는 참여하지 않았다. 계에는 여전히 상주에서 세거하던 성씨가 상당수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진주정씨 관직자 4명(通政, 府使, 承旨, 參奉), 풍산류씨 관직자 2명(護軍, 郡守)으로, 관직과 관련된 이들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사회 혼란기 사족의 동향

1) 동학농민혁명기 상주 소모영의 구성원

1862년 상주의 농민항쟁은 향촌 문제에 대한 백성의 인식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백성들이 관권과 사족에 대해 더는 기대할 수 없음을 깨닫게 했다. 농민항쟁 이후 개선하고자 했던 문제들, 즉 삼정문란과 관련된 이정책들은 일시적 효과를 보였을 뿐 1880년대에 다시 지적되기 시작했다. 상주목사 및 향임·이서를 위시한 관권은, 행정력이 이행될 수 있는 질서 유지에 힘쓰고 있었다. 사족 사회는 유력가문을 내세워 중앙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에 힘썼다. 그 과정

24) 도남서원속지발간위원회, 『道南書院續誌』, 2006, pp.321-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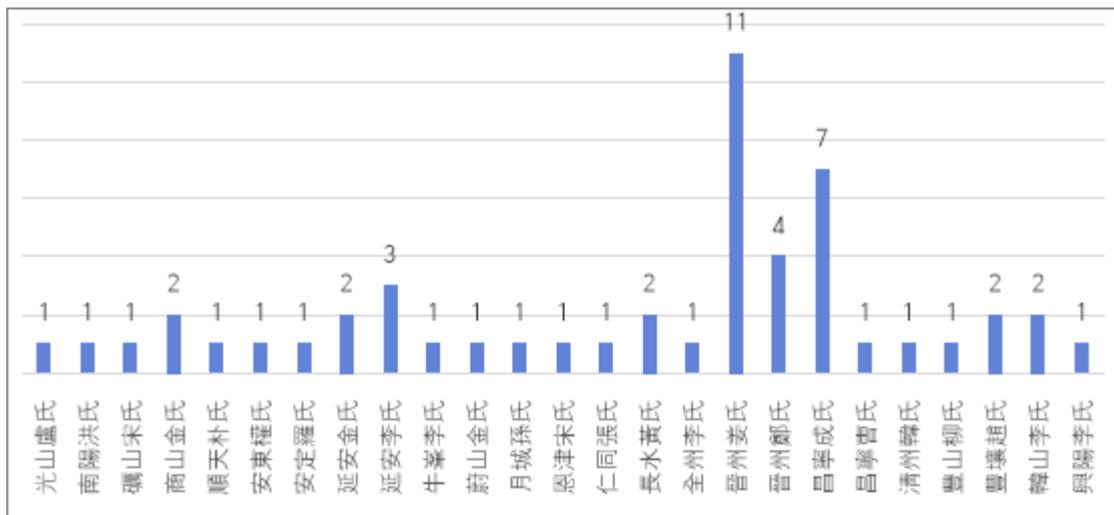
25) 도남서원속지발간위원회, 『道南書院續誌』, 2006, pp.325-335.

에서 사족 사회의 결속력은 공고해졌으나, 향촌 사회에서의 성리학적 사회 질서 유지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즉, 관권과 사족 사회가 유지하고자 하는 질서 외의 존재들은 기댈 곳을 잃고 새롭게 의지할 곳을 찾아야 했고, 동학으로 투신했다.²⁶⁾

1894년 9월, 상주 인근의 동학농민군은 상주읍성을 점령하고 새로운 향촌 질서 이행을 위해 활동했지만, 일주일만에 일본군에게 패산했다. 행정력 공백이 생긴 상주읍성은 근처의 이서들이 집강소를 설치해 방어하고 있었다. 한편, 중앙정부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9월 22일 도순무영을 설치하고 각지의 수령들을 소모사, 토포사로 임명했다. 이때, 정의목은 상주 우산리 본가에서 자신이 소모사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받고 상주읍성으로 이동했다. 그는 이서들이 조직한 집강소를 기반으로 소모영을 구성하고 의병을 일으키고자 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道壇의 사족들도 상주 내 여러 사족에게 의병을 일으키자고 통문을 돌렸다. 이에 따라 정의목은 상주목사 이만윤과 尙州鎭營將 柳寅衡, 진주정씨 친인척, 유력가문의 인사들, 알고 지내던 인물 등과 협의해 소모영을 구성했다.²⁷⁾

이때 소모영의 구성원은 총 275명 중 병정 200명, 從事官·參謀에는 仁同張氏, 晉州姜氏,²⁸⁾ 順天朴氏, 昌寧曹氏, 昌寧成氏, 礪山宋氏 등 양반성씨가 배정되었다. 아래는 소모영 내 양반성씨

차트 58 소모영막하파임기 내 양반성씨 분포



의 분포이다.

양반성씨의 경우 소모사를 포함해 총 52명으로, 상주 사족 사회의 구성원 중 기존에도 향촌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하던 인물들이었으므로 판단된다. 소모영 의병군에 참여한 이들은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전시상황에서 일선에 나와 대책을 논의할 정도의 역량을 지녔던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급박한 상황에서 정의목이 구성할 수 있는 조직은 기존에

26) 송진현, 「19세기 후반 경상도 상주의 향촌문제와 동학농민전쟁」 『대구사학』150, 2023.

27) 신영우, 「1894년 영남 상주의 농민군과 소모영(上)」 『동방학지』51, 1986, pp.220-225; 소모영막하파임기는 <부록> 참조.

28) 신영우는 이와 관련해 인동장씨와 진주강씨는 상주 임곡에 세거하고 있었는데, 보은과 통하는 길목에 위치해 동학농민군에게 피해를 크게 받았던 문중이었음을 논했다. 창녕성씨 또한 상주 모서에서 세거했는데, 동학에 투신한 이들과 갈등관계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진주강씨와 창녕성씨의 참가 인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 농민군 진압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다채로운 양반성씨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소모사의 계획적인 임명으로 보았다. 즉, 업무분장의 측면에서 한 성씨가 몰리면 해당 성씨에 대한 예우로 보일 수 있고, 양반성씨를 대거 참여시킴으로써 巨族大家의 인적 물적 역량을 결집시키고 이용하고자 한 의도라는 것이다.: 신영우, 「1894년 영남 상주의 농민군과 소모영(上)」 『동방학지』, 1986, pp.210-228.

편성되어 있던 조직이었을 확률이 높기에, 상주향회의 구성원 또는 도남서원 강학계의 구성원이 중심이 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²⁹⁾

정의목이 동학농민혁명기 소모영을 운영하면서 작성했던 『소모일기』에는, 소모영을 꾸려나가는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그는 자신이 속해있던 사족 사회의 일원들을 적극 활용해 의병을 모집했다. 우선 그의 친인척인 진주정씨 집안의 정홍목, 정재덕, 정동철 등이 우산에서 함께 상주읍성으로 이동했던 인물들이다. 더불어 정좌목은 정의목의 명에 따라 밀양관아로 이동해 선무사에게 편지를 전했다. 더불어 정의목의 사돈이자 상주목사인 이만윤과, 류주목의 아들인 류도석의 참여가 돋보인다. 그러나 류도석은 의병대장으로 추천을 받았으나 거절했고, 참모진들 또한 여러 핑계를 대며 참여를 거절했다. 상주의 사족은 향회와 도단 및 옥동서원의 통문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밝혔지만, 실제 전쟁 활동에의 직접적 참여는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³⁰⁾

소모영 구성원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주강씨의 참여가 가장 두드러진다. 진주강씨는 16세기에 상주로 입향해 오랜 기간 세거한 집안이다. 도남서원 건립 이후에는 도남서원의 재임을 두루 맡았으며, 19세기 이후 도남서원 휘철 이전까지 진주강씨 11명이 총 22번의 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이인좌의 난 이후에도 6명의 문과 급제자를 내었다.³¹⁾ 즉, 진주강씨가 19세기 전후로 상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유력한 가문으로 성장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연장선에서, 소모영은 상주에서 정의목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주변 인물들을 이끌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보유한 성씨의 참여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홍암서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서인계 성씨의 참여가 돋보인다. 창녕성씨의 경우 참모의 成錫善과 成震源, 成錫五, 成益源, 成橋, 成穢, 成植 총 7명이 참여하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참여자 전원이 홍암서원의 중심축 인물이라는 것이다. 즉, 홍암서원 享禮의 初獻官, 掌議, 有事 등을 겪었던 인물들이다. 또한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성진원, 성옥을 제외한 모두가 홍암서원장을 지냈다. 서원의 초헌관은 보통 서원의 원장이 지냈으며, 유사는 실질적 사무를 총괄하기에 향내 명망이 있는 인사로 선발했다³²⁾는 점을 볼 때, 홍암서원 내 창녕성씨 중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창녕성씨 내 유력한 인물 다수가 소모영에 참여한 것은 정의목의 상주 사족 사회 내의 영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시 소모영이 당색을 가리지 않고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정의목과 친분을 가진 사족도 참여하고 있다. 止山 李起燦은 전주이씨로, 1853년 청송에서 출생하고 1889년 상주로 이거해 와 상주 사족 사회에서 유력한 지위를 갖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기찬과 정의목의 인연은, 정의목의 종형과 이기찬 집안의 인물이 혼사를 이루어 혼맥을 형성한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기찬은 정의목에게 조카를 제자로 받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 친분은 물론 학문적 교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친분으로 정의목은 이기찬에게 소모영 참모를 제안했으나, 그는 시속의 일에 간여할 만한 의리가 없고 참모를 감당할 수 없다는 말로 사양했다.³³⁾ 다만 이기찬은 소모영에서 ‘典兵都監 藥丸派

29) 송진현, 「19세기 후반 경상도 상주의 향촌문제와 동학농민전쟁」 『대구사학』150, 2023, p.124.

30) 송진현, 「19세기 말 경상도 상주 사회의 혼란과 맹제 정의목의 활동」 『동학학보』73, 2025, pp.499-500.

31) 채광수, 「서원의 지식 네트워크 활동의 실제」 『한국서원학보』12, 2021, pp.10-17; 채광수는 도남서원 원장이 영남지역 내 다른 서원과 달리 소·대과 합격자 및 관직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며, 이가 서애·우복학단의 경세가적 특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18세기 이후 진주강씨 대과급제자는 姜杭(1726)·姜世鷹(1780)·姜世綸(1783)·姜世樸(1786)·姜世白(1794)·姜長煥(1837)·姜景熙(1893). 1802년 이후 도남서원 원장(괄호 안은 역임 횟수)은 姜世綸(4)·姜世樸(3)·姜申永(3)·姜秉欽(2)·姜胥永(2)·姜世白(2)·姜長欽(2)·姜哲欽(2)·姜肱欽·姜文永·姜世鷹이다.

32) 국립무형유산원, 『서원향사 -홍암서원·대로사-』, 2014.

給兼'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遊擊將 蔚山金氏 金奭中은 상주 모서면 출신으로, 재지사족 중에서 한미한 가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의목은 그의 독서와 경륜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김석중은 스스로 유격장이 되기를 청했으며, 자신의 동생인 金稷中과 함께 유격대를 이끌고 충청도의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해 원정에 앞장섰다. 그는 이때의 공적을 인정받아 1895년 안동부관찰사로 임명되었다.³⁴⁾ 이외에도, 다양한 성씨의 소모영 참여는 이전부터 정의목과 연이 있어 함께 활동하던 이들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소모사 정의목의 가문인 진주정씨 및 그와 혼인·학맥으로 인접한 풍산류씨는 소모영에서 비중이 크지 않다. 이와 관련해, 정의목은 류주목의 아들 류도석을 소모영 의병장으로 삼고자 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류도석은 의병장이 되어 사족 중심으로 구성된 소모영을 이끌었다. 류도석은 1881년의 辛巳斥邪上疏運動 당시 역모에 가담해³⁵⁾ 유배되었다가 1894년 7월에 풀려나 상주로 돌아왔다. 그럼에도 그가 의병장으로 추대된 것은 좌의정을 지낸 류후조의 손자이자 큰 학자였던 류주목의 아들이었던 점 등 그의 영향력으로 상주 사족 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³⁶⁾ 이에 따라 진주정씨와 풍산류씨 가문은 소모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듯, 상주 소모영은 정의목을 중심으로 해 상주 사족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퇴계학맥을 이은 계당 류주목의 문인들이 대거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제자인 정의목은 상주 내 유력가문 출신이며 중앙 관직을 지낸 경험이 있는 인물이었다. 이러한 배경은 그를 상주 사족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 인물로 위상을 올려주었다. 이는 그가 향회, 도남서원, 흥암서원 등 상주 사족 여러 성씨를 아우를 수 있게 했다. 더불어, 풍산류씨와 진주정씨의 가학에 직접 영향을 받은 점, 중앙정부의 신뢰를 받고 소모사로 임명된 점은 그로 하여금 黨色보다는 '향촌 안정'이라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상주 내 서인계 성씨의 비율이 높진 않으나, 해당 성씨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 소모영에 참여했다. 이러한 모습은, 상주 사족 사회가 학문적 사승관계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점차 개인의 위상과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2) 을미의병기 상주 사족의 의병 참여

상주 사족 사회는 동학농민혁명, 갑오내각의 근대화 정책, 단발령, 을미사변 등으로 크게 흔들렸다. 특히, 1895년 단발령과 변복령, 을미사변은 상주뿐만 아니라 조선의 사족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사족 사회는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갑오내각과 일본인에 대항하고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조직적 활동으로서 전국 각지에서 의병을 조직했다. 중앙정부는 각 지역의 관찰사나 군수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 이행하고자 했으나, 그에 대한 반발인 의병 활동이 본격화되자

33) 『국역 지산유고』, p.488.

34) 송진현, 「19세기 말 경상도 상주 사회의 혼란과 맹제 정의목의 활동」 『동학학보』73, 2025, pp.502-503.

35) 1881년에 개화를 반대하는 전국 유생들의 척사상소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를 계기로 대원군의 서자인 李載先을 추대해 역모를 일으키고자 했다.: 『高宗實錄』 18권, 고종18년(1881) 10월 25일, '류도석을 원악도에 안치할 것을 명하다.'

36) 『慶尙道召募營錢穀入下實數成冊』[동학농민혁명사료아카이브(www.e-donghak.or.kr/archive), 이하 도메인 생략]에는 소모영에 모인 전곡의 총 수입이 기록되어 있는데, 錢 8,510냥 중 진주정씨는 700냥(소모사 200냥 + 愚山修稷所 500냥, 8.3%)을, 각 문중에서 錢 2,114냥(24.8%)와 米 6,084승(총 米12,940 중 47.1%)을 의연했다. 풍산류씨의 정확한 의연액은 나타나진 않으나, 문중의 영향력으로 미루어 보아 높은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송진현, 「동학농민전쟁기 경상도 소모사의 향촌안정책 시도와 성격」 『대구사학』154, 2024, p.154.

지방행정은 마비되었다. 경상도 북부지역 의병은 안동부가 관할하는 지역 대부분에서 조직되었지만, 상주와 함창은 조직되지 못했다.³⁷⁾

1896년 2월 상주 사족은 善山의 사족들과 상주에서 창의를 준비했다. 상주 내에서 의병을 일으키는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李起燦, 趙東奭, 柳道燮, 李起夏, 姜懋馨은 선산의 旺山 許蔦를 방문해 거의하고자 했으나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³⁸⁾ 같은 시기 김천향교에서 呂永昭, 李相高, 金騏驎 등이 거의를 논의하고 통문을 인근 고을에 돌리자. 선산에 모여있던 이들도 합세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천에서는 군량을 문제로 합세에 대해 회의적 모습을 보였다. 상주·선산의 의병들은 김천 사람들을 제외하고 밀담을 가졌고, 이가 상주·선산, 김천 의병 간의 불신을 키웠다. 허위 등은 상주·선산인을 중심으로 군직을 정하고 김천의 군기고를 습격했고, 김천 사람들은 무기를 감춘 뒤 상주·선산 사람들을 설득했다. 이에 상주·선산·김천의 사람들이 김천향교에 모여 김산의진을 구성했다.³⁹⁾

표 7 김산의진 참여자 명단

직책	성명	본관	거주	신분	직책	성명	본관	거주	신분
大將	李起燦	전주	상주	幼學	從事	崔東殷	철원	김산	
中軍	金基驎	경주	김산		參謀	許蔦	김해	선산	
贊劃	趙東奭	풍양	상주	生員	參謀	呂永昭	성산	김산	幼學
贊劃	李龍周	연안	지례		軍糧都監	曹奭永	창녕	개령	進士
贊劃	姜駟善	진주	김산		軍糧都監	呂承東	성산	김산	
贊劃	許蒹	김해	선산		軍糧都監	李鉉參	연안	지례	義禁府都事
贊劃	李能圭		김산	幼學	軍糧都監	趙南軾	풍양	상주	前承旨
贊劃	李相高		김산		掌財官	裴濼	성산	지례	
贊劃	呂中龍	성산	김산		掌財官	姜明淑			
軍官	姜懋馨	진주	상주	幼學	掌財官	朴來煥	밀양	김산	五衛將
軍官	李起夏	전주	상주		書記	李時佐	홍양	상주	幼學
從事	李崇周		김산						

1896년 2월 16일, 김산의진은 상주의 이기찬을 의병대장으로 추대하고 군례를 행했다.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⁴⁰⁾

이들은 性齋 許傳, 四未軒 張福樞, 계당 류주목 등의 문인이었다.⁴¹⁾ 이들 중 상주에서 참여한 인물은, 이기찬, 조동석, 강무형, 이기하, 조남식, 이시좌이다. 성씨로는 전주이씨 2명, 풍양 조씨 2명, 진주강씨 1명, 홍양이씨 1명이다. 그중 이기찬, 강무형, 조남식, 이시좌는 정의목이 조직한 소모영의 구성원이었다. 상주에서 참여한 이들은 오랜 기간 상주에 세거해왔거나, 김산, 선산의 인물들과 관련이 있는 이들이었다. 학문적으로는, 퇴계학맥의 爲己之學의 실천적 성향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상주 사족 사회의 유력가문들과 함께 활동하지 않은 것일까? 이는 계당 류주목의 학문적 성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주 풍산류씨의 입향조인 류성룡의 셋

37) 송진현, 「19세기 말 경상도 상주 사회의 혼란과 맹제 정의목의 활동」 『동학학보』73, 2025, pp.509-514.

38) 이들은 家奴 수백명을 동원해 거의하고자 했는데, 가노들이 한사코 따르지 않아 실패하고 수십명의 從士만 데리고 김천으로 이동했다. 권대웅, 『목숨 바쳐 나라를 사랑한 선비 왕산 허위』, 지식산업사, 2014, p.40.

39) 권대웅, 『목숨 바쳐 나라를 사랑한 선비 왕산 허위』, 지식산업사, 2014, pp.44-54; 『국역 지산유고』, 日記, 丙申二月(pp.190-195).

40) 권대웅, 『목숨 바쳐 나라를 사랑한 선비 왕산 허위』, 지식산업사, 2014, p.57; 이는 여중룡의 『甲午丙申日記』를 참고한 것으로, 『지산유고』(『국역 지산유고』, p.197)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 이기찬의 기록에서는, 양제안을 중군, 조동석을 軍門都摠, 강무형을 贊劃, 허위를 參謀, 이시좌·여영소를 書記로, 윤홍채를 先鋒兼組練將으로 삼고 儒兵 30여 명과 화포병 50여 명으로 대오를 편성했다. 본고에서는 권대웅의 연구를 기준으로 했다.

41) 김산의진 구성원 중에서 계당 류주목의 문인으로 확인되는 것은 왕산 허위와 晚修 이시좌이다.

재 아들 류진은,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한 의리가 있기에 시골에 누워 거들먹거리는 짓을 본받을 수는 없다’고 해 그의 가문에 ‘世臣之義’의 출처관을 제공했다. 이는 풍산류씨와 진주정씨의 사승관계를 통해, 19세기 중반 류후조, 류주목, 류도석에게 이어졌다.⁴²⁾ 더불어 19세기 말, 상주 사족 사회를 주도했던 인물 중 중앙관직이나 목민관을 경험한 이들이 증가했다. 즉, 정의목 처럼 상주 사족 사회 내에서도 영향력이 상당했던 유력가문의 인물들이 중앙정부와도 밀접했다는 점, 계당 류주목의 家學인 ‘世祿之臣’으로서 조정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이 그의 문인들에게도 작용한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정의목은 안동의 의병을 설득하는 데에 동참했다. 이미 그와 교유가 있던 前召募營遊擊將인 안동부관찰사 김석중, 前尙州鎭營將인 예천군수 柳寅衡이 의병에 의해 처단되었고, 의병의 활동은 격화되고 있었다. 이에 중앙정부는 대일 절교와 전쟁론을 펼쳤던 永興郡守 李南珪를 안동부관찰사에, 前工曹判書 張錫龍을 암행효유사로 임명해 의병을 진압하고자 했다. 장석룡은 상주에 있던 정의목 및 前상주목사 이만윤, 前弘文館校理 柳道緯를 통해 안동의 유력가문인 진성이씨와 풍산류씨 문중을 회유하고 의진을 설득하고자 했다.⁴³⁾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정의목과 趙南奭이 김산의진에 軍餉을 지원했던 점, 이남규가 이기찬의 아들인 이강하가 의병 활동 과정에서 민간의 재물을 탐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되었을 때 직접 글을 지어 보호해준 점 등이다. 정의목은 중앙정부에서 근무한 경험과 자신의 스승인 류주목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신하의 의’를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에 일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가 의병을 지원하고 있었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온전한 동조를 뜻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그도 영남의 선비이지만 의병에 직접 가담하는 것은 부담이었을 것이다. 이남규는 “상주의 의병장 李某(이기찬)는 나같 적에 근거함이 있었고, 그칠 때 까닭이 있었다.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직접 감당하겠다”는 關文을 보냈다.⁴⁴⁾ 이는 그의 독단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상주 사족 사회 내에서 이기찬을 잘 알고 있던 이들의 조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19세기 후반 상주 사족 사회는 유력한 인물의 활동이 돋보이게 된다. 특히 향촌에서 관권이 강화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인물 특히 중앙정부 관료 출신 인물들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었다. 중앙정부는 사회가 혼란해지는 상황에서 향촌의 안정과 행정력 유지를 위해 전·현직 관료를 활용했다. 상주 사족 사회 또한,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강화된 관권에 대응하기 위해 여타가 인정하는 유력한 인물을 앞장세웠다. 상주에서 중앙정부와 사족 사회를 대변할만한 인물들은 계당의 문인이었다. 그들의 행동에는 계당의 학문적 영향이 크게 작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위기 상황 속에서 상주 사족 사회는 당색으로 구분되거나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유력한 인물의 위상은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었다.

19세기 말 상주의 사족은 정치·사회적 혼란의 당사자였다. 그들은 성리학적 질서를 유지하고 왕을 지켜 나라를 보전하고자 하는 의지는 공유했다. 다만, 그 방법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정의목, 조남석과 같이 중앙정부와 관련이 깊으면서도 향촌에서 영향력이 컸던 인물들은 중재자로서 향촌 안정에 주력했다. 반면, 이기찬, 허위와 같이 척사의 입장에서 동학농민혁명과 을미의병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들도 있었다. 이는 계당 류주목의 영향 아래에서 상주의 사족들이 정치·사회적 문제에 다채롭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42) 남재주, 「계당 류주목의 『全禮類輯』과 예설 교류」 『한국실학연구』41, 2021, pp.90-91.

43) 송진현, 「19세기 말 경상도 상주 사회의 혼란과 맹제 정의목의 활동」 『동학학보』73, 2025, pp.511-516.

44) 『지산유고』 家狀, 止山李先生年譜, 丙申年 六月 長子康夏逮繫尙州獄(『국역 지산유고』, p. 372).

4. 맺음말

본 발표문은, 19세기 말 상주 사족 사회의 동향을 계당 류주목의 학문적 영향을 받은 그의 문인들을 통해 파악하고자 했다. 상주 사족 사회는 류성룡과 정경세의 학맥을 이었으면서도, 경상도 내 다른 지역과는 달리 서인 세력이 흥암서원 건립을 통해 안착한 지역이다. 18세기까지도 상주 내에서 그들 사이의 갈등이 존재했으나, 19세기 사족은 문중서원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특정 유력가문의 영향력이 증대되어 갔다. 그것이 풍산류씨와 진주정씨로, 입재 정종로는 대학자로서, 낙파 류후조는 300년만의 정승으로서 상주 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높았다. 이 두 집안은 중앙관직자를 지속적으로 배출해냈으며, 상호 혼인·사승관계를 통해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두 가문 사이에서 계당 류주목이 배출되었다.

류주목은 상주의 대표적 학자로 알려져 경상도 다른 고을의 사족도 그의 문하에 들하고자 했다. 그의 문인 중 주목되는 이들은 관직에 나아갔던 이들이다. 과거 합격자 및 관직 진출자는 그 학자의 학문적·정치적 명망을 상징하는데, 계당은 아버지가 좌의정을 지냈고, 학문적으로도 퇴계학맥의 정통을 이었다. 이에 따라, 그의 문인은 상주에서 오랜 기간 세거하던 이들이 대다수였지만, 충청, 강원 등지에서도 그의 학문적 위상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왔다. 한편, 19세기 후반의 정치·사회적 격동은 사족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 일부는 성리학에 더욱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일부는 고명한 학자를 찾아가 가르침을 받고자 했던 인물들도 나타났다. 즉, 사족으로서 지역적 한계를 넘어 성리학의 영역을 확장하고 정치·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식을 지닌 이들이 나타났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으로서, 만민소에 참여했다. 만민소는 중앙관직 진출자 또는, 정치적·사회적·학문적 위상이 높았던 인물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었다.

중앙정부 또한, 향촌 사회에서 명망이 높아진 인물을 통해 정치·사회적 혼란을 잠재우고자 했다. 계당 류주목의 문인이자, 유력가문 출신인 정의목은 정3품 동부승지직을 지내고 퇴임해 상주에 내려와 있었다. 1894년 9월 동학농민군은 최시형의 재기포령으로 다시 활동하게 되자, 중앙정부는 각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소모사·토포사로 임명했다. 상주에서는 정의목이 소모사로 임명되어, 자신의 친인척, 유력가문의 인사들, 상주 사족 사회 구성원들과 협의해 소모영을 구성했다. 또한 상주 내 서인계 인물들도 기용했으며, 개인적 친분을 가진 재지사족들을 활용했다. 이러한 모습은, 19세기 말에 이르면 상주 사족 사회가 학문적 사승관계에 고정되지 않게 됨을 보여준다. 또한, 점차 개인의 위상과 영향력이 증대되고 한 사회를 대표할만한 수준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연장선에서, 1896년 초 상주에서는 의병이 조직되지 못했다. 정의목과 같은 전직 중앙관직자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진 못했고, 오히려 경상도 북부지역에서 거세게 일어난 의병을 수습·진압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상주 사족 사회 내에서도 의병을 일으킬 것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지만, 실행되지 못했다. 이에 이기찬과 일부 재지사족은 김산과 선산의 사족들과 모여 거의를 논의했고 김산의진을 구성했다. 조남식의 경우에도 승지에 올랐던 인물이었지만, 의진에 참여했다. 이에 정의목, 조남식은 김산의진에 균향을 보내는 등 사족 사회는 의병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다. 여기에는 계당 류주목의 학문적 영향도 직·간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들은 상주의 사족들이 각자의 여건에서 정치·사회적 문제에 다채롭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참고문헌

사료

『甲午丙申日記』 『慶尙道召募營錢穀入下實數成冊』 『溪堂集』 『高宗實錄』
『召募事實』 『召募日記』 『止山遺稿』

단행본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국역 지산유고』, 2021
국립무형유산원, 『서원향사 -홍암서원·대로서-』, 2014
권대웅, 『목숨 바쳐 나라를 사랑한 선비 왕산 허위』, 지식산업사, 2014
도남서원속지발간위원회, 『道南書院續誌』, 2006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경북독립운동사 I』, 경상북도, 2012

학술논문

권오영, 「19세기 영남유림의 사상적 동향」 『민족문화논총』 70, 2018
금장태, 「19세기 한국성리학의 지역적 전개와 시대인식」 『국학연구』 15, 2009
김순한, 「18-19세기 상주지역 남인 세력의 갈등」 『민족문화논총』 81, 2022
_____, 「『道南疏廳雜錄』을 통해 본 조선후기 상주 사족 사회의 변화상」 『지역과 역사』 54, 2024
김종석, 「한말 영남 유학계의 동향과 지역별 특징」 『국학연구』 4, 2004
김지은, 「영남학과 문인록을 통해 본 조선후기 문인집단의 확대와 변화」 『한국사상사학』 75, 2023
남재주, 「계당 류주목의 『全禮類輯』과 예설 교류」 『한국실학연구』 41, 2021
도민재, 「계당 류주목의 예학사상」 『퇴계학과 한국문화』 44, 2009
박소희, 「17~18세기 상주지역 남인·노론계 서원의 인적구성 분석」 『민족문화논총』 81, 2022
백도근, 「擬上六條疏를 통해 본 계당 류주목 선생의 사상」 『상주문화연구』 5, 1995
설석규, 「조선시대 영남유생의 공론형성과 柳道洙의 만인소」 『퇴계학과 한국문화』 44, 2009
송석현,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도남서원의 운영과 상주 사족의 동향」 『조선시대사학보』 79, 2016
_____, 「조선시대 상주지역 서원의 동향」 『민족문화논총』 81, 2022
송진현, 「19세기 후반 경상도 상주의 향촌문제와 동학농민전쟁」 『대구사학』 150, 2023
_____, 「동학농민전쟁기 경상도 소모사의 향촌안정책 시도와 성격」 『대구사학』 154, 2024
_____, 「19세기 말 경상도 상주 사회의 혼란과 맹제 정의목의 활동」 『동학학보』 73, 2025
신영우, 「1894년 영남 상주의 농민군과 소모영(上)」 『동방학지』 51, 1986
채광수, 「서원의 지식 네트워크 활동의 실제」 『한국서원학보』 12, 2021

인터넷자료

동학농민혁명사료아카이브(www.e-donghak.or.kr/archive)

<부록> 召募營幕下爬任記⁴⁵⁾

직임	본관	성명	비고	직임	본관	성명	비고
從事官	仁同	張承遠	前應教	掌財都監	晉州	鄭蘭時	幼學
	晉州	姜奭熙	幼學		昌寧	成益源	幼學
	順天	朴海祚	幼學		豐壤	趙南極	幼學
	昌寧	曹喜宇	幼學		昌寧	成橘	幼學
參謀	昌寧	成錫善	幼學		晉州	姜濬熙	幼學
	晉州	姜懋馨	幼學		晉州	鄭淵默	幼學
	延安	金寅秀	前都事		淸州	韓萬教	幼學
	韓山	李京稷	前參奉		延安	李炳宰	幼學
	晉州	柳海冕	進士		豐山	柳昌植	幼學
	延安	李炳葉	幼學		廣州	李容弼	掌財色吏
	礪山	宋基普	進士		慶州	李燭運	
贊畫	長水	黃甲周	進士		商山	朴時有	
	晉州	姜震馨	幼學		興陽	李時佐	幼學
	安東	權海均	進士		晉州	鄭東轍	幼學
	光山	盧性鶴	幼學	昌寧	成穢	幼學	
遊擊將	月城	孫永海	幼學	豐壤	趙南卓	幼學	
	蔚山	金爽中	幼學	韓山	李昊植	幼學	
	商山	朴明顯	一領官	昌寧	成植	幼學	
	晉州	姜進圭	二領官	安定	羅采正	幼學	
	延安	車載懺	三領官	延安	金喜秀	進士	
	商山	朴時絢	前哨長	晉州	姜心馨	幼學	
	商山	朴裕顯	後哨長	商山	金基夏	幼學	
	達城	徐鳳周	左哨長	商山	金直源	幼學	
典兵都監 藥丸派給 兼	商山	朴來洪	右哨長	慶州	李建榮	書記色吏	
	長水	黃復周	進士	晉州	姜德相		
	晉州	姜萬熙	幼學	商山	朴時範		
	牛峯	李斗用	進士	晉州	姜奉相		
	晉州	鄭守默	進士	從事官色吏	商山	朴性閔	
	昌寧	成震源	幼學	領官從事	商山	朴寅獻	
	全州	李起燦	幼學	哨長從事	商山	朴淑景	
	恩津	宋義洙	幼學	銃手領		金命業	
	商山	朴時容	典兵色吏			朴仁佑	
	延安	車箕權				崔仁伊	
商山	朴圭洪				申京五		
教練都監	晉州	姜進郁		병정 200			
	南陽	洪毅萬	幼學	계	75명 + 병정 200		
	晉州	姜運熙	幼學	幼學 37명 進士 8명 前職官僚 3명			
	昌寧	成錫五	幼學				
	延安	李秉禧	幼學				
	金海	金守永	教練執事				
咸甯	金圭燮						

45) 본 표는, 『소모사실』, 소모영막하파임기(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9(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8), pp.133-137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고부군수 조병갑의 관계망과 정치·사회적 기반 연구

장영진(원광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1. 머리말
2. 조병갑과 고부봉기
3. 조병갑의 관계망과 정치·사회적 기반
4. 맺음말

1. 머리말

본 연구는 동학농민혁명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고부군수 조병갑(趙秉甲)이 혁명 이후 정계로 복권될 수 있었던 정치·사회적 기반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9세기 지방관리의 부패와 수탈은 전국적인 현상이었으나 조병갑의 경우는 그 정도가 훨씬 심하였다. 그는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새 보를 쌓게 하거나 부친의 공적비를 세운다는 명목하에 세금을 징수하였다. 또한, 개항 이후 미곡 유출로 쌀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미곡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이를 고가에 판매함으로써 거액의 시세차익을 보았다.¹⁾

농민들은 두 차례에 걸쳐 학정의 중지를 호소하였지만²⁾ 조병갑은 도리어 농민대표를 붙잡아 처벌하였으며 수탈 또한 지속하였다. 농민들은 그의 임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893년 11월 조병갑은 익산군수로 발령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 1월 9일 고부군수에 재임명되었다.³⁾ 결국, 참다못한 농민들은 전봉준(全琫準)을 중심으로 봉기를 일으키게 된다.

고부봉기 직전 농민군 측 지도자들은 사전에 모여 사발통문을 작성해 거사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고부성을 점령하고 조병갑을 효수할 것, 둘째, 군기고와 화약고를 점령할 것, 셋째, 군수에게 아첨하여 인민을 침탈한 관리를 격징할 것, 넷째, 전주영을 전주감영을 함락하고 서울로 나아갈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발통문의 내용에서 보이듯이 농민군이 가장 우선적으로 여긴 목표는 조병갑을 목 베어 죽이는 것이었다. 농민군 측의 사발통문은 물론이고 조선과 일본 측의 사료에도 고부봉기의 원인으로 조병갑이 지목되었던 만큼 조병갑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조선정부는 그에게 일시적 처벌만을 내렸으며, 농민혁명 이후 주요 요직으로 복권시키기까지 하였다. 조병갑은 1895년 7월 사면 이후 1897년 12월 10일 법무 민사국장⁴⁾, 1898년 5월 23일 민사국장을 겸임함과 동시에 고등재판소 판사에 임용⁵⁾되어 같은 해, 6월 농민혁

1) '파계생'의 『전라도고부민요일기』에서 쌀값 폭등을 노려 이익을 얻었으며, 가혹한 세미 징수, 탐욕 등은 일본인이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의 학정을 상세히 저술하였다.('비서류찬조선교섭자료', 동학농민혁명 사료(史料)아카이브, <https://e-donghak.or.kr/archive/> (검색일 2025.06.01))

2) 1893년 11월 고부 농민들은 대표 40인을 선별하여 수세를 줄여 달라 진정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12월에는 고부 군민 60여명이 전라감사를 찾아가 조병갑의 탐학 시정을 비롯한 폐정 개선을 호소하였으나, 무시당하였다.(신순철·이진영, 『실록 동학농민혁명사』, 서경문화사, 1998, 45-46쪽.)

3) 『승정원일기』 제 3042책, 고종 31년 1월 9일.

4) 『승정원일기』 제 3091책, 고종 34년 12월 10일.

명을 이끌었던 동학 2대 교주 최시형(崔時亨)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농민혁명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그가 농민혁명 최고 지도자를 좌도난정(左道亂政)이라는 죄목으로 심판한 것이었다.

농민혁명은 조병갑의 학정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조병갑 개인의 문제만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당시 지방관의 수탈은 사회 구조적으로 허용되었던 제도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863년 고종(高宗) 즉위 이후 조정을 장악한 대원군은 안동김씨를 비롯한 세도가들을 숙청함으로써 세도정치는 일단락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10년 뒤 고종이 친정하면서 민비(閔妃)⁶⁾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세력이 형성되었다. 조정을 장악한 민비는 권력 유지를 위한 재정마련의 수단으로 매관매직은 물론이고 지방재정을 끌어다 중앙재정을 충당하기도 하였다.⁷⁾ 조정은 지방 관리의 학정을 통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들을 양산하며 관리의 수탈을 조장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병갑의 학정은 단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당시 조선사회의 구조가 빚어낸 결과물이었다.

기존 동학농민혁명 연구에서는 조병갑보다 그의 학정으로 인해 발생한 고부봉기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왔다.⁸⁾ 고부봉기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고부봉기의 정치사적 위상을 규명하고 농민혁명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밝혀냈다. 특히 봉기를 이끈 농민군의 조직, 지역사회의 동원 구조, 사건의 외교사적 파장 등을 분석함으로써, 고부봉기가 단순한 민란이 아닌 당시 정치·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 조병갑은 농민혁명이라는 큰 틀에서 부수적으로 언급되는 인물에 그쳤다. 조병갑을 단순한 탐관오리만으로 규정하고, 그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정치·사회적 기반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농민혁명 이후 조병갑이 복권될 수 있었던 정치·사회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승정원일기』, 『매천야록』, 『오하기문』, 『전라도고부민요일기』 등 농민혁명기 관련 1차 사료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사료들은 조병갑의 관직 이력, 당시 조병갑에 대한 사회 평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조병갑의 혈연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양주조씨족보」를 분석하여, 그가 속한 가문의 정치

5) 『승정원일기』 제 3097책, 고종 35년 5월 23일.

6) 통상적으로 알려진 '명성황후'라는 호칭은 사후 고종에 의해 황후로 추존되며 사용된 호칭이다. 본고에서 대한제국 선포 이전 행적을 살펴보기에 민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7) 신순철·이진영, 앞의 책, 14쪽.

8) 고부봉기에 주목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광래, 「전봉준의 고부·백산 기병」, 『나라사랑』 15, 외솔회, 1974; 정찰렬, 「고부민란연구 上, 下」, 『한국사연구』 48, 한국사연구회, 1985; 윤원호, 「19세기 고부의 사회경제」, 『전라문화논총』 7,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4; 이희권, 「동학농민혁명과 고부: 19세기 후반 고부(古阜)의 사회조직구조」, 『전라문화논총』 7,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4; 최기성, 「동학농민혁명과 고부: 19세기 후반 고부의 폐정실태」, 『전라문화논총』 7,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4; 박명규, 「동학농민혁명과 고부: 19세기 말 고부지방 농민층의 존재형태」, 『전라문화논총』 7,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4; 이진영, 「동학농민혁명과 고부: 19세기 후반 전라도 고부의 사회사상」, 『전라문화논총』 7,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4; 배항섭, 「1890년대 초반 민중의 동향과 고부민란」, 『1894년 농민전쟁 연구』 2, 역사비평사, 1995; 유영박, 「1890년대 고부군의 사회경제적 상황」, 『죽당 이현희교수 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죽당 이현희교수 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간행위원회발행일, 1997; 김재영, 「동학농민혁명 발생의 종교·사상적 배경 -발상지 전북 고부를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18, 한국신종교학회, 2008; 박대길, 「동학농민혁명의 시작, 고부봉기」, 『동학학보』 25, 동학학회, 2012; 성주현, 「사발통문의 재검토와 '고부기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3; 강효숙, 「동학농민전쟁에 있어 고부봉기의 위상-사발통문과 일본 측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3; 하우봉,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봉기의 위상」, 『전북사학』 50, 전북사학회; 황민호, 「정읍(高부)지역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쟁점과 과제」, 『인문학연구』 46, 숭실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17; 박대길, 「고부봉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역사와 교육』 29, 역사와교육학회, 2019; 성강현, 「고부동학농민혁명은 봉기인가, 기포인가」, 『동학학보』 70, 동학학회, 2024; 김영진, 「고부봉기에 관한 기존 성과와 과제」, 『동학학보』 70, 동학학회, 2024; 조극훈, 「고부봉기와 동학농민혁명의 상관성 연구」, 『동학학보』 70, 동학학회, 2024; 조재곤, 「고부농민항쟁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 『동학농민혁명 연구』 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4.

적 기반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당시 위정자들과 조병갑의 유착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디지털 장서각에서 소장 중인 민비의 언간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조병갑이 자행한 학정, 혁명 이후 복권될 수 있었던 기반을 분석함으로써 그가 단순한 탐관오리가 아닌 조선 후기 권력 구조와 깊게 연동된 인물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사건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인물사와 정치·사회 구조사의 통합적 분석이라는 학문적 시도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조병갑과 고부봉기

익산군수로 발령이 났던 조병갑은 1894년 1월 9일 고부군수에 재임명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월 10일 고부봉기가 일어났다. 이 일련의 과정만 보았을 때 조병갑의 고부군수 재임이 확정되자 분노한 고부 농민들이 우발적으로 일으킨 민란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고부봉기가 발생하게 된 정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조병갑이 고부군수에 재임명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93년 11월 30일 조병갑은 익산군수로 발령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부에 머물며 학정을 자행하고 있었다. 후임군수로 임명된 이은용(李垠鎔), 신재묵(申在墨), 이규백(李奎白), 하긍일(河肯一), 박희성(朴喜聖), 강인철(康寅喆) 등의 관리들은 신병을 핑계로 대고 고부군수직을 사임했으며⁹⁾, 전라감사 김문현(金文鉉)은 조병갑을 고부에 머물게 해 달라는 보고를 조정에 올리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걸쳐 결국, 조병갑은 고부군수에 재임명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당시 조선의 중앙정치 구조와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1866년 고종과의 가례를 계기로 조정의 입지를 장악한 민비는 고종 정권의 중심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고종의 정치적 동반자로서 그녀는 국정과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는데 이는 조카 민영소(閔泳韶)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확인된다.¹⁰⁾ 민비는 중앙관직을 비롯하여 지방관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인사 개입은 뇌물이 동반된 청탁 구조로 고착화되었다.

예컨대 “통위영 서리 일은 아뢰어 보겠다”, “강계에서 온 것은 자세히 보았으나 너무 과다하니 불안하고 요사이 재정이 매우 옹색하였는데 넉넉하게 썼다”, “변석운은 아뢰어 보아야 알겠으나 주사가 너무 많아 더러 줄인다 하시니까 아마 못 될 듯하다”, “안준옥은 제천현감으로 옮기고 정동기는 못 옮겼다. 네 형은 은진현감으로 하였다. 변번치 앓으나 아직은 갔다가 차차 옮기게 하는 것이 좋기에 그리하고 한산군수는 영월 부사로 하였다” 등 언간에서는 뇌물을 동반한 민비의 인사청탁 진행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¹¹⁾ 이처럼 민비는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각종 뇌물과 청탁을 수단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조병갑 역시 이러한 권력 관계망 구조의 수혜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9) 『승정원일기』 제 3041책, 고종 30년 12월 24일; 제 3041책, 고종 30년 12월 25일; 제 3041책 12월 27일.

10) 민비의 언간을 통해 그녀의 국정개입, 인사청탁의 실태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장영숙, 「명성황후의 국정개입 실태와 권력 행사 방식 연구-황후의 편지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 연구』 110, 2024.

11) ‘명성황후가 민영소에게 보낸 편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조선시대 한글편지(검색일 2025.0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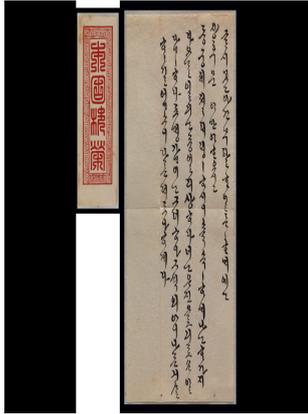


그림 1 「1892년 민영소에게 보낸 편지」 123
출처: 한국학 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 조선시대
한글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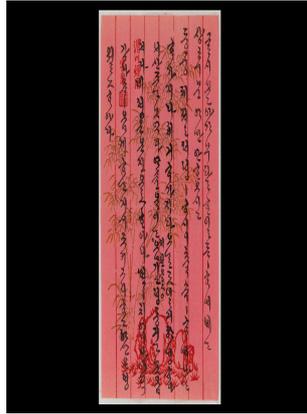


그림 2 「1892년 민영소에게 보낸 편지」 117
출처: 한국학 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 조선시대
한글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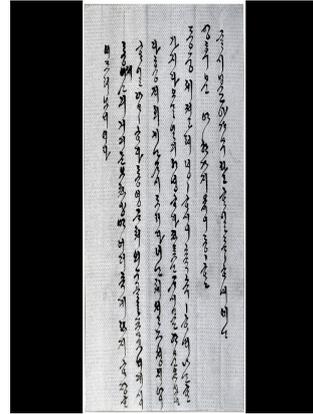


그림 3 「1892년 민영소에게 보낸 편지」 105
출처: 한국학 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 조선시대
한글편지

1892년 민비가 민영소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병갑이는 그러하나 그 색(色, 관직) 외에는 나 지 않아 다른 데로 하겠다”¹²⁾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조병갑은 1892년 4월 2일 기기국 위원으로 임명되었지만 26일 만에 고부군수로 임명되었다. 이 과정은 그가 인사 재배치 대상을 넘어 민비와 거래가 성사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892년과 1894년 두 차례에 걸친 조병갑의 고부군수 임명과정은 조병갑에 대한 조정의 정치적 고려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이렇듯 조병갑이 고부군에 집착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고부군의 지리적 이점, 농업생산량과 관련해 살펴볼 수 있다. 전라도는 비옥한 평야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곡창 생산 중심지로 발달하였는데 그중 고부군은 수산 자원이 풍부한 연안 지역이자 해상과 내륙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발달한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자연·지리적 조건은 미곡 운반과 조세 징수에 있어 매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1899년 편찬된 『호남읍지』에 명시된 고부군의 경지면적, 조세액수 등을 전라도 군과 비교하였을 때 다음의 [표1]과 같다.¹³⁾

12) 언간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시 보고 야간 무탈한 일 든” 하며 예는/상후 문안 만안호시오/동궁 제절 티평” 하시니 축슈” 하며 나는 험가지/다 오늘 일기는 종일 괴상하다 너는 은진으로 괴로운 일/답” 하다 조병갑이는 그러하나 그 식의 아니 나든 거술/홀길 업스니 다른 디로나 하게다 (‘명성황후가 민영소에게 보낸 편지’, 한국학 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 조선시대 한글편지(검색일 2025.06.16.))

13) [표1]의 군 순서는 대전회통에 명시된 순을 따른 것이다.

[표1] 1899년 『호남읍지』에 기록된 전라도 12개 군의 경지면적과 조세액수.¹⁴⁾

순서	군	경지면적	경지에 부과된 조세 ¹⁵⁾	1결당 조세량
1	보성	총면적: 7,095결 32부 한전: 3,173결 61부 4속 수전: 3,921결 70부 6속	총합: 1,527석 2두 7승 5합 세태: 463석 11두 3승 3합 세미: 1,062석 11두 4승 2합	0.2152석
2	익산	총면적: 4,474결 30부 6속 한전: 1,783결 60부 3속 수전: 2,690결 70부 3속	총합: 845석 8두 4승 4합 세태: 175석 10두 2승 2합 세미: 669석 8두 2승 2합	0.1891석
3	고부	총면적: 8,819결 86부 한전: 3,110결 78부 2속 수전: 5,709결 7부 8속	총합: 1,592석 1두 5승 1합 세태: 365석 2두 1승 8합 세미: 1,226석 9두 3승 3합	0.1806석
4	영암	총면적: 12,013결 5부 2속 한전: 5,886결 2부 2속 수전: 6,127결 3부	총합: 2,285석 2두 3승 3합 세태: 662석 4두 7승 7합 세미: 1,622석 7두 5승 6합	0.1903석
5	영광	총면적: 7,394결 59부 8속 한전: 3,469결 54부 6속 수전: 3,925결 5부 2속	총합: 2,118석 7두 7승 4합 세태: 882석 6두 5승 6합 세미: 1,236석 1두 1승 8합	0.2866석
6	진도	총면적: 2,664결 54부 5속 한전: 1,322결 77부 수전: 1,341결 77부 5속	총합: 886석 3두 8승 1합 세태: 429석 11두 9승 9합 세미: 455석 11두 8승 2합	0.3326석
7	낙안	총면적: 2,523결 33부 3속 한전: 574결 7속 수전: 1,949결 32부 6속	어란, 조개와 같은 건어물 진상	미상
8	순창	총면적: 6,042결 2부 6속 한전: 3,240결 25부 수전: 2,801결 77부 6속	총합: 1,542석 4승 8합 세태: 450석 7두 6승 8합 세미: 1,090석 12두 8승	0.2553석
9	금산	총면적: 4,776결 82부 8속 한전: 3,058결 32부 6속 수전: 1,718결 50부 2속	총합: 881석 2두 9승 1합 세태: 503석 6두 5승 3합 세미: 377석 6두 3승 8합	0.1845석
10	진산	총면적: 1,146결 87부 9속 한전: 840결 41부 1속 수전: 306결 46부 8속	총합: 234석 1두 9승 6합 세태: 148석 14두 5승 1합 세미: 84석 7두 4승 5합	0.2042석
11	김제	총면적: 10,459결 44부 7속 한전: 4,653결 63부 7속 수전: 5,805결 81부	총합: 1,796석 9두 3승 세태: 224석 1두 세미: 1,572석 8두 3승	0.1718석
12	여산	총면적: 4,437결 89부 9속 한전: 1,722결 13부 수전: 2,715결 76부 9속	총합: 944석 7두 9승 5합 세태: 192석 5두 6승 3합 세미: 752석 2두 3승 2합	0.2129석
13	총계	83,579결 64부 3속	13,650석 9두 1승 8합	0.1634석

위의 [표1]을 통해 전라도 12개 군의 각 조세량이 평균 조세량을 상회하는 조세 부담을 지고 있었음 파악할 수 있다. 고부군은 12개 군 가운데 경지면적, 조세 부담 등에서 모두 상위

14) 『호남읍지』, 디지털장서각, https://jsg.aks.ac.kr/dir/view?dataId=JSG_K2-4336(검색일 2025.06.14)

15) 세태와 세미 이외에도 삼수미나 대동세와 같은 조세가 존재하나 각 군마다 조정에 상납하는 물품이 다르기에 본 표에서는 12개 군에서 공통적으로 상납하는 세태와 세미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권에 속하였다. 면적은 10.5%에 해당되는데 이는 영암(14.38%), 김제(12.52%) 다음이었고, 조세 부담은 약 11.7%였으며 영암(16.75%), 영광(15.53%), 김제(13.16%) 다음으로 높은 수치였다. 이러한 통계 분석을 통해 고부군이 단순히 경지면적이 큰 지역일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높은 조세 부담을 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당시 농민층에게 가해진 경제적 압박이 심각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개항기의 고부군수를 지낸 이수은(李秀殷)은 세목을 조작하여 무명잡세 명목으로 농민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였으며, 그 수탈 금액은 총 3만 2000냥에 달했다.¹⁶⁾ 조병갑 역시 농민들을 대상으로 수탈을 자행하였는데, 『전봉준공초』에서 밝혀진 그의 학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보를 허물고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임금도 주지 않고 새 보를 만든 다음 농 들에게서 수세로 조 700여 석을 거두었고, 보를 쌓으면서 개인의 산에 있는 수백 년 된 나무를 마음대로 베어다 썼다.
2. 태인현감을 지낸 자기 아버지 조규순의 공적비를 세운다며 고부 농민들로부터 1,000여 냥을 빼앗았다.
3. 돈 가진 자들을 불효, 불목, 음행, 잡기 등 갖가지 죄목으로 엮어 가둔 후 속전을 받고서야 풀어 주었는데, 그렇게 거둔 돈이 20,000여 냥이었다.
4. 개간한 땅은 얼마간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문서를 써 주고서도 개간한 해부터 세금을 거두었다.
5. 세미로 1결에 정백미 16두씩의 대금납을 받고 정부에는 나쁜 쌀을 사서 1결에 12두씩 보내어 그 남은 금액을 고스란히 자신이 챙겼다.¹⁷⁾

앞서 본 [표1]의 통계에서 고부군이 전라도 내 경지면적과 조세 부담에서 상위권에 위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높은 조세 부담은 조병갑과 같은 지방 수령들의 과도한 수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전봉준공초』에서 밝힌 조병갑의 세미 수납 과정은 조세 수취의 모순과 부패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고부 농민들이 겪었던 고통과 착취가 단순 불공정한 조세제도의 문제뿐만이 아닌 수령의 부당한 행정 운영과 직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것 외에도 일본 첩자 ‘과계생’이 일본 참모본부에 올린 『전라도고부민요일기』에서는 조병갑의 학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저술하였다.

“동학당의 소요는 본래 고부군의 민란으로부터 변진 것인데, 오늘에 와서는 마치 고부민란을 동학당이 일으킨 꼴이 되어 있다. …… 군수는 함경도 방곡령으로 유명한 조병식(趙秉式) 씨의 조카로 성은 조(趙)요, 이름은 병갑(丙甲)이다. 이 나라 내정이 극도로 문란해진 것은 소위 공(公)을 빙자하여 사욕을 채우는 일 때문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그 가혹한 세금과 잘못된 정치는 실로 우리 일본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터이다. 다음에 조병갑의 실정에 관한 한두 가지의 소문을 기록하겠다. 지난 가을 이 지방은 풍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병갑은 방곡령을 선포하고 측근을 시켜 미곡을 많이 사들였다가 쌀값이 폭등할 때를 노려 이를 방매해 순식간에 많은 이익을 얻었다. 또 세미(稅米)를 징수할 때에도 극악무도한 짓을 하여 작년 10월경 민심이 적잖이 불온하였다. 같은 해 9~10월경 승려로 하여금 벽보를 배부하게 하고 보수를 건넸다는 소문이 있다. 또 수리관개를 빙자하여 하천에 보를 막아 밭마다 수세를 강제로 징수한 일이 있어 이 또한 민원(民怨)을 산 가장 큰 원인이 된 것 같다.”¹⁸⁾

16) 『승정원일기』 제 2851책, 고종 15년 6월 16일.

17) ‘전봉준공초’, 동학농민혁명 사료(史料)아카이브, <https://e-donghak.or.kr/archive/> (검색일 2025.06.01)

18) ‘비서류찬조선교섭자료’, 동학농민혁명사료(史料)아카이브, <https://e-donghak.or.kr/archive/> (검색일 2025.06.01)

이 같은 조병갑의 수탈은 민심의 극심한 분노를 불러왔고, 결국 농민봉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일찍이 고부 농민들은 1893년 11월 전봉준을 중심으로 학정의 중지를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탄압을 당하였다. 12월 재차 전라감사 김문현에게 등소하였지만 관은 이를 묵살하였다. 더 이상 지방관에게 공명을 기대할 수 없었던 농민들은 ‘사발통문’을 작성함으로써 기존의 민란과는 다른 봉기계획을 구상하기에 이른다.

사발통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부봉기가 단순·우발적 민란이 아닌 전국적 차원의 봉기를 지향하며 계획되었음을 시사한다.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 지도부는 이전의 민란과는 다른 군수살해, 감영 점령과 서울 진격 등의 계획은 고부봉기 계획단계에서부터 기존의 농민봉기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비록 조병갑의 익산군수 발령으로 사발통문의 계획은 실행되지는 못하였으나 중단된 것은 아니었다. 전술하였듯, 조병갑은 익산군수로 발령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부에 머문 채 학정을 지속하였으며 그를 대신할 후임 군수들은 연이어 사임하였다. 끝을 알 수 없는 그의 학정은 고부 농민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었으며 이에 따라 고부 내부에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조병갑을 몰아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게 된다. 즉, 사발통문의 계획은 중단된 것이 아닌 시기 조절을 거쳐 고부봉기로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농민봉기의 원인은 수령의 가렴주구였다. 농민봉기가 발발하기 이전이었던 1892년, 1893년 동학교도들이 주축을 이룬 집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들의 탐학이 지적되었으며 고종 역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¹⁹⁾ 그러나 고종은 원인 해결 대신 무력을 동원한 강경 진압을 택하였다. 사회,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는 대신 강경 진압을 택한 배경은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농민군 측에서 제시한 폐정개혁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시 정부 구조가 바뀌어야만 했다. 탐관오리 처벌, 삼정의 개선, 무명잡세 폐지, 대원군의 국정 참여 등을 담고 있는 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은 고종의 권력 구조와 충돌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고종은 체제 개혁보다는 자신의 권력 유지를 우선하였고 그 권력의 기반이었던 민비를 선택하였다.

민비의 언간을 통해 조병갑이 고부군수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민비와의 정치적 거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1]에서 보여지듯이 고부군은 전라도 내에서 손꼽히는 곡물 생산지였으며 조병갑이 이와 같은 요직에 두 번이나 임명된 것은 그가 당시 위정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고부군수 재임명과정에서 여섯 명이나 되는 관리들이 고부군수직을 사임하였으며, 전라감사가 조병갑의 재임명을 조정에 보고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고부군에서의 수탈을 통해 쌓아온 자본이 단순 재산을 축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치적 관계망을 구축하는데 활용된 정치 자본으로 기능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정치자본 및 관계망과 함께 혈연과 같은 전통적 관계망을 중심으로 조병갑이 조선의 권력 구조에 진입할 수 있었던 기반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조병갑의 관계망과 정치·사회 기반

전술하였듯이 동학농민혁명의 직접적 원인은 조병갑의 탐학 때문이었다. 황현은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9) 『승정원일기』 제 3045책, 고종 31년 4월 18일.

“지금 생각해보면, 삼남 지방에 민란이 일어나고 동학이 반란을 일으켜, 청·왜가 연이어 군대를 몰고 와 천하고 동요되고, 종묘사직이 뒤흔들릴 만큼 긴박한 상황이 조성되었던 것은 모두 저 몫을 조병갑 한 놈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아 이러한 일은 시대 때문인가. 운수 때문인가. 비록 그놈의 고기로 제사지내고 그 가죽을 벗긴다 해도 어찌 보충할 수 있겠는가.”²⁰⁾

이 같은 과격한 표현은 조병갑이 당시 사회에 끼친 해악이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는 농민혁명이 진압된 이후 석방되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정계에 복귀하기까지 하였다. 조병갑의 복권은 조선 후기 정치구조인 위정자들과의 관계망이 작동하는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는 조선 후기의 정치 질서와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물로 이 구조적 맥락을 통해서 그의 권력 기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조병갑의 본관은 양주로 영조 대에 복권된 조태채(趙泰采)의 직계 후손이다. 조태채는 경종대 신임옥사(辛壬獄事)의 여파로 관직에서 축출되었지만, 영조 대에 복권을 통해 불천위에 지정되면서 가문의 위상을 다시 세웠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복권을 넘어, 정국의 변화가 개인의 관직과 가문의 명예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²¹⁾ 조태채의 직계 후손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료를 배출하며 영향력을 유지했다. 조병갑의 부친 조규순(趙奎淳)은 진사로 입신한 후 태인군수와 호조참판을 지냈으며, 큰아버지 조두순(趙斗淳)은 대원군 집권기 동안 영의정을 지낸 실권자였다. 사촌 조병식(趙秉式)은 충청도 관찰사, 형조참판,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등 요직을 역임하며 대외관계에서 중책을 맡은 고위 관료였다. 조병갑의 친인척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조병갑의 친인척 관계

조병갑과의 관계	이름	주요 직위 및 특징
육대조	조태채	신임옥사로 축출 → 영조 대 복권, 불천위 지정, 가문 명예 회복
부친	조규순	진사, 태인군수, 호조참판
백부	조두순	영의정 (대원군 집권기 측근으로 활동)
사촌	조병식	충청도 관찰사, 형조참판,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대외외교·행정 중책 담당)

혼인 관계 또한, 그의 정치적 기반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병갑은 두 번의 혼인을 하였다. 첫 번째 처는 이병문(李秉文)의 딸이었다. 이병문은 1848년 증광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뒤 관직에 진출하였는데, 1864년 충청도감사, 1867년 이조참판 등을 거쳐 1870년에 종2품 대사헌에 올랐다. 두 번째 처는 심영규(沈永奎)의 딸이다. 심영규는 1829년 정시 무과에 병과 29위로 급제하였고 1864년 수원중군으로 임명되어 병졸단속, 도적체포 등에 힘써 1867년 정3품 전라좌도수군절도사에 임명되었다. 위 관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3]과 같다.

20) 황현 지음, 김종익 옮김, 『오동나무 아래에서 역사를 기록하다: 황현이 본 동학농민전쟁』, 역사비평사, 2016, 235-236쪽.

21) 한상우, 「정치적 선택이 불러온 친족의 분화 -양주조씨의 선택과 분화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103, 조선시대사학회, 2022, 167쪽.

[표3] 조병갑의 혼인 관계

조병갑과의 관계	성(姓)	부(父)	부친의 주요 직위 및 특징
전처	이씨(전주 이씨)	이병문	예조판서, 전라도관찰사, 이조참판 등을 역임
후처	심씨(청송 심씨)	심영규	전라좌도수군절도사

조선 사회에서 혈연은 권력 기반의 핵심으로 기능하였으며, 조병갑 역시 이러한 관계망의 중심에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해갔다. 이와 같은 가문 배경과 혈연적 연계를 바탕으로 조병갑은 비(非) 과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승진을 거듭한 끝에 지방 군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조병갑이 고부군수로 부임하던 시절 전라도 12개 군의 군수로 부임한 이들을 살펴보면 다음 [표4]와 같다.²²⁾

[표4] 1892.4.28.~1894.1.9. 전라도 12개 군의 군수 명단

지역	이름	재임기간	전직	과거 합격 여부
보성군수	유원규(柳遠奎)	1893.10.28.~1894.07.19.	진안현감(鎭安縣監)	x
익산군수	김택수(金澤秀)	1892.12.10.~1893.10.28	함평현감(咸平縣監)	x
고부군수	조병갑(趙秉甲)	1892.04.28.~1893.11.30.	기기국위원(機器局委員)	x
영암군수	민관식(閔權植)	1893.10.10.~1894.07.19.	진천현감(鎭川縣監)	1892년 임진(壬辰) 별시3(別試3) 병과(丙科) 3위
영광군수	민영수(閔泳壽)	1893.02.24.~1894.04.16.	경주부윤(慶州府尹)	1882년 임오(壬午) 별시(別試) 병과(丙科) 8위 1882년 임오(壬午) 증광시(增廣試) [진사] 3등(三等) 88위
진도군수	미상	.	.	.
낙안군수	신병우(愼炳佑)	1892.10.17.~1894.07.14.	병조참의(兵曹參議)	1870년 경오(庚午) 식년시(式年試) 갑과(甲科) 3[探花]위
순창군수	이성렬(李聖烈)	1892.08.21.~1894.10.10	좌부승지(左副承旨)	1888년 무자(戊子) 별시(別試) 병과(丙科) 27위
금산군수	민영숙(閔泳肅)	1892.10.09.~1894.03.19.	공조참의(工曹參議)	x
진산군수	이승기(李承紀)	1891.07.29.~1894.04.19.	천안군수(天安郡守)	x
김제군수	윤필구(尹泌求)	1893.10.23.~1894.09.14.	강원도양양부사(襄陽府使)	x
여산군수	미상	.	.	.

22) 표4의 순서는 대전회통 순서

[표4]를 보면 10명의 군수 가운데 오직 네 명만이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였다. 나머지 여섯 명은 비(非) 과거 출신이며, 이들 가운데 두 명은 민씨 척족, 민비와 접점이 있는 인물들이다.²³⁾ 한편, [표1]의 『호남읍지』에 명시된 전라도 12개 군의 경지면적과 [표4]의 군수 명단을 대조해보면 12개 군 가운데 상위권에 속한 고부, 영암, 영광지역에 민비 측 인물들이 군수로 임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경제적 가치가 높았던 지역일수록 민비 측 인물들이 배치되었음을 시사한다.

조병갑의 관직 임명기사를 살펴보면 당시 관직 인사의 성격과 정치적 배경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조병갑의 관직 임명기사는 다음 [표5]와 같다.

[표5] 『승정원일기』 조병갑 관직 임명기사

순서	임명 날짜	관직명	비고
1	1865년 5월 1일	검검서관	
2	1871년 6월 20일	의금부 도사	
3	1872년 12월 7일	인의	
4	1874년 2월 22일	사포서 별제	
5	1874년 3월 22일	검검서관	
6	1874년 7월 4일	사포서 별제	
7	1874년 7월 12일	인의	
8	1876년 3월 23일	제용감 주부	
9	1877년 7월 26일	예산 현감	
10	1882년 3월 16일	비안 현감	
11	1882년 10월 23일	천안 군수	
12	1885년 4월 15일	보성 군수	
13	1886년 5월 2일	함양 군수	
14	1887년 6월 18일	김해 부사	
15	1889년 1월 7일	영동 현감	동년 4월 7일 신병을 핑계로 영동 현감 부임을 거절하자 고종은 고부 군수와 직책 변경 하달.
16	1892년 4월 2일	기기국 위원	
17	1892년 4월 28일	고부 군수	
18	1893년 11월 30일	익산 군수	1894년 1월 9일 조병갑을 장부 처리를 사유로 고부 군수 재임명
19	1897년 12월 10일	법부 민사국장	
20	1898년 5월 23일	법부 민사국장 고등 재판소예비판사	6월 1일, 최시형에게 사형선고
21	1898년 6월 24일		의원면직
22	1904년 5월 8일	비서원승	
23	1904년 5월 9일		의원면직

23) 과거를 본 기록이 없는 거지, 단언할 수는 없음. 천거인지 뭔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다.

『승정원일기』에서 보인 그의 관직경력을 살펴보면 중앙관직을 두루 거쳐 지방 수령으로까지 승진하였다. 검검서관²⁴⁾, 의금부 도사²⁵⁾, 인의²⁶⁾, 사포서 별제²⁷⁾, 제용감 주부²⁸⁾ 등 다양한 직책을 역임하다가 1877년 예산현감 임명을 시작으로 고부봉기 이전까지 지방 군수직에만 임명된다. 1892년 4월, 기기국 위원으로 임명되었으나 26일 만에 고부군수로 발령된다. 이 시기 민비의 언간에서 조병갑의 이름이 언급된 점. 그리고 당시 전라도에서 농업생산력이 높았던 지역에 민비 측 인물들이 임명된 것을 고려하면 조병갑의 고부군수 임명에 민비가 관여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1893년 11월 익산군수로 발령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부의 미처리 업무’를 이유로 자리를 유지했고, 이는 조정이 그를 여전히 중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고부 농민들의 항쟁은 결국 조병갑의 탐학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고 의금부는 사태의 책임자로 조병갑을 지목하였다. 고종 역시 그의 체포를 명령하고 끝내 유배형을 선고하게 된다. 그러나 조병갑은 농민혁명이 진압된 해에 사면되었으며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이후 다시 복권된다. 그는 법부 민사국장으로 임명되고, 고등재판소 예비판사를 겸임하며 1898년 6월에는 동학 2대 교주 최시형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혁명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혁명의 지도자를 처벌함으로써 체제의 복원을 상징하는 인물이 된 것이다. 이러한 장면은 동학농민혁명의 좌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조병갑은 시대 구조와 권력 작동 과정에서 등장한 인물이었다. 조병갑의 복권은 개혁이 아니라 구체제의 재생산이었고 동학농민혁명이 요구한 폐정개혁의 정반대 지점에서 이루어졌다. 수령직이 단명하는 상황 속에서 권력자들은 짧은 임기 안에 최대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이 과정은 부패의 고착화와 민란의 원인을 동시에 낳았다. 조병갑은 바로 이 구조적 병폐가 한 개인을 통해 압축적으로 드러난 대표적 사례였다.

따라서 조병갑을 단순히 탐관오리로서만 이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는 권력 구조와 사회 제도의 복합적 산물이며 조선 말기 정치 질서의 모순과 연속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가 동학농민혁명의 원인을 제공한 동시에, 혁명이 진압된 후 법부 고위직에 복귀했다는 사실은 혁명의 목표와 반대로 권력이 되돌아갔음을 의미하며 이를 가능케 했던 것은 그를 둘러싼 관계망이 작동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생애는 구조적 모순과 권력의 연속성을 보여줌과 동시대 지배질서가 어떻게 민중의 요구에 저항하며 스스로를 재생산했는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사례다.

24) 조선 후기 규장각에 정원 외로 두었던 관직. 규장각의 검서관 4인은 임기 30개월을 채우면 전임시켰는데, 그 중 2인을 홍문관에서 임의로 선임하여 검검서관으로 호칭하고 무반의 직함 즉 서반체아직(西班遞兒職 : 현직을 떠난 무신을 예우하기 위하여 만든 관직)을 주도록 하였다. 이는 규장각에 직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녹봉을 주기 위한 방편이었다.

25) 조선시대 의금부(義禁府)에 두었던 종육품(從六品) 관직으로 정원은 5원이다. 의금부도사는 수령에 제수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으며, 의금부도사로 임명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음직으로 벼슬길에 오른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26) 국가 의례를 관장하였던 예조 소속 관서인 통례원의 종6품 관직.

27) 왕실 소유의 원포(園圃)와 채소재배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사포서의 6품 관원.

28) 왕실에 필요한 의복이나 식품 등을 관장한 관서.

4. 맺음말

조병갑은 탐관오리이자 동학농민혁명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로만 한정하기에는 다층적인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가 고부군수로 부임하면서 자행한 학정은 농민층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왔고,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대규모 민중 항쟁을 촉발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동시대 지식인 매천 황현조차도 조병갑을 '망국의 원흉'으로 규정할 만큼 뿌리 깊은 악명을 남긴 상징적 인물이다.

그가 관직에 복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관료 사회의 인사 제도와 권력 관계망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양주조씨의 명문가 출신이었던 그는 태생적으로 정치적 보호막을 갖춘 인물이었다. 부친 조규순, 큰아버지 조두순, 사촌 조병식 등은 당대의 유력 관료들로서 그가 수차례의 행정적 실책과 부정부패에도 불구하고 관직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되었다.

조병갑의 복귀는 조선 후기 관료 체제가 도덕성, 공정성을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조정은 조병갑의 부패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배라는 일시적 조치를 택했다. 더욱이 대한제국기 법무 민사국장 및 고등재판소 판사로서의 조병갑의 복귀는 단지 한 개인의 권력 회복을 넘어서, 당시 신설된 근대적 법제도의 운영이 여전히 구시대적 인맥 정치와 분리되지 않았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사실은 조병갑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탐관오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는 조선 말기 정치구조의 허점, 관료제의 불투명한 인사 시스템, 명문가 출신 엘리트들의 권력 독점 등 구조적 모순이 낳은 산물이다. 조병갑 개인의 윤리적 문제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그가 어떠한 구조 속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복귀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일은, 조선 후기 지배 체제의 작동 방식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조병갑의 사례는 19세기 후반 조선 사회가 단순히 외세의 침탈로만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구체제의 권력 구조의 모순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탐관오리에 대한 민중의 분노는 단순한 불만의 분출이 아니라, 체제 전반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저항을 촉발한 인물이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지배층이 민중이 요구한 개혁에 응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조병갑은 그 자신이 동학농민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음에도 그 혁명의 목적과는 반대되는 체제 회귀의 상징으로 기능한 인물이다. 그의 사례는 조선 후기의 정치·사회적 모순이 어떻게 인물의 경력을 통해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대한제국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병갑의 관계망과 정치·사회적 기반에 대한 분석은 단지 한 개인의 흥망성쇠를 넘어서, 조선 후기 사회가 처한 위기와 그 구조적 병폐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문헌

1. 사료

- 『고종실록(高宗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양주조씨족보(楊州趙氏族譜)』
『전봉준공초(全琫準供草)』
『명성황후언간(明成皇后諺簡)』

2. 단행본

- 박종인, 『매국노 고종: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군주』, 와이즈맵, 2020.
박맹수, 『개벽의 꿈, 동아시아를 깨우다』, 모시는 사람들, 2011.
 , 『생명의 눈으로 보는 동학』, 모시는 사람들, 2014.
장영숙, 『망국의 군주, 개혁군주의 이중성: 고종의 인사정책과 리더십』, 역사공간, 2020.
 , 『고종의 정치사상과 정치개혁론』, 선인, 2010.

조경달, 『이단의 민중반란: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그리고 조선 민중의 내셔널리즘』, 박맹수
 옝김, 역사비평사, 2008.
신순철·이진영, 『실록 동학농민혁명사』, 서경문화사, 1998.
황현, 『오동나무 아래에서 역사를 기록하다: 황현이 본 동학농민전쟁』, 김종익 옝김, 역사
 비평사, 2016.
 , 『매천야록: 지식인의 눈으로 본 개화와 망국의 역사』, 허경진 옝김, 서해문집, 2006

3. 논문

- 장효숙, 「동학농민전쟁에 있어 고부봉기의 위상-사발통문과 일본 측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3.
김태용, 「1894년 농민군 진압자의 정국인식과 정치적 행로의 분기 - 『갑오군공록』
 등재자를 중심으로 -」, 『역사교육』 153, 역사교육연구회, 2020.
김성혜, 「고종시대 군주권 위협 사건에 대한 일고찰」, 『한국문화연구』 18,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0.
박대길, 「동학농민혁명의 시작, 고부봉기」, 『동학학보』 25, 동학학회, 2012.
손병규, 「조선후기 지방재정 구조와 지방재정 운영-재정 중앙집권화와의 관계-」
 , 『조선시대사학보』 25, 조선시대사학회, 2003.
이상협, 「조선후기 지방행정에 있어서 수령의 역할과 부패 유발구조」,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 한국지방자치학회, 2002.
 , 「조선후기 지방인사행정체계와 수령의 위상 - 부패유발요인을 중심으로 -」,
 『동방학』 8, 한서대학교동양고전연구소, 2002.
이상협, 정건석, 「조선후기 지방재정의 위기 요인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9,
 한국지방재정학회, 2004.

- 임민혁, 「한말 남거 장호진의 근왕적 삶의 여정」, 『청계사학』 19, 청계사학회, 2004.
- 오영섭, 「고종 측근 심상훈과 제천지역 의병운동의 연관관계」, 『한국 근현대사 연구』 35, 한국근현대사학회, 2005.
- 조재곤, 「고부농민항쟁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 2024.
- 장영숙, 「대한제국기 고종의 정치사상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51, 한국근현대사학회, 2009.
- , 「명성황후의 국정 개입 실태와 권력 행사 방식 연구-황후의 편지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 연구』 110, 2024.
- , 「고종과 대원군의 정치적 갈등과 명성황후」, 『승실사학』 49, 승실대학교역사문화연구소, 2022.
- 장희홍, 「동학농민혁명기 조선 정부의 농민군 진압과정과 지방관에 대한 대책」, 『동학연구』 20, 한국동학학회, 2006.
- 조극훈, 「고부 봉기와 동학농민혁명의 상관성 연구」, 『동학학보』 70, 동학학회, 2024. 하우봉,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봉기의 위상」, 『전북사학』 50, 전북사학회, 2017
- 한상우, 「정치적 선택이 불러온 친족의 분화 -양주조씨의 선택과 분화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103, 조선시대사학회, 2022.

4. 기타

-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 (<https://e-donghak.or.kr/archive/>)
- 양주조씨대종회 (<http://xn-vk1b875a8ia41hcd25au37e.com/>)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 한국학진흥사업성과포털 (<http://waks.aks.ac.kr/>)
- 디지털장서각한국고문서자료관(<https://archive.aks.ac.kr/letter/letter.do>)

답사 유적지 소개

1. 정읍 전봉준 유적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이평면 조소리 1길 20(장내리))



동학농민혁명 시기 전봉준이 거주했던 집이다. 1894년 고부농민봉기 당시 안핵사 이용태가 불을 질렀으나 불에 완전히 타서 없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후 1974년 정읍군에서 국비와 군비를 들여 보수했는데, 이때 “戊寅 2月 二十六日”이라는 상량문이 발견되어 1878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전봉준은 천안 전씨가 여러 대에 걸쳐 대대로 살았던 고창현 죽림리 당촌(현재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당촌)에서 1855년 12월 3일 태어나 13살 무렵까지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고부군 남부면, 전주군 봉상면, 태인현 감산면, 태인현 동곡리 지금실 등지로 옮겨 다녔다. 전봉준 공초에는 “태인(泰仁)에 거주하다가 고부(古阜)로 이주(移住)한 지 수년(數年)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해방 이후 촌로들이 증언을 기록한 것에 따르면 태인에서 고부 궁동면 양교리로 이사했다가 다시 이곳 조소리로 옮겨와 살았다는 증언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서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2. 부안 백산성 (전북특별자치도 백산면 용계리 산 8-2)



백산은 현재 행정구역상 전북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에 속하지만 1894년 당시에는 고부군 소속이었다. 백산은 해발 47미터에 불과한 낮은 야산이지만 평야지대 한 가운데 자리한 까닭으로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김제만경 너른 들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나아가 이곳은 화호 나루터를 끼고 있어서 당시 부안·김제·고부·태인 등지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이자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1894년 3월 20일(음력) 무장에서 무장포고문을 공포하고 북상한 동학농민군은 사흘 후인 23일 고부관아를 다시 점령하였다. 다시 사흘 후인 4월 26일(양력 5. 1.) 백산으로 진출하여 대회를 가졌다. 이를 백산봉기 혹은 백산대회라고 칭한다. 무장에서 출발할 때 동학농민군의 숫자는 4천 여명이었는데 이곳에서는 7~8천 명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백산에 모인 동학농민군은 이곳에 호남창의대장소(湖南倡義大將所)를 설치하고 총대장 전봉준, 총참모 김덕명, 양관령 손화중, 김개남, 영술장 최경선, 비서 정백현 등으로 조직을 확대·개편하였다. 이때 전라도는 물론 충청도 일부 농민들까지 합세하였다. 당시 이곳에 많은 농민들이 흰옷에 죽창을 들고 모여들어 “얹으면 죽산(竹山)이요 서면 백산(白山)”이라는 유명한 말이 회자되었다.

3. 손화중 묘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상평동 산 134(음성동 마을))



손화중의 본관은 밀양이며, 이름은 정식(正植), 화중(華仲)은 자이며, 호는 초산(楚山)이다. 1861년 6월 22일(음력) 정읍 과교리(현 정읍시 과교동)에서 출생했으며, 처남 유용수와 함께 경상도 청학동에 갔다가 동학에 입교하였다. 손화중은 선운사 도솔암 암벽불상에 있다는 김단대사와 비결록을 꺼냈다는 데서 신비의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전봉준, 김개남, 김덕명, 최경선등과 함께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었다.

손화중은 전주화약 이후 나주와 장성 등지에서 활동했으며 동년 7월에 있는 나주성 전투에서는 최경선이 거느리는 동학농민군과 함께 주력부대를 이루었다. 9월 봉기 때에는 일본군이 나주 해안으로 상륙한다는 설이 있어 북상에 참가하지 않고 최경선과 함께 나주에서 대비하였다. 1894년 11월 공주패전 후 나주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태인전투를 최후로 대세가 재기 불능에 이르자 11월 27일 광주에 입성한 후 12월 1일에 동학농민군을 해산시켰다. 그 후 몸을 피해고창군 부안면 안현리 이모씨의 재실에 있다가 체포 당한 뒤, 1895년 3월 29일(양력 4.23) 교수형에 처해져 35세의 나이로 최후를 마쳤는데, 시신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 묘는 빈묘로 1996년 후손 손홍렬 등이 조성하였다. 비문은 1997년 2월 세웠으며, 당시 갑오동학혁명계승사업회 회장 최현식이 지었다.

1996년 후손에 의해 조성된 묘역에는 돌레석을 두른 봉분,제단, 비석 등이 세워져 있다. 묘소 앞 좌우에는 문인석이 배치되어있다. 묘 입구에는 <동학농민혁명지도자 손화중 장군 묘> 안내문이 설치되어있고, 묘소 오른 쪽 앞에는 <갑오총령밀양손공화중선생지묘(甲午摠領密陽孫公華仲先生之墓)>라고 쓰여진 비석이 서있다.

4. 손화중 생가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과교동 289)



손화중(孫華仲)은 1861(철종 12)년 6월 당시 정읍현 남일면 과교리(南一面 科橋里, 현 정읍시 과교동)에서 부친 손호열(孫浩烈)과 모친 평강 채씨(蔡氏)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밀양이다. 이름은 정식(正植)이고, 자가 화중(化中, 華仲, 和中, 和仲으로 기록된 자료도 있다)이며, 호는 정읍의 옛 이름을 따 초산(楚山)이라 하였다. 비교적 부유하던 토반(土班) 집안에서 태어난 손화중은 9세 무렵 이웃 마을인 음성리(현 정읍시 상평동)로 이사하여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다. 이때부터 그의 총명함은 남달라서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기대가 자못 컸다고 전해지며, 12세 무렵에 나이가 여섯 살 위인 고흥 유씨(柳氏)와 결혼하여 병두, 성선, 성태(응수), 성한 등의 자식을 두었다. 10여 년간 집에서 학문을 수학한 후 20여 세 때부터 외지로 출입하여 식견을 넓히기 시작하였다. 기골이 장대하고 인품이 훌륭하여 주위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한다.

손화중 생가터는 정읍시에서 입암 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으로 지금은 과거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며 개인 소유의 가정집이 들어서 있다. 옛집은 헐어졌고 그 자리에 집 위치와 골목과 대문의 위치가 바뀐 상태로 있다.

2025년 동학농민혁명 연구·창작자 워크숍

총괄 : 김양식(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기획 : 이병규(연구조사부장)

진행 : 오진경·정유리(연구조사부)

인쇄 : 2025년 6월 23일

발행 : 2025년 6월 24일

발행처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홈페이지 : www.1894.or.kr

전화 : 063-530-9432

팩스 : 063-530-2893

편집인쇄 : 그린칼라인쇄

[비매품]

※ 발행처의 승인 없이는 무단복제를 금함 ※